

면지



## 목 차

- ▶ 올림피즘 확산을 위한 청소년의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OVEP) 참여 효과 분석  
김경수 · 이종영 ..... 1
  
- ▶ 기계체조 도마 동작의 도움닫기 구간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윤창선 · 양태영 · 박상현 · 윤석훈 ..... 13
  
- ▶ 영상매체(드라마) 활용을 통한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의 발달장애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  
노형규 ..... 21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신문기사 분석  
김창금 · 이종영 ..... 39
  
- ▶ 국내 및 일본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과 현장분석을 통한 노인여가시설 개선  
하웅용 · 김예성 ..... 49
  
- ▶ 노년기 여가스포츠 참여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 및 경기 지역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김예성 ..... 67
  
- ▶ 장애인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스포츠 관련법 비교  
윤석민 ..... 77
  
- ▶ 생활스포츠로서 복싱의 가치 탐색에 따른 활성화 전략  
허기주 ..... 87

---

## Contents

---

- ▶ Analysis of Participation Effect of Teenage Olympic Value Education Program(OVEP)  
for Spreading Olympism  
Kim, Kyong-Su · Lee, Jong Young ..... 1
  
- ▶ The Effects Approaching Phase on Vaulting in Gymnastic Performance  
Yoon, Changsun · Yang, Tae-Young · Park, Sangheon · Yoon, Sukhoon ..... 13
  
- ▶ The understanding of pre-service adapted physical education teacher about stud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education through using visual media(drama)  
Roh Hyoung-Kuy ..... 21
  
- ▶ Analysis of Article on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n Korea Major  
Daily Newspapers  
Kim Chang Keum · Lee Jong Young ..... 39
  
- ▶ The Improvement of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rough Present Situation  
and Field Analysis of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HA, Woong yong · Kim, ye sung ..... 49
  
- ▶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on social integration  
of elderly people  
Kim, ye sung ..... 67
  
- ▶ The policy proposal for the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 Legislation  
Yun, Seok-Min ..... 77
  
- ▶ The Activation Strategies based on Value of boxing as Sport for Life  
Hur Ki-Joo ..... 87

# 올림픽을 확산을 위한 청소년의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OVEP) 참여 효과 분석

## Analysis of Participation Effect of Teenage Olympic Value Education Program(OVEP) for Spreading Olympism

김경수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종영\* 한국체육대학교

Kim, Kyong-Su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 Lee, Jong Young Korea National Sport Univ.

###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올림픽가치 확산 운동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K-OVEP이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행동발달, 스포츠 활동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7년도 K-OVEP 중등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울 소재 4개 중학교 120명, 지방소재 5개 중학교 230명을 실험군으로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비참가한 서울소재 3개 중학교 90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Exercise Adherence Questionnaire, Self-Report Altruism(SRA) Scale과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SDQ), Six Scales For Assessing Attitude Towards Physical Activity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고, 분석은 SPSS Window 18.0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을 확산 사업으로 올림픽의 날 행사,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IOA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기념관과 한국형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K-OVEP)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결과 K-OVEP 관련 설문 결과 프로그램 참가자가 비참가자에 비해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행동 발달(도움, 나눔, 위로), 스포츠 활동 태도(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모든 면에서 향상되었다. 또한 장기 참가자가 단기 참가자에 비해 향상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K-OVEP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및 인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포함하여 올림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the Korean Olympic value spreading movement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 K-OVEP(Korea Olympic Value Education Program), which is operated by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on teenage sports activity participation intention, behavioral development, and sports activity attitude. This study includes observations of 120 students from 4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230 students from 5 middle schools placed in rural areas who participated in the 2017 K-OVEP Secondary Program, while 90 students from 3 middle schools in Seoul had not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ere selected as a comparative group. Questionnaires were reframed based on the Exercise Adherence Questionnaire, Self-Report Altruism (SRA) Scal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s (SDQ), and Six Scales for Assessing Attitude Towards Physical Activity, and one-way ANOVA was analyzed utilizing the SPSS Window 18.0.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has been managing the Olympic day ceremonies, Olympic Academy Regular courses, and IOA Dispatching Business, while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has been operating the Seoul Olympic Museum and K-OVEP. The result of the K-OVEP survey indicated that the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chieved higher scores in sports activity participation intention, behavioral development, and sports activity attitude than the students who had not attended in the program. In addition, long-term participants demonstrated higher improvement than short-term participants. Thus, as K-OVEP gives positive influence to teenage character development and increases motivation, it should be included in school curriculums to help spread the Olympic Movement.

Key words: Olympic Values, Olympic Movement, OVEP, Education, Sports

\* jyilee@knsu.ac.kr

## I. 서론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동·하계올림픽 유치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를 통해 올림픽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올림픽이 체육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올림픽·패럴림픽 운동의 가치, 1988 서울에서 2018 평창까지’라는 주제로 올림픽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올림픽의 파급효과에 대해 3개 분과(경제, 글로벌 협력, 사회통합)로 제초명함으로써 올림픽운동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유산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스포츠에 문화와 교육을 접목시킨 올림픽이념은 노력의 즐거움, 모범적 사례를 통한 교육, 사회적 책임성, 보편적 기본 윤리 원칙을 추구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는 올림픽 헌장 제1장에 ‘올림픽 운동은 올림픽이념과 그 가치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Olympic Charter, 2017). 이는 프랑스의 교육학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이 1894년 6월 23일, 신 소르본느(New Sorbonne)에서 개최된 파리 회의에서 주장한 올림픽 정신(Olympism)을 계승하고 있다. 쿠베르탱은 스포츠의 도덕적, 신체적,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여 고대 그리스 올림픽을 부활시켰으며, 문명의 미래는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에 있다고 하였다. 그의 저서 *Memories Olympiques*(1931)에서 “올림픽즘은 신체적으로 강함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즉, 올림픽즘이란 신체활동으로 개인이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자기규율과 통제, 그리고 평화와 같은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현해 가는 것이다(제15차 IOC 총회, 1975).

이는 그리스 민족이 고대 올림픽을 통해 심신을 조화적으로 발달시켜 유능한 공민을 만드는 것을 목표 삼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건강하게

교육받고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역할을 수행하면 칼로스카가토스(Kaloskagathos)라는 수식어를 붙여줬다. ‘칼로스(Kalos, 아름다운)’와 ‘카가토스(Kagathos, 덕이 있는)’의 합성어로서 아름다운 신체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아테네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김문환, 2017).

스포츠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매개로 평화, 우정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스포츠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자크 로게(Jacques Rogge) 전 IOC위원장은 ‘올림픽운동의 독특한 힘은 연속적인 젊은 세대들의 감격적인 꿈을 수용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꿈을 연속적으로 실현시켜주는 것이 IOC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하며 올림픽즘의 생활화를 강조하였다(장주호, 2007). 이러한 자크 로게의 신념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독려하고 건강한 신체와 도전 정신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하계 청소년 올림픽(Youth Olympic Games)이 201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고, 2012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선수들은 경기 이외에 7가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림픽가치인 탁월성·우정·존중 등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정치이념과 체제,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올림픽즘 확산을 통한 세계 평화 유지라는 측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er, 이하 IOTC)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Imagine Peace Youth Camp를 개최하여 다양성의 존중, 갈등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IOTC는 ‘우리가 16일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림픽 평화가치를 실현하고자 IOC,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The United National Office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등 다양한 기관과 공조하고 있다(IOTC, 2017).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의 주도로 2014년 11월 공개된 ‘올림픽 어젠다 2020’에는 청소년 대상 올림픽 운동의 중장기 로드맵을 엿볼 수 있다. 5개 클러스트 중 Cluster III(Olympism in action: Keep

Olympism alive 365 days a year) 부문에 올림피즘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Youth Strategy의 목표와 범위를 재설정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올림픽경기 시청 증가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스포츠의 교육적, 건강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Olympic Agenda 2020 Recommendations, 2014). 이에 '권고안 22. 올림픽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 확산'을 명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 스포츠 가치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UNESCO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실례로 IOC, UNESCO, NGO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CIGEPS(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는 2015년 1월, IOC 본부에서 체육교육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인 QPE Guidelines(The Quality Physical Education Guidelines)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신체활동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2013년 1월,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됨으로써 정기적 학교체육행사 개최, 체육교류 활성화, 체육교원 연수 강화, 학생체력평가 등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가 마련되었고 체육시설 및 용품, 스포츠강사를 확보하여 학교체육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7차 교육과정을 통해 체육이 종합교과임을 강조하고 신체활동을 위한 교육, 신체활동에 관한 교육,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을 지향하였다. 이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이해와 건강도모,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존 운동기능 중심교육에서 체육을 통한 삶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2015년 개정된 중학교 체육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협동과 배려의 덕목을 강조하고 체력육성과 정서함양을 중요시했다. 즉, 초등학교에서의 신체활동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신체활동 가치의 심화를 담당하는 교육적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교육과정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학기제 편성 및 운영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6). 이러한 정책변화는 체육활동 지원과 스포츠 가치 인식 제고를 유도하여 청소년의 체력증진 및 평생 운동습관 조성, 즐거운 학교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 가

치인 건강, 도전, 공정, 협동 등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신체활동의 참여는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havelson, 1982). Richard Bailey(2006)는 체육 및 스포츠가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존중하고 심신의 통합 발전을 유도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생활방식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가치교육 목표는 개인 및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러한 가치교육은 윤리, 정치, 사회 분야에서 그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를 통한 가치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글라스포드(Glasford)와 레드먼드(Redmond)는 스포츠의 가치를 자기중심사상의 가치, 생체중심사상의 가치, 민족중심주의 가치, 인간중심의 가치로 구분하였다(장주호, 2007). 또한 Sullivan(2006)은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 측면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가치 체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척도가 케일(Kahle)이 개발한 LOV(list of value)이다. LOV의 아홉 가지 가치는 자기실현, 흥분, 성취감, 자기존중, 소속감, 존경받음, 안전, 재미와 즐거움,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이다. 이는 올림픽가치인 탁월성, 우정, 존중과 궤를 같이 하기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해 자기실현과 소속감,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과 자기존중, 경쟁자와의 교감 등 모든 가치 체계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다.

올림픽가치와 체육 활성화를 교육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IOC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IOC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고 올림피즘을 확산시키고자 가치중심 학습과정인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the Olympic Values Education Programme, 이하 OVEP)을 2007년 개발하였다. OVEP

의 교육적 가치는 첫째, 노력의 기쁨(Joy of Effort), 둘째, 페어플레이(Fair Play), 셋째, 타인존중(Respect for Others), 넷째, 수월성 추구(Pursuit of Excellence), 다섯째, 신체와 정신의 균형(Balance between Body, Will and Mind)으로써 IOC에서 배포한 ‘가치 가르치기: 올림픽 교육 도구상자(Teaching Values: An Education Toolkit)’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홍애령, 2016). OVEP의 교육적 가치와 긍정적 효과는 선행된 여러 국외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에 2015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뮤지엄교육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교육적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형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이하 K-OVEP)을 개발하였다. 2016년 초·중등 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K-OVEP 교육을 첫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올림픽가치 이해도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최송아, 2018).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가치 확산 노력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K-OVEP이 청소년의 올림픽가치 체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올림픽 이념의 가치를 증진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가치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K-OVEP 프로그램 참가가 청소년의 올림픽가치 함양 및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 올림픽가치 확산 사업

### 1. 대한체육회의 올림픽가치 확산 사업

대한체육회는 올림픽헌장 제27조 NOCs의 사명과 역할에 의거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다. 먼저 근대 올림픽의 부활을 기념하여 올림픽 운동의 확산과 올림픽 정신의 보급을 목적으로 전 세계 206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함께 올림픽의 날(Olympic day)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올림픽즘을 확산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의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을 운영 중이다. 마지

막으로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가 주관하고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가 재원을 지원하는 각종 올림픽가치 확산 세미나 등에 한국 대표를 선발·파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올림픽의 날 행사 및 올림픽아카데미 개최 결과, 그리고 IOA 운영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한체육회 올림픽운동(최근 5년)

구분	행사명	주요 내용
올림픽의 날 행사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빙상캠프(2017)	올림픽 가치 교육, 빙상 체험
	올림픽의 날 기념 포스터 그리기대회(2016)	올림픽 가치 교육, 스포츠 그리기
	올림픽의 날 기념 걷기대회(2015)	4km 걷기, 사진전
	올림픽 데이런(2014) 올림픽 데이런(2013)	10km 달리기, 사진전, 팬사인회
올림픽 아카데미 정규과정	29기 올림픽아카데미(2017)	강의, 그룹토의 올림픽인 만남, 스포츠 활동 등
	28기 올림픽아카데미(2016)	
	27기 올림픽아카데미(2015)	
	26기 올림픽아카데미(2014)	
	25기 올림픽아카데미(2013)	
IOA 프로그램 파견	International Session for Young Participants	강의 및 토론, 올림픽 경험담
	International Session for Directors of NOAs	올림픽즘 교육, 성과 토론
	International Session for Olympic Medallists	엘리트선수의 사회생활
	International Seminar on Olympic Studies for Postgraduate Students	올림픽경기와 올림픽 운동 분석
	Int'l Session for Educators, & Officials of Higher Institutes of Physical Education	어린이, 청소년 올림픽즘 교육



## 2.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피카치 확산 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8서울올림픽의 의미와 성과 계승을 위해 1990년 9월 서울올림픽기념관을 개관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관은 전시뿐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올림픽 역사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주제로 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 활동인증을 획득 하는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취지를 살려 올림피카치를 전파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춘 리더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형 올림피카치교육프로그램(K-OVEP)을 개발하고 2016년부터 IOC와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올림피카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공교육 정책인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부응하고 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과 소외지역의 올림피즘 확산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K-OVEP 초등 프로그램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증대를 목적으로 스포츠·예술 융합활동으로 구성되었고, 중등 프로그램은 올림픽 개척지의 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학습형 프로그램과 보드게임을 제작하면서 세계문화 등을 학습하는 놀이형 프로그램으로 구

성된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7년도 올림피카치 확산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K-OVEP이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및 태도, 행동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7년도 K-OVEP 중등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K-OVEP 중등프로그램은 세계문화를 탐구하고 올림픽 관련 보드게임을 제작하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울소재 4개 중학교 1학년 120명, 지방소재 5개 중학교 1학년 240명을 실험군으로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비참가한 서울소재 3개 중학교 1학년 90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가자 중 교육기간이 1일 4시간으로 짧은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지방소재 H 중학교 학생 130명을 배제하여, 참가자 230명과 비참가자 90명을 최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 중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최종분석에는 총 270명(참가자:197명, 비참가자:73명)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참가자 및 비참가자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2.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운동(2017년)

구 분		프로그램
학교, 단체 (4종)		Tic Toc! 올림픽 컷!
		찾아가는 아카데미 올림픽 컷!
		올림픽을 만드는 사람들
		UCC만들기_올림픽Q
		올림픽에서 길을 찾다
개인, 가족 (6종)	올림픽 가치	올림픽서포터즈
		Fighting! 오륜응원단
		올림픽아카데미 “5대륙 모험”
		스포츠연계 Let's play sports(하키,골프)
		청소년인증 Together we can!_올림픽을 만드는 사람들
전시연계 (3종)	관람체험	미니체험! 소장품만나기
		The Hope Factory
		‘코리아스포츠영웅전’ 마이히어로즈백
		한글로(with)픽토그램

표 3. 연구 대상(참가자 및 비참가자)

지역	대상	기간	참가자	비참가자
서울	학교(1)	장기 (120분 ×8회)	17	20
	학교(2)		24	30
	학교(3)		28	23
	학교(4)		22	-
지방	학교(1)	단기 (240분 ×2회)	27	-
	학교(2)		20	-
	학교(3)		29	-
	학교(4)		30	-

## 2 연구도구

K-OVEP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행동 발달(도움, 나눔, 위로), 스포츠 활동 태도(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1)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Corbin과 Lindsey(1994)가 개발하고 안수운(2015)이 활용한 운동지속설문지(Exercise Adherence Questionnaire) 문항 중 4개의 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활용했다. Corbin과 Lindsey는 스포츠 지속요인을 경향성(Predisposing), 가능성(Predisposing), 강화성(Reinforcing)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경향성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스포츠 지식, 흥미,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 동기를 말한다. 가능성은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장소나 시간 등 주변 상황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말하며, 강화성은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주변인의 협조나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설문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10으로 나타났다.

### 2) 행동 발달

Rushton, Chrisjohn, & Fekken(1981)가 개발한 Self-Report Altruism(SRA) Scale과 Goodman, Meltzer, & Bailey(1988)의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SDQ)를 번안하여 최유정(2017)이 활용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도움 3개 문항, 나눔 4개 문항, 위로 3개 문항, 5점 Likert척도로 작성되었다.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19로 나타났으며, 각 부문별 도움(.843), 나눔(.836), 위로(.819)의 신뢰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스포츠 활동 태도

Kenyon(1968)의 신체활동에 대한 6가지 태도(Six Scales For Assessing Attitude Towards Physical Activity)를 참조했다. Kenyon의 6가지 범주는 사회적 경험(Social experience), 현기증 추구(Pursuit of vertigo), 감정의 정화 작용(Catharsis),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 극기(Ascetic), 건강과 체력(Health and fitness)이다. 이중 사회적 경험 범주를 사회적 태도, 건

강과 체력 범주를 신체적 태도, 감정의 정화 작용 범주를 정서적 태도로 변형했으며, 이동준과 황지현(2016)의 스포츠 태도 항목 중 9개 항목을 활용하여 5점 Likert척도로 측정했다.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5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부문별 사회적(.947), 신체적(.859), 정서적(.904) 신뢰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 구성 항목

설문 문항	설문 내용	출처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1. 스포츠 활동 지식	Corbin& Lindsey(1994), 안수운(2015)
	2. 운동시설 이용	
	3. 스포츠 활동의 긍정성	
	4. 스포츠 활동 참여	
행동 발달	1. 몸이 아픈 친구 도움	Rushtonet al.(1981), Goodmanet al.(1988), 최유정(2017)
	2. 사람들에게 길 안내	
	3. 어른신 도움	
	4. 차례 양보	
	5. 준비물 공유	
	6. 어른신에게 자리 양보	
	7. 진심어린 축하	
	8. 친구 문병	
	9. 친구 달래기	
	10. 친구 위로	
스포츠 활동 태도	1. 사회성 향상	Kenyon(1968), 이동준, 황지현(2016)
	2. 인간관계 발달	
	3. 주위사람 관계 유지	
	4. 건강 유지	
	5. 몸매 관리	
	6. 건강 향상	
	7. 스트레스 감소	
	8. 긴장감 해소	
	9. 삶의 만족도 향상	

## 3. 연구설계와 절차

본 연구는 K-OVEP 프로그램 참가 유무가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행동 발달, 스포츠 활동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각 학교별로 실시된 K-OVEP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도가 확보되어 검증된 항목들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자와 공단의 K-OVEP 운영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교육 참가 전·후 각 2회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조군으로 선정한 서울소재 3개 중학교의 교육 비참가자 설문을 위해서 해당 담임 선생님께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였다.

이렇게 K-OVEP 프로그램 참가자와 비참가자를 대상으로 배포·수집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 4. 자료처리 방법

K-OVEP 프로그램 참가유무가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행동 발달, 스포츠 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 응답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연구자가 자료를 검토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였다. 최종적으로 실험군 197명, 대조군 73명의 사전, 사후 설문지를 데이터화하고 입력한 후 SPSS Window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 종속변인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참가자의 요인별(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행동 발달, 스포츠 활동 태도) 향상 정도와 그 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아울러 장기간(8회) 참가자와 단기간(2회) 참가자 간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의 범주별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내적일치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는 .910, 행동발달은 .919, 스포츠 활동 태도는 .945의 계수를 얻어 척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III. 결과 : K-OVEP 프로그램 참가 효과 분석

#### 1. 프로그램 교육 참가 여부에 따른 효과

K-OVEP 프로그램 종료 후 교육 참가 유무가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행동발달(도움, 나눔, 위로), 스포츠 활동 태도(사회적, 신체적, 정서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참가자 197명, 비참가자 73명의 설문 데이터에 대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교육 참가자가 비참가자에 비해 전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측면에서 참가자( $M=4.11$ )의 경우 비참가자( $M=3.64$ )에 비해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

표 5. 일원변량분석(참가자 197명, 비참가자 73명)

설문 문항 (개수)	참가 유무	M	SD	F	p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4)	유	4.11	.77	26.660	.000
	무	3.64	.85		
행동 발달(10)	유	4.39	.62	13.337	.000
	무	4.13	.75		
도움 (3)	유	4.39	.66	10.013	.002
	무	4.11	.80		
나눔 (4)	유	4.40	.63	11.501	.001
	무	4.14	.76		
위로 (3)	유	4.37	.71	8.859	.003
	무	4.15	.82		
스포츠 활동 태도(9)	유	4.36	.65	25.269	.000
	무	4.02	.76		
사회적 (3)	유	4.36	.68	14.750	.000
	무	4.11	.82		
신체적 (3)	유	4.41	.66	9.260	.003
	무	4.14	.73		
정서적 (3)	유	4.32	.73	30.734	.000
	무	3.81	.98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6.660$ ,  $p=.000$ ).

행동발달 측면에서 참가자( $M=4.39$ )가 비참가자( $M=4.13$ )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3.337$ ,  $p=.000$ ). 세부 하위요인을 보면 ‘도움’ 항목은 참가자( $M=4.39$ ), 비참가자( $M=4.11$ ), ( $F=10.013$ ,  $p=.002$ ), ‘나눔’은 참가자( $M=4.40$ ), 비참가자( $M=4.14$ ), ( $F=11.501$ ,  $p=.001$ ), ‘위로’는 참가자( $M=4.37$ ), 비참가자( $M=4.15$ ), ( $F=8.859$ ,  $p=.003$ )로 참가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태도 부문에서도 참가자( $M=4.36$ )의 경우 비참가자( $M=4.02$ )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5.269$ ,  $p=.000$ ). 세부 분석결과 ‘사회적’ 항목은 참가자( $M=4.36$ ), 비참가자( $M=4.11$ ), ( $F=14.750$ ,  $p=.000$ ), ‘신체적’은 참가자( $M=4.41$ ), 비참가자( $M=4.14$ ), ( $F=9.260$ ,  $p=.003$ ), ‘정서적’은 참가자( $M=4.32$ ), 비참가자( $M=3.81$ ), ( $F=30.734$ ,  $p=.000$ )로 참가자가 비참가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2 프로그램 교육 참가 기간에 따른 효과

K-OVEP 프로그램 참가자 197명 중 장기(서울 소재) 참가자 91명, 단기(지방 소재) 참가자 106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장기 참가자가 단기 참가자에 비해 스포츠 참여의도, 행동 발달, 스포츠 활동 태도 모든 부문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부문에서 장기 참가자( $M=4.28$ )의 경우 단기 참가자( $M=3.96$ )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9.715$ ,  $p=.000$ ).

행동 발달 측면에서도 장기 참가자( $M=4.55$ )가 단기 참가자( $M=4.25$ )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29.604$ ,  $p=.000$ ). 세부 하위요인인 ‘도움’에 있어서는 장기 참가자( $M=4.57$ ), 단기 참가자( $M=4.24$ ), ( $F=24.219$ ,  $p=.000$ )로 나타났고, ‘나눔’은 장기 참가자( $M=4.55$ ), 단기 참가자( $M=4.28$ ), ( $F=21.066$ ,  $p=.000$ ), ‘위로’는 장기 참가자( $M=4.54$ ), 단기 참가자( $M=4.23$ ),

표 6. 일원변량분석(장기 참가자 91명, 단기 참가자 106명)

설문 문항 (개수)	기간	M	SD	F	p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4)	장기	4.28	.72	19.715	.000
	단기	3.96	.79		
행동 발달(10)	장기	4.55	.54	29.604	.000
	단기	4.25	.66		
도움 (3)	장기	4.57	.57	24.219	.000
	단기	4.24	.70		
나눔 (4)	장기	4.55	.56	21.066	.000
	단기	4.28	.66		
위로 (3)	장기	4.54	.63	14.421	.000
	단기	4.23	.75		
스포츠 활동 태도(9)	장기	4.53	.61	34.197	.000
	단기	4.22	.66		
사회적 (3)	장기	4.52	.66	22.656	.000
	단기	4.23	.68		
신체적 (3)	장기	4.57	.59	24.739	.000
	단기	4.27	.68		
정서적 (3)	장기	4.50	.69	23.394	.000
	단기	4.16	.73		

( $F=14.421$ ,  $p=.000$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스포츠 활동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역시 장기 참가자( $M=4.53$ )가 단기 참가자( $M=4.22$ )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4.197$ ,  $p=.000$ ). 세부 하위요인인 ‘사회적’ 부문에서는 장기 참가자( $M=4.52$ ), 단기 참가자( $M=4.23$ ), ( $F=22.656$ ,  $p=.000$ )로 나타났고, ‘신체적’은 장기 참가자( $M=4.57$ ), 단기 참가자( $M=4.27$ ), ( $F=24.739$ ,  $p=.000$ ), ‘정서적’은 장기 참가자( $M=4.50$ ), 단기 참가자( $M=4.16$ ), ( $F=23.394$ ,  $p=.000$ )로 장기 참가자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IV. 논의

첫 번째 실험 결과 K-OVEP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행동발달(도움, 나눔, 위로), 스포츠 활동 태도(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비참가자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에 '건강', '정서생활'이 중요시 되어 왔다(이승미, 2009)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교육을 위해 K-OVEP 프로그램의 활용가치가 크다 하겠다.

K-OVEP는 스포츠뿐 아니라 역사, 미술 등 타 과목이 접목되어 있어서 융합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다. 또한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명시된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는 교육방침에도 부합한다.

한편 인성교육진흥법에 인성교육이란 '타인·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K-OVEP 참가자의 행동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듯이 K-OVEP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사회문제인 학교폭력·왕따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등 체육과 교육과정은 5가지 신체활동가치(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로 구성되어 여러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경험하면서 올림픽의 핵심 가치인 도전, 우정, 페어플레이를 배우고 행복한 삶을 위해 체육을 권장한다. 이처럼 K-OVEP의 기본정신은 이미 교과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용체계에 적극 반영할 수 있고, 해당 교과의 특정 부분을 위한 사례로도 활용될 수 있다.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내외 체육활동 조사 결과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 '토요 스포츠'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운동 참여기회 감소로 인한 비만 비율이 2008년 11.2%에서 2016년 16.5%로 상승한 교육부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체육활동 참여효과는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라고 응답한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K-OVEP이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독려하여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

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장소의 경우, 중소도시에서는 '학교 내' 응답률(98.7%)이 높았으나 읍면이하에서는 '학교 내' 응답률(87.2%)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K-OVEP 프로그램을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서 적극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태도 및 스포츠 참여의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일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 결과 장기 참가자가 단기 참가자에 비해 스포츠 참여의도, 행동 발달, 스포츠 활동 태도 모든 부문에서 다소 높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VEP 교육이 단발성이 아닌 정부의 제도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 시 청소년의 상호협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실시하고, 인성과 감수성을 키워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내가 참여하는 수업, 자유학기제 확대를 목표로 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교육 실시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K-OVEP의 활용 기회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봉사활동 등)에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올림픽가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K-OVEP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림픽 가치를 학습하고 스포츠와 연계된 진로와 분야를 탐색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K-OVEP이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등에 활용된다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가 가능하다.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및 태도의 긍정적 변화,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발달은 올바른 인성 함양과 건강한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영웅, 장애를 극복한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감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배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K-OVEP의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국민의 시대'로 규정(국정 과제 보고대회, 2017.7.19.)되면서 스포츠는 한층 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정과제의 목표를 스포츠에 반영하고 올림피즘 확산을 통해 보편적 가치(공정·인권·정의)를 구현하는 스포츠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과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협동, 경쟁, 도전)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하여 사회통합,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즉,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 사회구성원간의 상호 연대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올림픽은 경제·문화·사회 시민의식 등 개최지역의 역량이 총집결되는 국가 이벤트로서 지속 가능한 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을 남기기 위해 문화·환경·평화올림픽을 지향한다. 무형유산 측면에서는 올림픽 가치 창출 분위기 확산과 올림픽이 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올림픽 이상을 보급하고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최국의 스포츠 증진과 발전을 도와준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회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학교, 체육단체 등이 올림픽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정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 정책을 기반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질적, 양적으로 증대시켜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K-OVEP 프로그램 등의 올림픽가치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계층별 K-OVEP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올림픽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면 나아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제72차 유엔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관용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남북한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올림픽가치를 실현하였다.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전공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디자인되어야 한다(Bronikowski, M & Bronikowska, M., 2009).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체육 담당기관이 다양하지만 정부 주도하의 관료주의적 정책으로 올림픽가치 교육에 한계가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체육정책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청 및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듯 여러 주체가 학교체육 업무에 관여하지만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스포츠가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

하다. 이에 한국체육학회, 한국스포츠개발원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최적화된 K-OVEP 프로그램을 모색내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확대로 학교 교과 과정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젊은이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게 해주는 '평창 드림 프로그램'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차세대 스포츠행정가를 양성하는 '서울대 드림 투게더 마스터'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문화동반자사업'에도 K-OVE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올림픽가치와 함께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서울올림픽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올해는 올림픽가치를 확산시키고 올림픽을 자리매김 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적기이다. 작년 3월, IOC위원장인 토마스 바흐는 한국체육대학교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올림픽 운동과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올림픽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아시아올림픽 아카데미센터 개설을 제안하는 등 올림픽가치의 무형적 유산을 계승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올림픽가치 교육의 상황을 조명하고, K-OVEP 교육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행동 발달, 스포츠 활동 태도 변화와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K-OVEP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가치 운동 현황을 살펴보고, IOC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 표준매뉴얼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는 K-OVEP의 올림픽가치 확산 효과를 실제적으로 검증하였다.

조사결과 대한체육회는 올림픽현장에 의거 올림픽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림픽의 날(Olympic day) 행

사를 매년 개최하고 올림피아카데미 정규과정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국제올림피아카데미(IOA) 주관 교육에 한국 대표를 선발·파견하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서울올림픽기념관을 통해 올림픽 역사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아카데미를 운영 중이고 한국형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K-OVEP)을 개발하여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림픽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K-OVEP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 행동발달(도움, 나눔, 위로), 스포츠 활동 태도(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운영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K-OVEP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의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로서 일반교과를 아우르는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기관의 단독 운영만으로는 그 발전에 한계가 있기에 다음과 같은 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 커리큘럼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K-OVEP는 민주시민 육성, 국제적 사고력 향상, 다문화 학습 등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이 깊고 우정과 화합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청소년 폭력 및 왕따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K-OVEP 운영자, 교사, 학생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이 가능한 평가척도 및 평가도구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IOC가 제시한 OVEP 도구상자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한국적 특색이 가미된 K-OVE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청소년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즉, 범국가적인 올림픽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한국형 OVEP로서의 새로운 가치 발견과 성인프로그램의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올림픽의 기본 가치는 통용되지만, 실제적인 교육방법과 자료는 한국의 정서와 역사, 전통, 철학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만의 K-OVEP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국내의 각종 스포츠경기대회와 올림픽 행사 및 강좌를 활용하여 K-OVEP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올림픽의 날 행사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부대행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기간에 집중적인 K-OVEP 운영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소년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교육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 대한체육회 주관 올림피아카데미, 주니어종합경기대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K-OVEP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양질의 전문 강사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단지 3명의 계약직 강사를 채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공단은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과정인 ‘올림픽가치 교육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평가인증 A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지도사 및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에 K-OVEP 과정을 보급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올림픽가치 확산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업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공단은 현재 노후화된 올림픽회관을 올림픽콤플렉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체육박물관 및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차체에 공단은 대한체육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K-OVEP 상설 교육관 설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스포츠를 단순히 신체를 통한 경쟁의 놀이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전인적 인간 양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올림픽가치 생활화를 통해 이웃과의 우정, 존중을 내재화하고 규칙 준수, 평화 화합의 정신을 추구하여 건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별, 지역별로 K-OVEP의 참가 효과와 특성을 확인하고, 교육 참가자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구수현(2011). **스포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즘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서울.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2018). <http://www.kspo.or.kr>
- 김재영, 김경숙(2016). 취약계층 청소년의 행복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변화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3), 105-133.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2018). <https://www.sports.or.kr>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배기열(2002). **Coubertin 사상으로 통해 본 올림픽 경기의 문제점과 전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 석지혜, 남상준(2009). TIE 참여교사의 사회과 가치교육에 관한 인식 및 학생들의 가치변화에 대한 연구: 극단 에듀리마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5(4), 208-238.
- 안미연(2017).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시청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태도, 참여의도, 활동량에 미치는 영향: 문화계발효과와 인지된 현실감 이론 적용**.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울.
- 이제아(2013). **스포츠미디어 소비가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 검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장주호(2007). **올림픽즘의 교육학**. 서울: 한국올림픽아카데미
- 조기범(2011). **중등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올림픽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최송아, 권남희(2018). 한국형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탐색: 초·중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9(1), 154-169.
- 홍애령, 안지연(2016). 스포츠가치교육으로서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OVEP)의 교육적 가능성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2), 1-24.
- Choi, Y. J. (2017). *Relationships between Olympic values, sport involvement and prosocial behaviour: An empirical study of Korean youth*(Unpublished master's thesis). German Sport University Cologne
- Bronikowski, M. and Bronikowska, M. (2009) 'Can Olympic Education be among the Peace-makers?', in Georgiadis, K. and Syrigos, A. (eds) *Olympic Truce as a Platform for Peace*. Athens: The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93-109.
- IOC (2015). *Olympic Charter*, Lausanne: IOC.
- IOC Commission for Culture & Olympic Education (2007). *Teaching values: An education toolkit*. Retrieved from [http://www.olympic.org/Documents/OVEP\\_Toolkit/OVEP\\_Toolkit\\_en.pdf](http://www.olympic.org/Documents/OVEP_Toolkit/OVEP_Toolkit_en.pdf).
- IOC Olympic Agenda 2020. Retrieved from <https://www.olympic.org/olympic-agenda-2020>
- IOC Olympic values and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olympic.org/olympic-values-and-education-program>
- 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Educational Programmes. Retrieved from <http://ioa.org.gr/education>
-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olympictruce.org/index.php?lang=en>
- Richard Bailey. (2006).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in Schools: A Review of Benefits and Outcomes, *Journal of School Health*, 76(8), American School Health Association 397-401
- Steve Jackson. (2018, January). *Socio-Cultural Impact of the Olympics. The Vaule of the Olympics and Paralympics Movement from 1988 Seoul to the 2018 PyeongChang*. International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oul, Korea.



# 기계체조 도마 동작의 도움닫기 구간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Approaching Phase on Vaulting in Gymnastic Performance

윤창선 · 양태영 · 박상현 · 윤석훈\* 한국체육대학교

Yoon, Changsun · Yang, Tae-Young · Park, Sangheon · Yoon, Sukhoon Korea National Sport Univ.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계체조 도마 동작의 도움닫기 구간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K대학 체조선수 중 도마난도 기술 5.2 이상의 우수자 5명(age: 22.4±1.5 years, height: 165.2±2.9 cm, weight: 61.2±4.1 kg, career: 12.0±2.5 years)과 그렇지 못한 비우수자 5명(age: 21.6±0.5 years, height: 162.8±3.6 cm, weight: 57.4±3.2 kg, career: 10.0±2.1 years), 총 1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도마의 로운(Lou Yun) 기술을 각 5회씩 수행하였으며 이때 도움닫기 구간이 기계체조 도마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구름 시간, 도마접촉시간, 도움닫기 시 속도, 운동량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우수 그룹은 비우수 그룹 선수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발구름 시간을 보였으며( $p<.05$ ), 도움닫기 시 약 9% 빠른 속도와 약 15% 높은 운동량을 나타냈다( $p<.05$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0.01초 빠른 도마 접촉 시간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이는 우수 그룹의 선수들이 비우수 그룹과 비교하여 폭발적으로 도움닫기와 발구름 연결동작 및 도마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빠른 도움닫기 속도와 운동량을 바탕으로 보다 높고 긴 체공시간의 난이도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체조 도마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움닫기와 발구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하지의 근력 향상과 주로 주행 기술 등과 같은 도움닫기 구간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approaching phase on vaulting in gymnastic performance. Ten gymnasts, divided into skilled group(age: 22.4±1.5 years, height: 165.2±2.9 cm, weight: 61.2±4.1 kg, career: 12.0±2.5 years) who performs vaulting skill level over than 5.2 points and less-skilled group(age: 21.6±0.5 years, height: 162.8±3.6 cm, weight: 57.4±3.2 kg, career: 10.0±2.1 years) who performs vaulting skill level less than 4.8 poi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n, subjects were asked to perform the Lou Yun movement five times. The board contact, horse contact time, velocity and momentum of approaching phase were measured. In result, the board contact time in skilled group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less-skilled group( $p<.05$ ). Moreover, the velocity and momentum of approaching phase in skilled group were greater than less-skilled group( $p<.05$ ). It indicates that skilled group performs more powerful contact than less-skilled group on the board. In addition, skilled group has a big potential for performing high level movements on vaulting with greater velocity and momentum compared with less-skilled group. Therefore, the training for running, approaching which could be step matching, and board contact are very important in order to enhance vaulting performance in gymnastics.

Key words: gymnastics, vaulting, approaching phase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자체학술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sxy134@knsu.ac.kr

## I. 서론

기계 체조는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인체가 가진 특유의 선과 기술(technique)을 바탕으로 일정한 루틴(routine)을 아름답게 수행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의 예술이다(이종훈, 백진호, 2009).

현재 한국 남자 기계체조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필두로 다년간의 올림픽에서 높은 난이도와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세계정상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여러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며 국위선양을 하는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기계체조의 동향에 따라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경쟁 국가들의 기술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으며 새로운 난이도의 기술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남자 기계체조는 전반적이고, 진보적인 기술의 향상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스포츠 과학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자 기계체조 종목은 마루운동,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 6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져있고(Federation of International Gymnastics, 2013), 이 종목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도마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연기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에 따라 기술에 대한 높은 정확성과 순간적인 판단력 및 완성도를 요구한다. 도마는 적절한 도움닫기 이후, 두 발을 모아 발구름을 하여 양손으로 도마를 짚고 뛰어 넘으면서 공중회전 및 비틀기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착지에 이르는 연속적인 동작을 평가하는 경기이다. 마루의 기술 구간은 크게 도움닫기, 제 1비약(발구름 하여 두 손 버티기까지), 제 2비약(도마 이륙 후 착지까지), 그리고 착지로 나뉘게 된다(박종훈 & 송주호, 2012; 박종훈 & 송주호, 2015). 도마경기의 성패는 다른 체조종목과 마찬가지로 난도 점수(D-score, difficulty score) 및 실행 점수(E-score, execution score)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과 상이하게 단일기술의 연기만으로 최종 점수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난도 점수가 그 어떤 기계체조 종목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Federation of International Gymnastics, 2013; 박종훈 & 송주호, 2015). 때문에 많은 도마종목의 선수들이 고난도의 기술을 개발하여 정식 도마 기술로 채택 받음으로써 경기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

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양학선 선수는 자신이 개발한 난이도 7.4의 양 기술(handspring forward and salto forward straight with triple twist; Tang)을 성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도마 종목은 1988년도 올림픽에서 박종훈이 한국 기계체조의 첫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유옥렬의 동메달,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여홍철의 은메달 그리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양학선의 금메달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계체조의 우세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제 1비약과 제 2비약 구간의 공중 동작 분석에 국한된 실정이다(박종훈 등, 2003; 윤창선, 김태삼, 2006; 이순호, 박종훈, 이종훈, 2006; 안재석, 2009; 박종훈, 송주호, 2012; 박철희, 김영관, 2014; 박종훈, 송주호, 2015; 박철희, 김영관, 2016; Takei, 1991; Takei, et.al., 1996; Takei, 2007).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주된 쟁점으로 거론된 제 1비약과 제 2비약, 위 두 구간에서 높은 난이도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행되는 도움닫기와 발구름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빠른 속도의 도움닫기를 통해 확보된 선운동량을 발구름 동작으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공중동작의 기술 수행을 위한 충분한 회전운동량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아무리 공중 동작의 기술이 우월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도움닫기와 발구름에서 충분한 선 운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중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겪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움닫기와 발구름 동작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조 도마선수들이 보다 높은 난이도의 공중동작 및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도움닫기와 발구름의 연결동작 분석을 통해 기계체조 선수들의 도마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체조 선수 총 10명을 대상으로, 도마난도 기술 점수 5.2 이상을 수행하는 우수군 5명과 4.8 이하를 수행하는 비우수군 5명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6개월 이내 상해를 입지 않은 자로, 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특성

Group (n)	Age (yrs.)	Height (cm)	Weight (kg)	Career (yrs.)
우수 (5)	22.4 ±1.5	165.2 ±2.9	61.2 ±4.1	12.0 ±2.5
비우수 (5)	21.6 ±0.5	162.8 ±3.6	57.4 ±3.2	10.0 ±2.1

### 2. 실험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체조 도마선수들의 도움닫기와 발구름의 연결동작 분석을 통해 기계선수의 도마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각 대상자들은 도마에서 4.8 난도의 로운(Lou Yun) 기술을 총 5 회 수행하였으며, 이때 발구름 시간, 도마 접촉시간, 도움닫기 시 이동속도와 운동량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동작 도움닫기 동작은 4대의 비디오카메라(HXR-MC 2000, Sony, Japan)와 2대의 초고속 카메라(Exilim ex-f1, casio, Japan)를 통하여 촬영되었으며 이때 샘플링 율(sampling rate)은 비디오카메라 60 Hz, 초고속카메라 600Hz 로 설정하였다. 각 대상자의 신체질량중심(center of mass [COM])에 대한 3차원 좌표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Kwon 3D 프로그램(Visol, Korea)을 통해 DLT(direct linear transformation) 방법으로 3차원 좌표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각 대상자의 신체중심(center of mass [COM])을 대변하는 엉치뼈(sacrum)를 디지털이징(digitizing) 하여 원자료(raw data)를 추출하였다(Gutierrez-Farewik, Bartonek, & Saraste, 2006). 이렇게 추출된 3차원 좌표데이터는 Butterworth 2nd order low-pass filter를 사

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였고, 이때 차단주파수는 6 Hz로 설정하였다.

### 3. 분석변인

체조 도마 선수들의 도움닫기 구간의 도움닫기와 발구름의 연결 동작을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된 변인은 아래와 같다.

#### 1) 발구름 시간과 도마접촉시간

발구름 시간은 각 대상자의 도움닫기 후, 발 분절이 발판을 초기 접촉한 시점부터 이탈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도마접촉시간은 대상자가 발판에서 이탈한 이후, 손으로 도마를 초기 접촉한 시점부터 이탈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 2) 도움닫기 시 이동속도

도움닫기 시 대상자의 이동속도를 산출하기 위해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신체질량중심(엉치뼈)의 3차원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대상자의 도움닫기 구간에서의 변위를 계산하였다. 이때, 도움닫기 구간은 대상자가 발판을 밟기 위해 도약하는 마지막 스텝의 이지시부터 발판을 밟는 순간까지의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변위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여 도움닫기 시 이동속도를 구하였다.

#### 3) 도움닫기 시 운동량

도움닫기 시 각 대상자의 운동량을 구하기 위해 계산된 각 대상자의 이동속도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체중을 곱하여 도움닫기 시 운동량( $P$ )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P = mv$$

이때  $m$ 은 체중을 뜻하며,  $v$ 는 속도를 의미한다.

### 4.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우수 군과 비우수 군 간의 도움닫기와

발구름 연결동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 (independent  $t$ -test)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기계 체조 선수들의 도움닫기 구간의 도움닫기와 발구름의 연결동작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변인은 <표 2>와 같이 산출되었다.

기계 체조 도마 종목의 우수 군과 비우수 군 선수들의 발구름 시간과 도움닫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우수 군 선수들의 발구름 시간이 비우수 군 선수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p<.05$ ). 그리고 도마접촉 시간 역시 우수 군의 선수들이 비우수 군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계체조 도마 선수들이 충분한 공중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하는 도움닫기 시 속도와 운동량을 분석한 결과, 도움닫기 시 속도는 우수 군의 선수들이 비우수 군의 선수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9% 빠른 속도를 나타냈으며, 도움닫기 시 운동량은 약 16%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표 2,  $p<.05$ ).

###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계체조 도마선수들의 도움닫기 구간의 도움닫기와 발구름의 연결동작 분석을 통해 기계체조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기계체조 선수들이 보다 완벽한 도마 연기를 펼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주요 요인들 중, 발구름과 도마접촉 기술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구름과 도마접촉 시 우수 군과 비우수 군의 연결동작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발구름과 도마접촉 시 시간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발구름과 도마접촉 시 시간은 기계체조 선수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도약을 시도하는지 판단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제시되었으며 발구름 시간과 제 1비약의 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발구름 시간이 짧을수록 제 1비약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도마의 기술점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Bradshaw, Hume, Calton, & Aisbett, 2010). 더해, 1988년 올림픽 기계 체조선수들의 숙련도에 따른 도마 연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선수들은 숙련도가 낮은 선수들보다 0.02초 짧은 도마접촉 시간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는데(Takei & Kim, 1990),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우수 군의 선수들이 비우수 군의 선수들과 비교하여 0.01초 짧은 발구름 시간을 나

표 2. 도움닫기 구간의 분석 변인

Variables	Group	Mean±SD	t(p)
발구름 시간(sec)	우수	0.10±0.004	$t=-3.22(p=0.01)^*$
	비우수	0.11±0.005	
도마접촉 시간(sec)	우수	0.17±0.020	$t=-1.42(p=0.19)$
	비우수	0.18±0.021	
도움닫기 시 속도(m/s)	우수	7.28±0.25	$t=3.10(p=0.02)^*$
	비우수	6.69±0.34	
도움닫기 시 운동량(kg·m/s)	우수	445.14±28.10	$t=3.25(p=0.01)^*$
	비우수	384.27±31.09	

\*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05$ )

타내었으며(표 2,  $p<0.05$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0.01초 짧은 도마접촉 시간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수 군 선수들이 비우수 군 선수들 보다 폭발적으로 발판을 터치하였으며 그 결과가 도마접촉 동작에 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높은 난도의 도마 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우수한 도움닫기 동작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판과 도마를 접촉하는 동작은 기계체조 도마 선수들이 고난도의 공중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며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도마 종목의 보다 높은 기술의 수행을 위해서는 체공 시간을 더욱 더 길게 확보하기 위하여 발판을 강하게 터치하고 도마 접촉 시 도마를 순간적으로 튕겨 밀어내기위한 하지 펌 근육(extensor)인 비복근(gastrocnemius),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 대둔근(gluteus maximus) 등의 근파워(muscle power) 트레이닝과 상지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코어근육(core muscle)의 트레이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체조 도마 동작의 도움닫기는 도마 연기의 성패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25m의 도마 주로 주행을 통해 만들어내는 빠른 속도의 도움닫기는 더욱 더 어려운 기술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고되었다(Krug, Knoll, Köthe, & Zocher, 1998). 또한, 도움닫기 시의 큰 운동량은 선수가 발구름 판을 강하게 접촉함으로써 전이되어지는 제 1비약의 빠른 수직 속도의 생성을 가능케 하고, 체공시간을 늘려주어 더 많은 비틀기(twists)와 회전동작(saltos)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Bruggemann & Nissinen, 1981). 그리고 Veličković, Petković, & Petković(2011)은 기계체조 도마 동작의 도움닫기 시 속도 증감의 중요성을 육상의 멀리뛰기와 비유하여 알기 쉽게 제시하였는데 도마의 도약은 육상의 멀리뛰기와 같이 기본적으로 빠른 속도의 도움닫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후,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낸 자신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좋은 기록을 위하여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Sands(2000)는 기계체조 종목 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기량을 모두 발휘해야하는 도마 종목의 특성상 빠른 속도의 도움닫기는 높고 긴 공중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운동량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큰 이점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수 군의 선수들은 비우수 군의 선수들과 비교하여 도움닫기 시 속도와 운동량이 각 9%, 16%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수 군의 선수들이 도움닫기 시 보다 빠른 속도를 생성하였으며 현재, 보다 난이도 높은 동작을 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Bradshaw, 2004). 실제로 Dainis(1981)는 바람직한 도움닫기 시에 발생하는 수평, 수직 속도의 1%, 2%의 증가는 비행 후 2%, 4%의 공중 이동 거리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기계체조 도마 종목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닫기에 대한 기술력 향상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Veličković, Petković, & Petković(2011)는 도마 선수들이 최대 속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 발구름판을 밟는데 있어서의 숙련도 부족 그리고 불안감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도움닫기 및 발구름을 위해서는 25m 라는 짧은 주로에서 주행하여 최대의 속도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는 근력의 향상을 위해 최대 파워 훈련, 즉 30-45% RM 의 무게를 활용하는 트레이닝과 최소한의 짧은 시간 안에 빠르고 강력한 운동으로 폭발적인 동심성 수축을 이끌어내는 플라이오메트릭(plyometrics)트레이닝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Clark, Lucett, & Kirkendall, 2010). 또한, 근력 트레이닝과 더불어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한 선수들의 숙련도 향상 그리고 발구름판을 밟는데 있어서의 자신감과 함께, 불안감과 같은 심적 부담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계체조 도마선수들의 도움닫기 구간의 도움닫기와 발구름의 연결동작 분석을 통해 기계체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도움닫기 시 도움닫기와 발구름의 연결동작 살펴보기 위해, 발구름 시간과 도마접촉시간, 도움닫기 시 이동속도와 도움닫기 시 운동량을 분석하였다. 우수 군 선수들은 비우수 군 선수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발구름 시작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도마접촉 시간 또한 짧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도움닫기 시 속도와 운동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도움닫기 동작의 차이가 우수 군과 비우수 군의 경기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도마 동작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움닫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이를 위해 도움닫기 시 최대 속도를 발휘하기 위한 상·하지 근력 트레이닝과 자신감 있는 주로 주행 및 발구름을 시도하기 위한 많은 연습과 다양한 실전 경험이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박종훈, 송주호(2012). 도마 YANG Hak Seon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 **체육과학연구**, 23(3), 702-717.
- 박종훈, 송주호(2015). 체조 도마 손 짚고 옆 돌아 몸 펴 뒤 공중 돌며 1260 도 비틀기 (YANG Hak Seon 2)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 **체육과학연구**, 26(2), 413-429.
- 박종훈, 윤상호, 백진호, 김동민, 정남주(2003). 도마운동 Ropez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2(3), 697-708.
- 박철휘, 김영관(2014). 남자 체조 YANG-1 과 YANG-2 도마 동작의 운동학적 비교.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24(4), 317-327.
- 박철휘, 김영관(2016). 획득점수 수준에 따른 여자 도마 유리첸코 몸펴 360° 비틀기 기술의 운동학적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5(6), 771-781.
- 안재석(2009). 도마 여자 규정연기 YAMASHITA 반바퀴 비틀기 동작의 운동학적 변인과 획득점수간의 상관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8(1), 1163-1174.
- 윤창선, 김태삼(2006). 도마 유리첸코 동작 시 숙련도에 따른 운동학적 차이. **한국운동역학회지**, 16(2), 135-144.
- 이순호, 박종훈, 이종훈(2006). 도마종목 Kasamatsu 계의 Akopian 기술동작 분석. **한국운동역학회지**, 16(1), 89-100.
- 이종훈, 백진호(2009). 평행봉 Basket to Handstand 기술 훈련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향상도 평가. **한국운동역학회지**, 19(4), 719-728.
- Bradshaw, E. (2004). Gymnastics: Target-directed running in gymnastics: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vaulting. *Sports Biomechanics*, 3(1), 125-144.
- Bradshaw, E., Hume, P., Calton, M., & Aisbett, B. (2010). Reliability and variability of day-to-day vault training measures in artistic gymnastics. *Sports Biomechanics*, 9(2), 79-97.
- Bruggemann, G. P., & Nissinen, M. A. (1981). Analyse kinematischer Merkmale des Handstütziüberschlags beim Pferdsprung [Kinematics of the handspring vault]. *Leistungssport*, 11, 537-547.
- Clark, M., Lucett, S. & Kirkendall, D. T. (2010). *NASM's essentials of sports performance training*.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Dainis, A. (1981). A model for gymnastics vaulting.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13(1), 34-43.
- Federation of International Gymnastic (2003). Men's Artistic Gymnastics Code of Point.
- Krug, J., Knoll, K., Köthe, T., & Zocher, D. H. (1998). Running approach velocity and energy transformation in difficult vaults in gymnastics. In XVI International Symposium of biomechanics in sports (pp. 160-163).
- Sands, W. A. (2000). Vault run speeds. *Technique*, 20(4), 1-5.
- Takei, Y. (1991). A comparison of techniques used in performing the men's compulsory gymnastic vault at the 1988 Olympic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7(1), 54-75.
- Takei, Y. & Kim, E. J. (1990). Techniques used in

performing the handspring and salto forward tucked vault at the 1988 Olympic Gam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6(2), 111-138.

Takei, Y., Blucker, E. P., Dunn, J. H., Myers, S. A., & Fortney, V. L. (1996). A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he men's compulsory vault

performed at the 1992 Olympic Games. *Journal of Applied Biomechanics*, 12(2), 237-257.

Veličković, S., Petković, D., & Petković, E. (2011). A case study about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the run-up approach on the vault between top-class and middle-class gymnasts. *Science of Gymnastics Journal*, 3(1), 25-34.





# 영상매체(드라마) 활용을 통한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의 발달장애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

## The understanding of pre-service adapted physical education teacher about stud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education through using visual media(drama)

노형규\* 한국체육대학교

Roh Hyoung-Kuy Korean National Sport Univ.

### 요약

본 연구는 특수체육을 전공하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시각매체 교육 방법 중 드라마를 활용했을 때 발달장애와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인식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수체육을 전공하는 H대학 재학생들은 향후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비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와 교육방식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교육에 있어 33명의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드라마 시청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들에 대한 특징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영상자료는 2004년 일본에서 제작·방영된 ‘빛과함께(光とともに)’라는 11부작 드라마로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총 11회에 걸쳐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이 주별로 시청하고 각 회마다 감상문을 작성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한 감상문과 토의 내용은 한글 파일로 전사되어 심층 질적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 내용과 과정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체육 전공 학위 소지자 2인과의 연구자간 회의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심층 분석 결과 107개의 의미 단위에 대하여 19개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개의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다. 대학의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은 발달장애 교육 관련 드라마의 시청을 통해 ‘준비되어야 할 교사의 역량’, ‘다양성과 세심함이 겸비되는 지도 방법’, ‘바람직한 발달장애 특성 이해’, ‘반성적 수업을 통한 자기성찰과 확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pre-service teachers majoring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bout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rough using the visual media(drama). The desirable perception of education method and understanding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ho hold a large majority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are very important for students majoring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t H university as pre-service teachers of special schools or special classes. This study confirmed characteristics that 33 pre-service teachers understood and recognized through watching the drama with indirect experience about the field in special educa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y. As a visual media, ‘With the Light’(光とともに) that was made and televised in Japan 2004 was used. For this study, pre-service teachers submitted reports and had discussion eleven times every week after watching a visual media from March to July in 2017. Reports and contents of discussion from participants were transcribed into Hancor file and utilized in basic data of In-depth qualitative research.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specialist’s consultation was performed to guarantee reliability of this research. By content analysis, 19 sub-categorical words were drawn about 107 meaning units and finally 4 core words were extracted. Through the result of analysis, pre-service teachers majoring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t university recognized importances about ‘Teacher competence to be prepared’, ‘Teaching method with diversity and sensitivity’, ‘Desirable comprehension about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Self-introspection and conviction through reflective thinking’ by watching a visual media about educa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y.

Key words: pre-service adapted physical education teacher, developmental disability, visual media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자체학술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rhk0019@knsu.ac.kr

## I. 서론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들의 경우 교과목 내용 지도에 앞서 장애학생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기본이다. 과거 많은 연구(김희규, 주영호, 2016; 이선민, 박재국, 2016; 박유정, 김병건, 김민경, 2015; 이해균, 2003 등)들이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자질 중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를 꿈꾸는 상당수의 예비교사들은 현장수업실습 및 봉사활동에서 심층적인 장애이해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 지도의 어려움(홍재영, 2012; 오정숙, 2011, 노형규, 김원경, 한민규, 2007)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무시험검정 교과가 다양한 장애유형별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들이 장애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과 이해를 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범계열의 모든 예비교사들은 대학 재학 중 두 개 학기에 걸쳐 교육현장봉사와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별화지도 경험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지도환경 측면에서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전공자들은 졸업 후 일선 학교에서 특수교사로서 현장 적응성 및 장애학생 지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있다.

대학에서 특수체육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예비 특수교사이자 장애인체육지도자로서의 준비를 한다. 특수교육 전공으로 대표되는 다른 예비 특수교사들과는 다르게 특수체육교육과 전공 학생들은 특수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수교육 필수 교과뿐 아니라 체육교과 지도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상당 비중의 체육학 교과를 이수한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8개의 특수체육교육과와 2개의 특수체육학과(부)에서 특수교사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졸업생은 300여 명에 이른다(박병도, 백승엽, 김권일, 2013).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은 졸업과 함께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임용고시를 통해 특수교사가 된다. 특수체육교육 전공 학생들은 다른 특수교육 전공 졸업생들과 동일한 경쟁과정을 거치

지만 체육 교과에 대한 추가적인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부 교육과정에서 향후 지도대상이 되는 장애학생들의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제한된 학점 규정에 의해 어려운 실정이다. 즉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 필수교과들을 이수하고 전공에서 요구하는 체육학 전공교과들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장애이해 관련 교과를 개설하거나 이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의 학교현장 실습에 관한 연구들(노형규, 김원경, 한민규, 2007; 한동기, 2013)에서 예비교사들이 효과적인 현장수업을 위해 제한되는 주요 요소로 실질적인 장애이해 부분을 손꼽고 있었으며, 이론적으로만 학습한 장애 특성이나 수준들이 현장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결국,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은 현장 교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애이해 학습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특수체육 전공 학과에서는 학과의 교육과정 속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예비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다양한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강의 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미디어를 통한 시각적 자극에 익숙하고 이러한 시각적 자극에 대한 학습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등 학교에서 시각적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성(안태용, 2015; 한관중, 2006; 김양순, 2014, 김순옥, 2011, 주재해, 2007)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비 교사 교육에서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가치 및 효용성을 확인한 연구들을 많지 않다. 현 시점에서의 예비교사들은 과거 세대와는 달리 영상매체와 시각적 자극에 대한 경험이 익숙한 세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실 중심의 문화 또는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위해 영상매체의 활용은 그 효과성이 높을 것을 추정된다. 특히 쉽게 접할 수 있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TV 드라마는 콘텐츠의 적절성만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은 교육 매체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다문화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영상

매체 및 드라마 교육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김양순, 2014; 한관중, 2006)들을 통해 다소 이질적이거나 생소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도 TV 드라마의 활용은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장애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에게 제한된 시간적, 공간적 대항 여건 속에서 영상매체(드라마)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 예비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특성을 나타내는 자폐성장애를 주제로 2004년 일본에서 제작된 “빛과함께(光とともに) 부재: 히카루 이야기)” 드라마의 시청을 통해 특수체육 전공 예비 특수교사들의 발달장애 학생과 교육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이해하였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대항 교육 방법의 하나로 영상매체(드라마) 시청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폐성 발달장애 학생의 생활과 교육 상황이 담겨진 11편 연재 드라마 시청을 통해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의 이해와 인식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주간 진행되었다. 매주 연구 참여자들은 “빛과함께”라는 일본 장애드라마를 1시간씩 시청하고 3일 내에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된 감상문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강의 수업에서 진행된 토의 및 개인적 피드백 내용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모든 자료는 분석을 위해 전사하였으며, 분석은 귀납적 범주 분석(inductive category analysis) 중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하였다.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대상은 서울 소재 H 대학 특수체육교육 전공 2학년 재학생 33명이었다. 이들 참여자는 2급 특수교사 무시험 자격검정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교사였다. 대상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설명을 통해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2) 연구 진행 기간 및 절차

본 연구는 자폐성 발달장애 학생의 생활과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11편의 연재 드라마를 주별 한편씩 감상한 후 각 회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소감 및 인식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는 2017년 4월부터 총 12주 동안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11주 동안 매주 드라마 1회씩을 감상하고 해당 주에 예비교사들은 감상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토의 및 개별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드라마의 시청은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시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상문은 별도로 개설된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였다. 강의 그룹 SNS의 공간을 통해 개별 감상문에 대한 피드백 및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들도 내용분석 자료로 포함되었다.

### 3) 연구에 적용되는 영상매체(드라마)

본 연구가 자폐성 발달장애 이해와 인식에 대한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효과를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상매체인 드라마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의 요건이었다. 본 연구자는 지난 20여 년 간 장애인체육 분야의 현장 교육 경험과 학문적 지도의 경험을 기반으로 2004년 일본에서 제작된 “빛과함께(부재: 히카루 이야기)”를 연구 적용 드라마로 선택하였다. 상기 드라마는 자폐성장애 아동인 히카루의 출생부터 히카루와 그의 가족이 겪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을 뿐 아니라 히카루의 학교 적응 과정 및 교육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됨으로써 특수교육 분야의 예비교사들에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 학생 중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비중이 전체 학령기 장애아동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특수교육통계, 2017)에서 예비교사들의 장애이해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영상물 이었다. 드라마에서 구현되는 언어가 일본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본어 전문 번역가를 통해 대사를 번역한 후 특수교육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정확한 대사로 조정 한 뒤 자막 형태로 영상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연구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드라마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느끼는 감정과 인식의 변화를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 질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귀납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선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한글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사 과정을 거쳐 문서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서화된 자료는 총 A4용지 215페이지 분량이었다. 전사된 자료를 의미 단위에 따라 분류 작업 및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한정적인 분석 범위 및 결과 도출을 예방하기 위해 의미 단위를 단어와 문장을 모두 포함하여 부호화의 과정을 거쳤다(주재현, 2002).

연구자는 부호화된 자료를 반복 숙독하면서 연구 목적에 상응하는 의미 단위 113개를 1차적으로 체크한 뒤 의미 단위들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하위 범주를 21개를 도출하였다. 하위 범주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숙독하는 과정을 통해 하위 범주간의 연관성과 공통점을 응축하여 '준비되어야 할 교사의 역량', '다양성과 세심함이 겸비되는 지도 방법', '바람직한 발달장애 특성 이해', '반성적 수업을 통한 자기성찰과 확산'의 4개 핵심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신뢰도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해 특수체육전공 박사 1인, 특수체육 전공 석사 1인으로 자문진을 구성하여 연구진 회의를 진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의 특수체육교육 전공 예비교사들이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드라마의 시청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과 그들의 교육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1. 준비되어야 할 교사의 역량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은 발달장애 드라마의 시청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준비되어야 할 역량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세부적인 역량

의 하위 범주는 믿음, 책임감, 안목, 전문성, 강단, 열정과 기다림의 6가지로 확인되었다.

#### 1) 믿음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은 연구 대상 드라마의 시청 과정을 거치며 믿음(신뢰)에 대한 교사의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학생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교사로서의 신념에 대한 것과 피교육자인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교과와 지도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교사의 역량이었지만 교과 내용 지도 이전에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안 된다고 앞으로 발전이 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란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연구 참여자 PCS, 제 4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신뢰와 희망의 대상이 특수 교사가 아닐까? (연구 참여자 KSY, 제 10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연구 참여자인 예비교사들은 전공 교과 내용에 대한 것 이전에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기본 마음가짐에 대한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과 학생 및 보호자와의 상호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실제로 특수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의 분위기가 좋은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김이열, 임경원, 2011)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과 학생 또는 보호자들이 교사들에게 느끼는 믿음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김정화, 김언주, 2006, 정다운, 2008)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의 시청을 통해 예비교사로서 중요한 사항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 2) 책임감

교사로서의 책임감은 일상적으로 언급되는 당연한 역량으로 인식되어 그것의 중요함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과될 수 있는 교사의 책임감에 대해 드라마의 실제적인 상황과 사례를 시청하여 재확인하면서 특별히 장애학생 지도에서 교사의 책임감이 중요한 역량을 깨닫게 되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교육자를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연구 참여자 CJY, 제 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내가 자폐를 가진 아이를 가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특수체육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연구 참여자 CJS, 제 10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자신이 하카루를 맡은 순간부터 마지막, 그 이후까지 준비”(연구 참여자 PGS, 제 1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이 느끼게 된 책임감은 형식적인 교사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실질적 상황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공감에 전제되어 있었다. 때로는 헌신적인 교사로서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아동의 교육과 삶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책임성을 진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책임감 문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한 책임감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혹은 책임감의 정도에 따라 학생 지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역량으로 중요한 책임감이 장애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들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공감할 때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 3) 안목

발달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예비교사로서 연구 참가자들은 예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장기적인 교육 안목과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할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교과 내용에만 집중하던 지도의 방식과 목표를 장애학생의 삶이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재조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개념적 장애특성 인식에서 벗어나 각 개별 아동에 대한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교과 공부에만 집중해 아이를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아이가 자립심을 기르고 혼자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연구 참여자 KYI, 제 10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지금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다음의 가르침도 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해 준 이번 화였습니다.”(연구 참여자 KTY, 제 1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학생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교사로서 내가 보지 못하는 점들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 LHS, 제 1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연구 참여자들의 안목에 대한 인식은 예비교사들의 교육목표와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 요건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향후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들은 체육교과 활동의 기술적 향상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기술들이 미래의 장애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할 것이며, 지도의 방식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안목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수정과 변형의 방법들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에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연구들(임인선, 서은철, 2016, 강영심, 2016)이 제시되었지만 그러한 이해가 교사들이 지녀야 할 안목으로 연관되지는 못했다. 단순히 장애학생을 잘 이해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연구 참여자들은 특수교육 교사로서 장기적인 안목과 다양성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4) 전문성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 학생의 지도를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전문성에 인식하게 되었다. 예비교사들은 드라마의 시청을 통해 특수교육 상황에서 ‘문제 상황의 대처’,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른 지도 노하우’, ‘부모교육’, ‘통합교육’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교사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문성 추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00이가 좋아하는 엘리베이터를 태울 때, 빨리 안내리라며 화를 내던 어르신이 생각이 났다. 그 때에 나는 당황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밖에 하지 않았다. 부모가 아닌 특수교사로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연구 참여자 LHN, 제 10화 시청 후 감상문 중)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교사가 아동을 지도할 때도 코토미 아빠처럼 대충 관심을 가지고 특성을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히카루 아빠처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연구 참여자 KHY, 제 10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코토미 아버지처럼 좌절을 느끼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연구 참여자 PJY, 제 10화 시청 후 감상문 중)

“교사가 단순히 1차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그치지 말고 비장애 친구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스스로 도와주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연구 참여자 KMH, 제 4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여러 사람의 고마움과 존경을 받고 있는 리오선생조차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에 교사도 남을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배웠다.”(연구 참여자 KJY, 제 9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장애아동을 지도하기 위해 특수체육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다.

연구 참여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전문성 내용은 특수체육 지도자들이 장애학생의 특성을 바탕으로 실행적 지도방법 및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연구(노형규, 오광진, 2005) 결과와 내용적 일치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특수체육 지도자들에게 전문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오광진, 2012, 김대경, 박진우, 이현수, 2015)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특수체육 지도자로서의 역량 외에 특수교사로서 부모교육, 통합교육 등의 전문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강단

강단은 ‘무엇을 결단력 있게 결정짓거나 처리하는 힘’을 의미한다.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은 발달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준비되어야 할 역량으로 강단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학습하고 경험한 원칙에 따라 지도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타나내었다. 또한 학생의 교육에서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필요할 경우 언제든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과 강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소신이 있어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내 학생을 내 원칙하에 보다 잘 교육할 수 있을 것 같다.”(연구 참여자 PHS, 제 9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어머니가 아이에게 너무 교육 또는 요구를 한 나머지 히카루가 지쳤던 것을 보고 저는 아이에게 장기적으로 가르칠 경우 가끔씩은 쉬는 시간을 주어야하고 필요할 때에는 단호하게 말해야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연구 참여자 GYY, 제 7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최근 임용된 현장의 교사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초임 교사로서 주변인들의 간섭이나 영향력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모든 학교 현장에서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직 경력이 적은 교사들에게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수체육 예비교사들은 본인들이 학생 지도의 방향성

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명확한 교육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현장교육에서 적절히 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선민, 박재국(2016)은 특수교사의 직무역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신체·정서적 안정 유지', '투철한 교직관 및 교육철학 수립', '적절한 교수방법의 활용', '상황대처능력',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적극적 자기계발'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의 강단은 투철한 교직관 및 교육철학, 상황대처능력 등과 관련되어 예비 특수교사들이 인식한 사항이라 추정할 수 있다.

## 5) 열정과 기다림

핵심 주제에 준비되어야 할 교사의 역량에 포함된 마지막 요소는 '열정과 기다림'에 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흔히 희생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열정에 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교사의 열정과 관련하여 지도하는 장애 학생과 상황에 대해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드라마에서 교사가 보여준 사전 준비에 대한 열정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로서 학생 지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을 버리고 기다릴 줄 아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나타내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수업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평소에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연구 참여자 YJS, 제 4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이렇게 리오 선생님은 언제나 히카루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알맞은 수업 방법은 없을까?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리오 선생님을 닮고 싶다고 생각 했습니다.”(연구 참여자 SDJ, 제 4화 시청 후 감상문 중)

“확실히 수업을 해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그에 대해 준비를 해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은 질의 수업을 위해, 그리고 아동에게 더 나은 자극을 주기 위해 사전 준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보게 되는 장면이었다.”(연구 참여자 YHN, 제 2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이처럼 장애아동은 단지 속도가 느릴 뿐이지 충분히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에 있어 조금씩 기다리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연구 참여자 PNH, 제 4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장애학생을 지도하게 될 교사들은 종종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혼동을 겪으며 자신의 지도업무에 소홀해지는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박현정, 2001).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 시청을 통해 특수교사로서 소진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사로서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도의 과정에서 기다림을 통해 자신의 열정에 대한 성과를 차분히 확인할 수 있는 원리도 깨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수교사의 소진이 직무 만족도에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배옥경, 김자경, 강혜진, 2013)에 따라 예비교사들은 스스로가 직무만족을 위한 시행원리를 드라마 시청을 통해 터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 2. 다양성과 세심함이 겸비된 지도방법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은 드라마의 교사가 수업 상황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시행한 다양한 지도방법을 인식하게 되었다. 물론 그러한 지도방법의 개념들은 전공 학과의 이론 수업들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드라마 시청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지도방법은 '개별화 교육의 접근', '강화기법', '소통의 수준과 방법', '지도일지의 효용성'으로 구분되었다.

### 1) 개별화교육의 접근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의 핵심 원칙은 개별화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이다. 특수체육을 전공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 수 없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해 왔지만 현장 상황에서 그러

한 개별화지도의 적용 상황과 방법들에 대해서는 경험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화교육의 접근에 대하여 ‘수정과 변형’, ‘학생 중심의 지도’, ‘개인차 고려’, ‘수준에 따른 과제분석 활용’ 등에 대한 것을 주요하게 인식하고 이해하였다.

“히카루에 대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며 현실에서 찾아야한다는 말이었다. 나 역시 처음에는 책 자체 지식으로만 하려니 현장에서 지도할 때 00와 맞지 않았었다.”(연구 참여자 GJJ, 제 3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아주 사소한 수정도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연구 참여자 LHN, 제 8화 시청 후 감상문 중)

“히카루의 시선을 고려하여 그저 뒤를 보고 뛰 춤을 주어주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수정과 변형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다.”(연구 참여자 LHN, 제 8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우리 모두 개인차가 있듯이 그들도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특수교사로서 이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차에 알맞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연구 참여자 YS, 제 6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천천히, 단계별로 마음 급하지 않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이 모든 것을 위해 달리기인지 알지만 걷게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GJY, 제 7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장애학생 지도에서 개별화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문헌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한편 교사들 스스로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행·평가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의 개별화교육 수행도는 보통 수준(박재국, 김진주, 2014)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대상물이었던 ‘빛과함께’ 드라마는 예비 특수 교사들에게 그러한 개별화교육 실행적 경험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체육 분야에서도 좋은 수업을 위해서 요구되는 핵심 사항이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된 수업(구교만, 이웅배, 2016)이라는 결과와도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 2) 강화 기법

드라마의 주인공 히카루는 자폐성 발달장애 학생이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문제 행동을 조절하는 리오 교사의 행동관리 방법이 주요한 인식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행동관리 기법 중 다양하게 적용되는 강화 기법은 현장 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예비교사들에게 큰 인상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강화 기법과 관련하여 ‘유형강화 효과성’, ‘개별 특성에 적합한 강화전략 적용’, ‘강화 기법 활용 시 주의점’ 등에 대해 인식하였다.

“칭찬과 같은 사회적 강화도 물론 좋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강화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연구 참여자 PNH, 제 10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아이에 수준에 따라 언어적인 강화, 유형강화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배운 내용이 떠올랐다.”(연구 참여자 YYN, 제 10화 시청 후 감상문 중)

“강화는 행동이 발생한 즉시 적절한 유형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칭찬 받을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LSH, 제 3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자폐성 발달장애 학생 교육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된다(문병훈, 이영철, 2014).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도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행동의 관리 능력이 교수 효능감, 수업 문제 해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권미은, 2016)을 준다는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관리 강화 기법을 간접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소통의 수준과 방법

발달장애 장애학생의 지도 상황에서 처음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다. 예비교사들 역시 봉사활동이나 현장실습을 통해 이에 대한 어려움을 인



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드라마에서 제시되는 소통의 방법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참신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소통 뿐 아니라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의 소통의 중요성과 소통의 방식에 대해 큰 인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통"에 대해 확실히 많이 보여준 화였던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PJH, 제 6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아이와 교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PCY, 제 7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먼저 아이 뿐 아니라 그의 부모와도 교감을 하고 있는 리오선생님의 모습 때문이다. 장애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이의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해야한다.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부모와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연구 참여자 LYK, 제 10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자폐성 발달장애 학생의 가장 큰 장애 특성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이은진, 2007). 드라마에서 리오 교사는 학생의 특성에 따른 시각적 자극을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활용하였고 특히 그림 문자 소통의 효과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단계적 접근법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계와 현장에서는 자폐성 발달장애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방식에 대해 논의(조흥중, 강수균, 2003)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를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의 소통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그러한 소통을 진행해야 할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인식한 것이라 판단된다.

#### 4) 지도일지의 효용성

장애아동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특수교사들은 개별화지도 과정을 지도일지 형태로 제작하게 된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도 현장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도일지를 작성해 봤던 경험이 있었지만 정해진 틀에 내용을 채워 넣는 것으로도 벽차 했던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기에는 장기적인 교육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리오 교사의 지도일지 작성의 방식과 내용을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또한 지도일지를 통해 향후 학생을 지도하게 될 교사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인상을 깊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일지를 통해 지난 수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발전적인 차후의 수업을 구성(연구 참여자 MSY, 제 1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일일이 기록해놓은 것이 모여 작은 역사가 되었다. 내가 00이를 위해 작성한 지도일지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연구 참여자 KHY, 제 1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다양한 정보들을 새로운 선생님께 알려주기 위해 문서화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선생님들도 그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잘 인식하고 습득해야 또다시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KYY, 제 1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지도일지와 관련된 현행 대학교육이 일지 양식과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비교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을 지도하면서 지도일지를 통해 차후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교사가 교체되더라도 교육의 연계성을 지속할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 3. 바람직한 발달장애 특성 이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영상매체(드라마)는 전형적인 발달장애 유형 중 하나인 자폐성장애 학생의 교육과 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를 시청하는 동안 과거 서적으로만 학습했던 발달장애 특성들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히카루의 출생 직후부터 학교 입학까지의 종적 시간을 확인하면서 교육 대상자로서의 특성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로서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특성들을 바람직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바람직한 발달장애 이해와 관련된 주요 하위 요소들은 ‘발달장애 아동 변화의 특성’, ‘발달을 이끄는 힘’,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등이 포함되었다.

#### 1) 발달장애 아동 변화의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대학의 특수교육 전공 교과목의 학습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알지 못했던 발달장애 아동의 변화 특성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관점과 방향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히카루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0세부터 성장하는 아이이며 늦더라도 변화를 보여주는 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연구 참여자 PSM, 제 5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자폐를 가진 아이들도 비장애인인 아이들과 같이 반항기도오고 심경의 변화로 행동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연구 참여자 PJY, 제 7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본래 히카루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거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히카루의 어머니님과 리오선생님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림을 통해 인지시켜주며 더 나아가 짧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연구 참여자 KMF, 제 6화 시청 후 감상문 중)

“히카루는 점점 성장해나가며 상호작용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연구 참여자 PCS, 제 9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연구 참여자들은 히카루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외면적 변화의 특징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이 속도는 늦지만 다른 비장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인지, 정서 영역의 변화 과정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통해 교육 효과에 대한 가치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김건희, 2010, 강민재, 2011, 윤주연, 김유환, 2015)들은 역시 자폐성 발달장애 학생들이 적절한 교수방법과 환경조성에 따라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일치되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일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형식적이고 편협한 이해가 교육 진행에 있어 오히려 제한점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인식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 2) 발달을 이끄는 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에서 발달을 이끄는 힘에 대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향후 교사로서 무엇을 통해 장애학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드라마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라포 형성’, ‘환경 조성’, ‘실제적인 교사의 노력’, ‘부모의 역할과 협력’, ‘친구의 영향’, ‘주변인과의 교류’ 등이 아동에게 필요한 자극을 제공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듯 모든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을 이번 화에서 히카루 할머니를 보며 느꼈다. 타인을 이해하고 좀 더 깊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야한다고 생각한다.”(연구 참여자 KYJ, 제 5화 시청 후 감상문 중)

“학교에서, 가정에서 리오선생님과 부모님의 교육을 받은 히카루와, 가정에서만 지내고 부모님의 관심을 잘 받지 못한 코토미가 확연히 대조되었습니다. 수업 때 배웠던 내용처럼 운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환

경과 주변의 상호작용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연구 참여자 PGS, 제 4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장애아동의 행동 하나하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해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동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상상해본다면 결코 그 행동을 쉽게 생각하지 못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연구 참여자 KGG, 제 9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부모 또한 제 2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한테 맡겨서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부모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다.”(연구 참여자 SJH, 제 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또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있고 그 속에서 또 한번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연구 참여자 PHK, 제 7화 시청 후 감상문 중)

특수체육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학생의 발달을 이끄는 힘은 교사로서 교과 내용에 한정되는 교육 이상으로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과거 발달장애아동의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주로 수업 내에서 주의 집중(김혜민, 김소형, 박진우, 이현수, 2017), 다양한 교수 활용(장오선, 2013), 행동 관리(정은지, 2016), 지도의 방식(조인수, 박세현, 1997)이 제시되어 왔는데 연구 참가자들은 수업 내에서의 영향 이외에 사람, 환경 등을 포함한 총체적, 생태학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 3)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발달장애 학생의 바람직한 이해 범주에서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주제어는 사소한 개념일수도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현장 지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행동 관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발달장애 아동의 전형적 특성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외의 행동들은 단순히 장애특성으로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교사들은 행동관리를 위해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저의 체육교실 상황과 겹쳐서 그런지 이 대사가 크게 와 닿았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연구 참여자 PNH, 제 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모두 교사의 뛰어난 관찰성이 기반이 된다. ‘아이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말처럼 매번 히카루가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침착하게 관찰하고 대처하는 리오 선생님을 보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연구 참여자 HYM, 제 2화 시청 후 감상문 중)

“ ‘모든 반응에는 자극과 원인이 있다’ 이번 학기 수업 때 내가 배운 내용이다. ‘히카루와 함께’ 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히카루의 엄마에게 히카루의 행동에는 분명히 어떤 원인과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장면 이었다.”(연구 참여자 SDJ, 제 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연구 참여자들이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으로 중요하게 인식한 행동과 원인의 인과관계는 특수교육과 특수체육 교사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정(최봉란, 2013, 고동희, 2003)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 특수체육교육을 전공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장애아동의 행동관리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 되어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현장의 지도와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행동관리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응용행동분석(ABA: applied behavior analysis) 기법(Cooper, Heron, & Heward, 2007)은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을 자극-원인-행동-표출 관계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제시(박계신, 2016)하고 있다. 즉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은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사이의 괴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드라마 시청을 통해 그 괴리를 없애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 4. 반성적 수업을 통한 자기성찰과 확인

연구 참여자들이 장애학생 교육 드라마 시청을 통해

마지막으로 인식한 주요 주제는 교사로서 교육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지도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교육관이나 수업을 진지하게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개념적인 교육관과 수업 이상향을 추구하는 인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을 느끼고 인식함으로써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반성적 수업을 통한 자기성찰과 확신의 범주에는 ‘질문과 반성’, ‘상대편 관점에서의 이해’, ‘다짐과 확산’의 하위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 1) 질문과 반성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 시청 내용과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는 현장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며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가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바람직한 지도를 해 왔는지를 되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제시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지도 모습이 투영되었고 적절하지 못했던 자신의 지도 방식과 태도에 대한 반성을 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나는 좋은 선생이었는가? 이번 화를 보면서 저도 제 파라포츠 아동인 00의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저의 욕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욕심이 너무 과해서 00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생각을 하며 수업을 진행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화였습니다.”(연구 참여자 PJY, 제 5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수업이지만 투덜대며 하기 싫다고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일생동안 그렇게 전쟁같은 시간을 보내오셨는데 단 하루밖에 안되는 시간인데 그걸 투덜거렸던 내 모습이 한심하다.”(연구 참여자 KMH, 제 1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조급해하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되고 자주 욕심을 내는 모습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연구 참여자 LYK, 제 5화 시청 후 감상문 중)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은 대학의 교육과정 중에서 현장학교 봉사, 현장교육 실습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현장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애학생 지도의 경험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타인의 좋은 수업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가 않다. 또한 단기간의 현장 실습으로는 깨닫기 어려웠던 수업 관련 내면적 사고(思考)와 노력들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소홀함과 미흡함을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특수체육과 관련된 교육 영역 외에도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항이다. 조성민(2009), 최지훈과 이인경(2010)은 교사의 반성적 행동이 교수학적 내용 지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진향(2002)은 교사의 반성적 사고가 수업개선에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반성적 사고를 통해 특수교사 및 예비 특수교사들의 교수내용 지식 변화와 태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유리, 곽승철, 2014, 정병중, 2014)와 내용적 연관성을 갖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2) 상대편 관점에서의 이해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 시청을 하면서 교사의 입장뿐 아니라 발달장애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예비교사들은 일상적으로 교사로서 요구되는 것에 대해 학습하고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학의 교육과정 역시 장애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교사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숙련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그러나 예비교사로서 장애학생, 부모, 일반교사들이 자신의 지도와 수업을 어떻게 바라보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인식할 기회는 거의 없다. 일련의 현장 교육 상황을 보여 주는 드라마의 시청을 통해 특수체육 예비교사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되는지를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교육태도와 지도의 방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하고 사람에 따라 다른 증상을 보이는 자폐라는 장애가 얼마나 대하기 힘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연구 참여자 KGG, 제 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만약 저 부모가 나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당장 나의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연구 참여자 MSU, 제 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나중에 제가 부모가 되었을 때 과연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고 부모로서의 태도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편들도 교사로서의 관점과 부모로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걸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연구 참여자 PJY, 제 3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장애학생의 교육 현장에서 보호자와 장애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특수체육 예비교사들이 드라마의 시청을 통해 발달장애를 양육하는 부모와 가족의 현실적 상황으로부터 각각의 입장을 이해·공감하면서 자신이 진행해야 할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실제 여러 연구들(구신실, 2014, 양진희 2012)에서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및 공감 이 학교교육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부모와의 상담을 통한 이해와 공감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측면(이미숙, 2017)에서 장애학생 교육 관련 드라마는 예비교사들에게 장애가족 이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다짐과 확신

연구에 참여한 예비 특수교사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동시에 그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짐하고 그러한 준비를 통해 가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다짐과 확신은 자신들이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스스로의 학습 동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 대학 재학 중 진행되는 현장 지도실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 내기도 했다.

“나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한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연구 참여자 PHS 제 8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내가 바꾸는 데 한몫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내가 어엿한 교육자가 되어 나 도 한몫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연구 참여자 YYN, 제 8화 시청 후 감상문 중)

“지금까지 ‘히카루와 함께’를 보며 나는 앞으로 만나 게 될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연구 참여자 KCG, 제 1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교수님께서 우리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단순히 수업에 포함된 활동이 아닌 한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이란 것을 말이다. 그만큼 교사의 숙명을 온몸으로 느끼며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연구 참여자 MSU, 제 1화 시청 후 감상문 중)

미래에 장애학생 교육을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현장 교육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막연함과 두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다(박병도, 손천택, 2006, 노형규, 김원경, 한민규, 2007). 이러한 부담과 두려움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현장 교사로서 소극적인 교육 활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정상적인 수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장 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동된 상황은 수업과 지도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과정을 거쳐 스스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최지훈, 이인경, 2010).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수업 경험은 아니었지만 드라마를 통한 간접 경험과 그것에 대한 반성적 사고 과정을 거침으로써 스스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확신은 차후 현장의 교사로서 혼동 상황을 줄이고 빠

른 수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수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의 예비교사에게 시각매체 교육 방법 중 드라마를 활용했을 때 발달장애 학생과 그들의 교육에 대해 무엇을 인식하고 이해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드라마는 2004년 일본에서 제작·방영된 ‘빛과함께(光とともに)’라는 11부작 드라마로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총 11회에 걸쳐 특수체육 전공 예비교사들이 주별로 시청하고 각 회별 감상문을 작성하며 토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한 감상문과 토의 내용은 한글 파일로 전사되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 분석 결과로 도출된 4가지 핵심 주제어와 하위 요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비되어야 할 교사의 역량’은 연구 참여자인 특수체육 예비교사들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현장에서의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구체적인 교사의 역량 사항은 믿음, 책임감, 안목, 전문성, 강단, 열정으로 범주화 되었다. 둘째, 다양성과 세심함이 겸비되는 지도 방법’은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요구되는 상세하고 특성화된 지도 방법에 대한 인식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학습하고 있는 이론적 원리의 한계를 벗어나 현실성이 담보된 여러 가지 지도방법들을 드라마를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지도방법은 개별화교육의 접근, 강화기법, 소통의 수준과 방법, 지도일지의 효용성 등으로 범주화 되었다. 셋째, ‘바람직한 발달장애 특성 이해’로 핵심화 된 주제는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발달장애의 일반적 특성 이외에 새롭게 느끼고 접하게 되는 것들과 기존에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현장 교육상황을 통해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들이었다. 특히 이러한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은 향후 교사로서의 어떤 교육 방식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게 함으로

써 예비교사들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바람직한 발달장애 특성 이해에 대한 하위 범주로는 ‘발달장애 아동 변화의 특성’, ‘발달을 이끄는 힘’,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로 도출되었다. 넷째, ‘반성적 수업을 통한 자기성찰과 확산’은 실제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에 대해 예비교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수업 반성을 통해 얻게 되는 다짐과 자신감에 대한 것이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예비교사들은 정규교사가 되었을 때 충분히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반성적 수업을 통한 자기성찰과 확산의 하위 요소에는 질문과 반성, 상대방 관점에서의 이해, 다짐과 확산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을 지도하게 될 예비교사들은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필수적인 이론 지식은 습득되지만 여전히 현장 교육상황에 대한 세밀한 경험 체득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미숙한 경험에 대해 장애학생 교육 상황으로 구성된 영상 드라마는 상당히 많은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러한 간접 경험이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목표의식을 고취하고 학습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사 양성 대학들은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에게 보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범계 대학들이 임용고사와 관련된 필수 기본이수 이론 교과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현장 교육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과내용 개발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물론 교직이수를 위한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교육현장 봉사와 교육실습 등을 취득해야 하지만 다양한 장애유형을 이해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학교교육 상황 내면에서 진행되는 관계자들 사이의 입장과 보이지 않는 교사의 내면적 노력을 이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예비교사들이 정규교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학교 적응과 수업 진행 효율성의 문제가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경험

은 아니지만 장애아동 특성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현상을 담고 있는 영상 드라마 및 매체를 활용하여 예비교사들의 간접적 교육 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장애학생 교육 드라마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국내 드라마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교육부 혹은 국립특수교육 차원에서 예비교사 뿐 아니라 정규 교사 및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서로의 입장과 현실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드라마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민채(2011). 자폐성장애 아동의 사회성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변인과 환경변인 간의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이론과 실천**, 12(3), 115-147.
- 강영심(2016). 수강이 예비중등교사의 교수적 수정 지식 습득과 장애학생교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55(3), 339-349.
- 고동희(2003). 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학생의 수업시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구교만, 이용배(2016). 특수교사의 좋은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과 방해요인.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4(4), 13-22.
- 구신실(2014). 장애학생 부모상담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4), 159-180.
- 권미은(2016). 장애유아 문제행동관련 수업사례활동이 예비유아특수교사의 교수효능감,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1), 1-24.
- 김건희(2010). 자폐를 가진 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적 접근법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9(3), 1-20.
- 김대경, 박진우, 이현수(2015). 특수체육전공자들의 특수체육 전문성 인식이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ERCB)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4(2), 421-430.
- 김순옥(2011). 중등미술에 있어서 색채교육 방향에 대한 제언(영화매체의 활용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9(1), 99-122.
- 김양순(2014). **TV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이열, 임경원(2011).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징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537-558.
- 김정화, 김언주(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 및 학습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학회**, 15(2), 117-129.
- 김혜민, 김소형, 박진우, 이현수(2017). 지적장애 아동의 대·소근운동능력, 주의집중력 및 포래놀이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5(2), 37-52.
- 김희규, 주영호(2016). 특수교사 직무 역량 실태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2(1), 233-258.
- 노형규, 김원경, 한민규(2007). 특수체육교육과 교육실습생들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깨달음. **지적장애연구**, 9(4), 67-86.
- 노형규, 오광진(2005). 정서장애 및 정신지체 아동의 신체활동 지도를 위한 특수체육 지도자들의 준비요건.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3(2), 43-55.
- 문병훈, 이영철(2014).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PBS) 메타 분석: 최근 15년간, 1999년~2013년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1), 1-30.
- 박계신(2016).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응용행동분석 기반 중재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2(2), 309-341.
- 박병도, 백승엽, 김권일(2013).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 가능성 탐색.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1(4), 27-39.
- 박병도, 손천택(2006). 특수체육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경험 이해.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4(2), 17-33.
- 박유정, 김병건, 김민경(2015). 특수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고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1), 407-433.

- 박재국, 김진주(2014). 중도, 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계획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체중복장애연구**, 57(4), 25-47
- 박현정(2001). **특수교육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혜림, 주지현(2016). 정서장애학교 교사의 개별화교육 계획 작성, 실행, 평가의 구성요인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81-182.
- 배옥경, 김자경, 강혜진(2013). 특수교사의 소진, 임파워먼트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5(2), 147-169.
- 안태용(2015). 인성교육에 있어 드라마의 활용 가능성. **초등상담연구**, 14(4), 537-558.
- 양진희(2012). 장애유아의 어머니와 교사의 어머니-교사 간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의 의미와 요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7(4), 355-389.
- 오광진(2012).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2), 29-56.
- 오정숙(2011). 좋은 수업에 대한 예비 특수교사들의 인식 연구. **특수교육저널**, 12(4), 537-556.
- 윤주연, 김유환(2015).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특수체육프로그램 및 중재에 대한 연구 동향: 근거 기반의 실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1), 173-196.
- 이미숙(2017). 중학교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부모상담 경험. **특수아동교육연구**, 19(2), 47-71.
- 이선민, 박재국(2016). 특수교사 직무역량 분석. **이론과 실천**, 17(4), 219-242.
- 이유리, 박승철(2014). 반성적 사고를 통한 특수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 변화 탐색. **특수아동교육연구**, 16(1), 127-156.
- 이은진(2007). 자폐아동의 의사소통 관련 질적 연구. **2007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심포지움 자료집**, 3-26.
- 이진향(2002). 교사의 수업개선을 위한 반성적 사고의 의미 고찰. **韓國教師教育**, 19(3), 169-188.
- 이해균(2003). 특수교육 교사의 수행능력에 대한 분석적 고찰. **특수교육저널**, 4(4), 427-443.
- 임인선, 서은철(2016). 발달장애학생의 신체활동 지도에 대한 예비특수체육교사의 낮설고 익숙한 경험: 사이클 프로그램의 사례.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4(4), 59-72.
- 장오선(2013). 스마트 러닝에 기반한 교수학습활동이 지적장애아동의 학습 태도 및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18(10), 235-243.
- 정다운(2008). 교사클릭 : 문화엠포기 ; 신뢰는 교육의 열쇠입니다. **교회교육**, 368, 75-77.
- 정병중(2014). 교육실습 기간 중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가 반성적 사고 수준 변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이론과 실천**, 15(3), 303-320.
- 정은지(2016). 자폐성장애아동의 문제행동 중재프로그램 동향연구. **2016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89-192.
- 조성민(2009). 교사의 반성적 행동이 교수학적 내용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201-220.
- 조인수, 박세현(1997). 자극단서의 수와 구성방법에 따른 정신지체아의 주의집중 특성. **발달장애학회지**, 1, 69-84.
- 조홍중, 강수균(2003). 자폐아동을 위한 보완, 대체의사소통체계의 적용에 대한 인식조사. **동서정신과학**, 6(1), 1-13.
- 주재혜(2007).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영상매체의 교육적 가치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
- 주재현(2002). 내용분석 방법의 수행절차 및 적용 연구사례 분석. **정부행정**, 3, 29-55.
- 최봉란(2013). **특수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경험과 지원 요구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최지훈, 이인경(2010). 반성적 사고 교육이 예비특수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 수준과 교수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8(2), 23-40.
- 특수교육 통계(2017). 교육부.
- 한관중(2006). 영화를 활용한 사회과에서 다문화 수업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13(3), 147-166.
- 한동기(2013). 좋은 특수체육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 인식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1(4), 41-56.
- 홍재영(2012). 수업시연과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하여 경험한 예비특수교사의 실천적 지식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2), 73-99.
- Cooper, J. P., Heron, T. E., & Heward, W. L. (2007). *Applied behavior analysis*.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earson.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신문기사 분석

### Analysis of Article on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n Korea Major Daily Newspapers

김창금 한겨레신문 · 이종영\* 한국체육대학교

Kim Chang Keum Hanhyoreh · Lee Jong Young Korea National Sport Univ.

#### 요약

이 연구는 미디어 스포츠 기사가 형식과 내용에서 선수나 팀이 일군 성취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도 초점을 맞추는 변화 환경에 대해 심층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평창동계올림픽 기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8년 2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총 215건의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미디어 내용분석(media 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의 경향은 각 신문사가 지닌 정치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기사 형태별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나며 올림픽이라는 보도기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보도경향이 동일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의 특성은 성취주의적 특성, 상업주의적 특성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과정주의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디어 스포츠의 상업성과 함께 사회적 맥락의 변화 및 대중의 요구가치가 결합하면서 나타난 경향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보도기사 가운데는 선택적으로 일부 대상을 선정하여 과정주의적 색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changing environment of media sport which focuses not only on the athletes achievements and its results but also on the process which athletes have gone through. In order to reach this goal, we collected two hundred fifteen news articles of the Chosun-Ilbo and the Hankyoreh newspaper combined from February the second to March the fifth, the period of 2018 PyongChang Winter Olympics with each week added before and after the Games. We applied the media contents analysis method to the selected articles. The conclusions are following. First, the tendency of two newspapers on reporting of the Olympic Games are similar in terms of news pattern and forms regardless of its political background. Second, we find t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news articles in both newspaper appears to emphasize on the achievements of athletes or commercialism, or the process involved in the athletes achievements. This is seemingly made by the association of the commercialism of the media and the desires of mass in the changing social atmosphere. Also some news articles are portrayed by the perspective of the process oriented approach.

Key words: article style, article content, ideology, major daily newspaper, media-sport,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 jylee@knsu.ac.kr

## I. 서론

기존 미디어 스포츠 보도의 경향은 대부분 승부지상주의, 경쟁의식 고취,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성차별, 결과주의 등에 집중되어 왔다(이남미, 이근모, 2007; 정희준, 2001). 특히 올림픽 관련 보도는 국가간 대결 무대라는 장(場)의 특성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며 선수개인이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위선양을 하거나, 스포츠 영웅으로 등장해 성공한 삶을 일궈냈다는 단순 도식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8년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은 국내에서 열린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미디어의 집중적인 보도가 이뤄졌고, 몇몇 장면에서는 경기 과정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여자 팀 추월 선수단의 '팀워크 부재' 논란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논란이 가열되자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선수들이 팀 추월 8강전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내거나 늦췄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가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문화체육관광부, 2018)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대중은 팀 추월 경기 직후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 실종을 질타했고, 특정 선수들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 극단적인 주장과 청원 운동을 펴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 장면의 이미지에 압도된 대중의 확대 해석에 기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올림픽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2016~2017년 촛불집회는 사회적으로 반 특권 의식과 공정성 요구, 정의에 대한 사회적 열망 등이 분출하는 계기가 됐다.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 을(乙)의 반격, 미투(metoo) 등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이고 중심적인 화두로 표면화 되고 있다. 미디어 스포츠에서도 선수 인권 억압이나 국가주의 엘리트 육성 체제의 문제점,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 환경 비용 증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신문은 편집회의를 통해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일정한 숙성기간을 거쳐 신문사의 지향을 담아내는 제작

공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나 시대정신은 편집회의에 참여하는 각 부장을 통해 전달돼 지면에 영향을 준다. 국내의 대표적인 신문인 조선일보와 정치성향의 대척점에 있는 한겨레신문(유선영, 2002)의 평창동계올림픽 신문 기사를 통해 미디어 스포츠의 보도 경향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이유다.

미디어 스포츠 보도의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적 요구나 상황 국면에 따라 보도 기사의 연성화(안종목, 2012)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또 신문사의 논조나 관련된 배경조건에 따라 사건·사고·대상에 대한 내용 기제가 달라진다(장익영, 정현, 2015).

2010 밴쿠버 올림픽에서 메달권에 들지 못한 빙상의 이규혁 선수에 대해 신문이 패자의 스토리에 주목하는 보도의 특성을 보였고(한승백, 2010), 2006년 독일월드컵과 2006년 K리그에 대한 미디어 스포츠 보도는 대부분 수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위주로 경기의 성과를 전달했다(정강선, 2007).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인 승리주의와 결과중심의 보도가 이뤄졌다.

이 연구는 미디어 스포츠 기사가 형식과 내용에서 선수나 팀이 일군 성취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도 초점을 맞추는 경향에 대해 구명하고자 하였다. 평창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 이래 국내에서 열린 가장 큰 메가 스포츠 이벤트였다.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우열과 승패를 가리고, 수월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성취는 결과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결과주의'에서 '과정주의'로 미디어 스포츠의 보도 경향이 변하는지를 분석해 살펴봄으로써 올림픽에서의 성과나 성취가 미디어 스포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의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는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신문사별 기사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디어 내용분석(media 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미디어 내용분석(media contents analysis)은 신문과 같은 기술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매체의 내용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추론 방법으로 해당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도출하는데 용이한 연구방법이다(Krippendorff, 1980).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결과주의’에서 ‘과정주의’로 변화를 보이는 미디어 스포츠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여 올림픽 성과나 성취가 미디어 스포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심층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이 각각 상이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평창동계올림픽 보도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평창동계올림픽’(조선일보), ‘평창겨울올림픽’(한겨레신문) 검색 키워드를 ‘아이서퍼(eyesurfer)’에 입력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 일주일부터 폐막 후 일주일까지의 기사(2018년 2월 2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총 215건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였다<표 1>.

아이서퍼는 국내 1500여개 뉴스 미디어(영상·인쇄매체 통합)의 기사를 지능형 분류 및 고성능 검색 엔진을 통해 수집 제공하는 전문가용 뉴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표 1.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자료 수집 건 수

신문사	기사수	%
조선일보	103	47.9
한겨레	112	52.1
합 계	215	100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기사자료를 토대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에 맞춰 각 단계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spreadsheet program)을 활용하여 각 기사형태별(스트레이트, 피쳐, 에디토리얼)로 분류 및 정리하였으며 백분율 처리 및 통계치를 구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기사가 나타내는 내용을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설정하여 구분하였다. 의미단위 설정시, 공동연구자 및 보조연구자와의 회의를 통해 분석방향성과 일치성 높은 기사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이외의 기사(광고, 허위성기사 등)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구분된 자료 내용은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여 주제별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 4. 자료의 진실성

이 연구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Krippendorff(1980)가 제시한 상호신뢰도 검사(intercoder reliability)를 실시하였다. 상호신뢰도 검사(intercoder reliability)는 분석자간 수집된 자료 및 내용분석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연구자 및 보조연구자가 자료의 20%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하여 연구자간 상호일치도를 확인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 및 보조연구자가 자료를 독립코딩한 뒤 전체자료 215건의 20%에 해당하는 43건의 기사를 임의추출하여 상호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92.8%의 상호일치도를 보였으며 Wimmer와 Dominick(1997)이 제시한 상호일치도 지수(90% 이상의 일치도 수준)를 토대로 이 연구가 매우 신뢰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III. 결과 및 논의

#### 1.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의 경향

##### 1)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형태 추이

이 연구에서 살펴본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수를 살펴보면 총 215건 중 스트레이트 기사 29건, 피쳐 기사 170건, 에디토리얼 기사 16건이었다.

신문사별 기사형태를 살펴보면 조선일보 총 103건 중 스트레이트 기사 15건, 피쳐기사 79건, 에디토리얼 기사 9건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총 112건 중 스트레이트 기사 14건, 피쳐 91건, 에디토리얼 7건이었다<표 2>.

표 2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형태분포

신문사	스트레이트	피쳐	에디토리얼	계
조선일보	15(14.6)	79(76.7)	9(8.7)	103(100)
한겨레	14(12.5)	91(81.3)	7(6.2)	112(100)
합 계	29(13.5)	170(79.1)	16(7.4)	215(100)

이런 기사 형태별 분포를 통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정치적 배경의 차이와 무관하게 기사의 형태분포 추이에서 유사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두 신문사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나 에디토리얼 기사보다 피쳐기사 작성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실 전달의 목적성을 둔 스트레이트 기사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세태를 조망하는 논설, 칼럼 등의 에디토리얼 기사가 과거와 달리 대중의 흥미나 관심을 유도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 2)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내용 추이

신문사별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범주화된 내용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성취(공), 상업성, 기타(광고, 가십 등)의 범주로 분포되었다.

표 3.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내용 범주

신문사	범 주			
	성 취(공)	상업성	기 타	계
조선일보	14(13.6)	73(70.9)	16(15.5)	103(100)
한겨레	22(19.6)	79(70.5)	11(9.8)	112(100)
합 계	36(16.7)	152(70.7)	27(12.6)	215(100)

이들 신문사별 기사 내용 범주는 기사 건수 총 215건 중 성취(공)관련 기사내용 36건(조선 14, 한겨레 22), 상업성 관련 기사내용 152건(조선 73, 한겨레 79), 기타 관련 기사내용 27건(조선 16, 한겨레 11)이었다.

이들 결과를 각 신문사별 범주 내용별로 관련지어 살펴보면 수치의 근소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두 신문사 모두 전체 분포는 유사한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에 제시되는 논조 성향에 의한 신문사별 기사 내용추이(장익영, 정현, 2015)와 다른 경향성을 보이며, 올림픽이라는 보도기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보도 경향이 동일화하는 일면으로 보여진다.

#### 2.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의 특성

##### 1) 결과라는 이름의 ‘성취주의’

###### (1) 스트레이트 기사의 기능 변화와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의 형태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피쳐기사의 편중 경향에도, 결과만으로 기술된 약 12~14% 초중반 대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일정 비중으로 할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기능적 특성을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사의 형태 특성상 사실로서의 사건·사고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며,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의견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 [스트레이트 기사 예시]

한국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체육인들에게 수여되는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에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에서 아시아 최초로 메달(동)을 획득하

고 남자 팀 추월 은메달을 따낸 김민석(19)이 선정됐다. 경기 부문에는 남자 역도 원정식, 여자 수영 안세현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다(스포츠브리핑, 2018, 2월 28일, 조선일보 A21면).

이들 기사는 '5W1H', 이른바 육하원칙에 의해서만 사실내용이 기술되며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허진석, 2011)으로 사실로서의 '결과'만을 반영할 뿐이다.

과거 종이신문은 이러한 특성을 통해 대중에게 소비되며 대중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주요한 창구 역할(김경화, 2013)을 맡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스마트 폰'으로 대표되는 휴대 정보기기의 보편화로 대중의 정보 접근성이 과거 종이신문이 가진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뛰어넘으면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맡아온 역할은 축소됐다.

하지만 본래 스트레이트 기사가 지닌 형태적 특성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기능적인 특성으로 변모하면서 스트레이트 기사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결과 중심 단문정보의 가독성을 이용해 대중이 쉽고 빠르게 스포츠 정보를 소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로서 '결과'만을 제시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사 자체가 지닌 한계성에도 미디어 매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본래 갖춘 형태보다 기능 특성이 강조되면서 현재 까지도 일정부분 기사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만을 제시하는 기사의 조건적 요소 때문으로 보여진다.

## (2) '성취'를 위한 '성취'

우리사회에서 이미 알려진 여러 스포츠 스타나 영웅의 반열에 오른 선수들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물들이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스포츠 스타나 영웅의 지위 반열에 오르는 선수들은 대부분 그들이 거둔 '성취'나 '업적'이라는 '결과'를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되며 대중으로 하여금 인지도를 얻게 되는 과정을 수반한다(정현, 장익영, 이종영, 2014). 또한 이들은 스포츠 경쟁의 영역에서 노력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내는 '성취'를 이뤄냄으로써 대중에게 선수 개인의 탁월성을 인정받

는 계기(Giles, 2000)를 얻게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운동 선수들의 성취는 사회의 만연한 이데올로기적 맥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과거 올림픽과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선수들의 성취는 개인의 성공보다는 사회와 국가가 절실히 바라던 국가적 위상을 가장 빨리 드높이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사회통합의 단초를 제공해 왔다(구창모, 1997; 안민석, 1998). '개인의 성취'는 곧 '모두의 성취'로 귀결 짓기 위한 필수적 요소였고,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디어 스포츠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선수 성취의 결과 정보는 과거 종이신문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던 스트레이트 기사 중심의 정보전달의 신속성 또는 정확성의 차원과는 다르다. 하지만 기능적 변화를 통해 대중의 뉴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가치의 (재)생산 요소로써 그 기능을 하는 성취주의의 면면으로 보여진다.

## 2) '상업주의'로의 전향

### (1) '상품'으로서의 피처기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 범주를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피처기사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처기사 형태가 지닌 특성을 통해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피처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근간으로 해당 사건·사고·인물·대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발굴하거나 관심을 일으켜 대중으로 하여금 기사를 소비하도록 하는 데 용이하며 특정 사건의 이면이나 주변 이슈 등으로 구성된다(정현, 장익영, 이종영, 2014).

또한 피처기사는 하위기사 구성에 분석, 르포, 스케치, 기획, 인터뷰를 포함하며 다양한 종류의 기사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모두 같은 유제품 원료를 사용하여도 배합하는 달걀, 향료, 설탕 따위를 다르게 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백두에서 한라까지 배 타고 떠나면 우리네 마음들도 하나 되겠지..."

평창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에 평화를 기원하는 '홀로아리랑'이 울려 퍼질 수 있을까. 한국 피겨 아이스댄스의 민유라-알렉산더 켈린 짝이 19일 첫날 경기인 쇼트댄스에서 가능성에 도전한다...(중략)...이들의 프리댄스 출전이 주목받는 까닭은 경기용 배경음악으로 가수 소향의 '홀로아리랑'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 노래에는 남과 북의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홍석재, 2018, 2월 18일, 한겨레 10면).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 분홍 한복 저고리와 자줏빛 치마를 곁들여 입은 민유라(23)가 섰다. '꼬마신랑' 느낌의 하늘색 한복 조끼와 감색 바지로 멋을 낸 '썩썩' 알렉산더 켈린(25)이 곁으로 다가왔다. 슬픈 듯 아람다운 배경음악 '홀로아리랑'(노래 소향)이 경기장을 조용히 적시자 이들은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다(홍석재, 2018, 2월 21일, 한겨레 10면).

피쳐기사는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문 전략의 하나이며 대중에게 제공하는 '상품'으로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상품으로서 피쳐기사가 대중에게 높은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올림픽이라는 소비촉매의 장(場)이 형성되어있기에 더욱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대중은 피겨선수 '민유라'를 그리고 그와 함께 짝을 이룬 '켈린'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 하는 올림픽 메가 스포츠 이벤트 무대에서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선수는 매우 제한돼 있다. 더욱이 인기종목의 선수가 아니라면 일상의 대중으로부터 소비되는 데에는 한계와 장벽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 (2) 신문사와 상업주의

미디어는 속성상 대중의 관심과 지식추구의 열망을 촉진하며 정보 소비에 대한 욕구를 촉진한다(Weaver, 1977). 다른 한편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즉 신문사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정보라는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는 판매자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은 대중이 인식하는 신문사와는 다른 일면을 보여 준다.

과거 신문사들의 기사보도는 주요 사회구조(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성기사가 주를 이

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경성기사의 대척점에 대중의 흥미와 관심, 오락과 관련한 연성기사가 위치하며 경성기사 편중을 분화시키고 있다(김사승, 2013).

이를 신문사의 이익추구 관점에서 생각하면 신문사는 대중의 관심사의 변화에 맞춰 그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정보를 (재)생산해냄으로써 이익을 창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신문사는 대중이 요구하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호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 가능한 기사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으로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기사에 국한하지만, 신문사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역시 이윤 추구에 기반한 상품으로서 기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사한 경향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양적으로 풍부한 연성기사는 더 이상 경성기사의 주변에 계시되는 중요도 낮은 기사가 아니라 대중의 기호와 삶의 소구방식을 투영하는 한 측면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성취주의'와 '상업주의' 그리고 '과정주의'

### (1) 선수 개인의 '성취'와 미디어의 '상업성'

한국사회에서의 운동선수 개인의 성취는 피와 땀이 서린 노력의 산물(정준영, 2003)로 그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중의 인식을 통해, 스포츠영역에서의 성취주의는 결과를 통해 잉태된 중심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또한 이러한 성취를 통해 선수 개인이 '스타'나 '영웅'의 지위 반열에 오르는 것이 순차적 관례로 여겨지기도 한다(정현, 이종영, 2014).

이런 과정은 선수 개인의 성취가 대중이 모두 인정할 만한 가치를 충족(Andrews & Jackson, 2001)했을 때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위 계층으로 이동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유무형의 재화 등은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상업적' 부수효과이다.

선수의 성취와 지위상승의 과정에서 미디어가 보여주는 상업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익추구의 논리를 따르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서 있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



할 때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상품을 준비하여 수익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미디어는 운동선수의 성취라는 대중의 기호를 매력적으로 자극할 만한 성취가 없이는 운동선수 개인을 기사의 주요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여자 컬링이 올림픽 4강에 처음 진출했다.** 김은정, 김영미(리드), 김선영(세컨드), 김경애(서드), 김초희(후보) 등 모두 김씨로 구성된 한국의 '팀 김(Team KIM)'은 5엔드 역전의 기세를 몰아 경기를 9대6 승리로 마쳤다. 5연승을 거둔 한국은 예선 6승1패로 10개 팀 중 1위에 올라 남은 두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4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임경업, 주형식, 2018, 2월 21일, 조선일보 A2면).

"영미야"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스킵(주장) 김은정이 외치는 이 이름은 이제 한국인에게 승리와 환호를 기대하게 하는 상징어가 됐다. 한국 컬링이 라이벌 일본을 꺾고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하게 됐다. 김은정, 김영미(리드), 김선영(세컨드), 김경애(서드), 김초희(후보)로 짜인 여자 대표팀은 23일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일본을 11엔드 연장 끝에 8대7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전현석, 2018, 2월 24일, 조선일보 A1면).

돌풍을 일으키며 결승에 오른 한국 여자 컬링은 이날 스웨덴에 3대8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컬링 최초의 은메달이자 아시아 국가 중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이다...(중략)...여자 대표팀은 '컬링 신드롬'을 일으키며 **평창 최고 스타**가 됐다. 경북 의성에서 취미로 컬링을 시작하게 된 주전 선수 4명은 가족 농사일을 도우며 묵묵히 빙판을 닦아왔다. 비인기 종목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정상으로 성장한 그들의 땀과 노력에 국민은 열광**했다. 이날도 관중석에선 국민 유행어가 된 '영미'를 외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다.(임경업, 2018, 2월 26일, 조선일보 A6면).

(2) 미디어 스포츠 보도에 나타난 선택적 '과정주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스타 반열에 오른 선수는 몇몇이다. 대표적으로 김은정(컬링)을 비롯하여 민유라, 갠린, 최다빈(피겨스케이팅), 윤성빈(스켈레톤), 김민석(스피드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에서 유명인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임원과 코치를 제외한 한국 선수단 144명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44명의 선수 중 어느 누구라도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대표의 자리에 오른 선수는 없다. 그럼에도 메달이라는 가시적이고 대중으로부터 인정 받는 성취의 징표가 없이는 미디어의 관심을 받기 힘들다. 경쟁주의에 바탕한 선수 개개인의 성취는 미디어가 추구하는 상업주의의 목적성에 가장 부합하며, 보도기사의 유형과 관계없이 미디어는 일정한 성공을 이룬 선수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등 결과주의의 큰 틀에 포섭돼 있다.

다른 한편 신문은 성취를 일궈낸 이들 선수들을 다룰 때 결과 중심의 단순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그들이 겪은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성공 이면의 이야기, 초인적인 노력 등의 일화나 인터뷰 등으로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묘사한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여자 팀 추월' 경기 논란은 경기의 결과보다는 '페어 플레이'나 '팀 워크' 등 과정을 중시하는 대중의 집단적 정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운동 선수의 성취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대중의 공분을 담고 있는 이슈는 미디어의 상업적인 감각과 즉시 결합해 발화하는 최적의 주제라는 측면이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미디어의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해소되기보다는 강화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미디어 스포츠 기사가 형식과 내용에서 선수나 팀이 일군 성취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도 초점을 맞추는 변화경향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내용분석(media contents analysis)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시,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겨울올림픽'를 검색키워드로 적용하여 2018년 2월 2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의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보도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총 215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자료분석 시, 수집된 자료의 기사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spreadsheet program)을 활용하여 각 기사형태별(스트레이트, 피쳐, 에디토리얼)로 분류 및 정리하였으며 백분율 처리 및 통계치를 구하였고 기사 경향 및 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설정하여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기사자료를 최종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여 주제별 프레임에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얻게 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의 경향은 각 신문사별 정치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기사 형태별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림픽이라는 기사 보도기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보도경향이 동일화 되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둘째, 신문사별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의 특성은 성취주의, 상업주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정주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취주의적 기사 형태인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사실이나 결과의 보도가 과거와 달리 정보 전달의 신속성 및 정확성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전달 매체의 속성과 맞물려 기사 내용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이트 형태로 지면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독자의 기사 소비를 유도하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유효한 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업주의적 기사 특성은 피쳐 기사 형태를 중심으로 대중의 소비 기호에 맞춰 구매력 높은 상품으로 기사를 가공하는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올림픽이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한시적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중의 소비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신문사들은 미디어이면서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대중의 기호나 관심사에 맞춰 편의성 기사를 생산하며, 스포츠 영역에서는 특히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정성기사보다는 대중의 일상과 밀접한 오락성 높은 연성기사 위주의 보도를 했다.

과정주의적 기사의 특성은 스포츠 기사의 중심요소인 선수의 성취를 기점으로 대중의 관심을 이끌며 상업적 부대효과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해 선

택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취의 배경이나 이면의 이야기, 새로운 정보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디어 스포츠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함께 대중의 요구나 기호,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보도 기사를 다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상업주의적 속성의 강화로 기사 내용의 주제 범위가 편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심화되는 미디어 스포츠의 상업주의적 변화 양상에 따라 스포츠가 어떻게 대상화되고 대중에게 인식되며 소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중심 이슈(사건·사고)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구명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구창모(1997). 현대사회와 스포츠 영웅.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9(1), 43-64.
- 김경화(2013). **세상을 바꾼 미디어**. 서울: 다른.
- 김사승(2013). 신문뉴스의 상품가치에 관한 미디어 경제학적 관점의 분석. **한국언론학보**, 57, 5-33.
- 문화체육관광부(2018, 5, 23).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스포츠브리핑(2018, 2, 28).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에 김민석. **조선일보**, A21면.
- 안민석(1998). 스포츠 영웅의 구조기능론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0(1), 157-178.
- 안종묵(2012). 신문닷컴(online newspaper)과 종이신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 **경향닷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0, 29-46.
- 유선영(2002). **한국 신문의 대중주의와 일간지 연성기사 분석**. 한국언론재단.
- 이남미, 이근모(2007). 후기자본주의 시대의 스포츠 명사의 사회학적 고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3), 521-536.
- 임경업, 주형식(2018, 2, 21). 한번에 4점, 단숨에 역전... 컬링 시스터스의 마법 4강 일찌감치 확정, 모래

- 준결승. **조선일보**, A2면.
- 장익영, 정현(2015). 주요 신문에 나타난 손연재 기사 형태 및 내용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4(3), 65-74.
- 전현석(2018, 2, 24). 영미야~ 우승 가즈아! 女컬링, 연장 끝 日 꺾고 결승...김태운, 남자 빙속 100m 銅. **조선일보**, A1면.
- 정강선(2007). **스포츠미디어의 보도형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북.
- 정준영(2003).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서울: 책세상문고.
- 정현, 이종영(2015). 손연재 신문보도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스포츠 셀러브리티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한국체육학회지**, 54(5), 119-128.
- 정현, 장익영, 이종영(2014). 손연재 선수의 스타화 과정에서 나타난 신문기사의 보도형태와 보도내용의 관계: 김연아 선수와의 비교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3(2), 93-107.
- 정희준(2001). 스포츠영웅의 조건 : 그들의 등장과 몰락의 사례를 통한 이데올로기 해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4(1), 257-272.
- 한승백(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규혁 보도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3), 221-236.
- 허진석(2011). 스포츠 보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글누림.
- 홍석재(2018, 2, 21). 민유라-괌린, '아리랑' 논문나계 아름다웠어. **한겨레**, 10면.
- 홍석재(2018, 2, 21). 민유라-괌린의 '아리랑' 올려퍼질 수 있을까. **한겨레**, 10면.
- Andrews, D. L. & Jackson, S. J. (Ed.). (2001). *Sport stars: the cultural politics of sporting celebrity*. London: Routledge.
- Giles, D.(2000). *Illusions of Immortality: A Psychology of Fame and Celebrity*. London: Macmillan.
- Krippendorff, F. (1980). *Content Analysis*. London: Sage.
- Weaver, D. H.(1977). Political issues and voters need for orientation. In D. L. Shaw & M. McCombs(Eds.), *The Emergence of American Polical issues: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press*. St. Paul MN: West Publishing.



# 국내 및 일본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과 현장분석을 통한 노인여가시설 개선

## The Improvement of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rough Present Situation and Field Analysis of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하응용 · 김예성\* 한국체육대학교

HA, Woong yong · Kim, ye sung Korea National Sport Univ.

###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일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현황과 장단점을 관련 문헌, 관련자 면담과 현장탐방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노인여가시설의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관습적으로 노인시설을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있으며 TV시청과 같은 소비적 여가로 허비하고 있다. 둘째, 국내여가복지시설의 개수와 이용률을 보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의 순이며 경로당은 비교적 이용만족도도 높지만 단순한 친목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그 개수가 부족하며, 다양한 복지분야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과부하 상태이다. 셋째, 일본 노인복지시설은 세분화되어있고, 요양시설을 제외하고 노인복지센터가 노인여가의 주요시설이다. 노인클럽은 여가, 봉사활동과 관련된 전국적인 조직이다. 넷째, 일본은 최근 노인복지관이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합노인시설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의 노인여가시설을 비교하면, 일본은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복합시설로 자율적 운영제 도이며, 한국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제도이다. 여섯째, 한일 양국의 노인여가시설 현황을 통해 국내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의 개선방안으로 소규모 복합노인복지관과 특화된 경로당, 그리고 고령친화적인 여가시설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시설의 개선을 위해 국내 및 일본의 노인여가시설을 검토하고 이용자의 여가욕구에 맞는 개선안과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eisure facilities for elderly in Korea and Japan in related literature, interviews with related individuals, field visits, based on these this study discussed improvements for elderly' leisure faciliti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in Korea are reluctant to use elderly' welfare facilities, and they are wasting time simply or for consumptive leisure activities such as watching TV. Second, in terms of the number and utilization of leisure facilities, the order of Senior Citizen Centers, Elderly Welfare Centers and Elderly Schools. Even relatively high satisfaction Senior Citizen Center is still considered to be a simple social institution for friendship. Senior Citizen Centers and Elderly Schools are numerically insufficient. Third,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Japan are considerably subdivided with regard to their functions, and Elderly Welfare Centers are the main use facility for Elderly leisure except for facilities for nursing and take care of old age and disability. The Senior Social Club is a national organization related to leisure. Fourth, Japan has recently changed its Elderly Welfare Centers to small-sized, small-integrated, mixed-age facilities, which could be a good example for Korea. Fifth, comparing the leisure facilities of elderly in Korea and Japan, welfare leisure facilities in Japan are small, community-centric, and autonomous operation system, while Korea is provided leisure program services centered on Elderly Welfare Centers. Sixth, through this study, small Complex Elderly Welfare Centers and Specialized Senior Citizen Centers are required in Korea. And improvement of the aged friendly leisure facilities is requir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leisure infrastructure for elderly and improvements in the leisure facilities in Korea, which are basic resources for improvement of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appropriate for the users' leisure needs.

Key words: Leisure Facilities, Leisure program, Leisure for the Elderly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자체학술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yskim98@knsu.ac.kr

## I. 서론

노인의 일상생활을 ‘과(過)여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노동의 반대 개념으로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개인이 내재적인 동기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택한다는 비의무적인 자유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노년은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하여 여가 시간이 풍족하다. 여가활동이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로를 해소하고 재생산을 위한 재충전이라는 의미를 갖는 청장년층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없이 여가가 생기는 노년기에는 여가가 오히려 무료함을 준다(이훈, 황의정, 2008). 대부분 노인은 여가활동 욕구를 갖고 있지만 기능적 문제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인 문제가 무위와 고독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연결 고리가 언급된 바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b).

이러한 노인의 만성적 무료함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21.1%는 우울증상이 있으며, 6.7%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3.2% 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a). 더욱이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에 심각한 상황인데 한 예로 경기도 내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으로 2017년 연말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146만7천835명이고, 이 중 23.1%인 33만8천940명은 홀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013년 이후 4년 사이 홀로 사는 노인이 무려 28.1%(9만5천197명)나 증가되었다(경기신문, 2018년 05월 14).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노인의 과부하적인 여가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와 평생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12).

노인의 과여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삶을 단순히 지속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표 아래 고령 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고령 친화적 콘텐츠 개발, 고령자 문화·여가 프로그램 인프라 개선,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복지시설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시군구 노인복지관을 대폭 신축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다양한 여가활동은 무위와 소외를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체육학계에서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직결된 생활만족이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노년기 여가활동은 당연히 신체적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고(김양래, 2006; 김명숙, 고종욱, 2013), 성공적 노화 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며(박인수, 2005; 이수진, 송미순, 2015), 우울수준 완화(현진희, 김희국, 2011; 이은주, 2014), 자살생각 감소(김예성, 하용용, 2015) 등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정리하면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 노인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 비참가 노인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가 및 스포츠 참가노인이 비참가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를 잘 성취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인에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사회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박인수, 2005),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노화에 기여하게 된다. 반면에 노년기에 여가활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활동 수가 감소하는 경우 노인의 사회적 성취 수준뿐 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욕구가 저하되어, 결국 생활에서의 만족감이나 행복 지수 역시 떨어지게 된다. 이렇듯 노인의 여가활동은 일상생활수행능력, 성공적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인이 여가스포츠 활

동에 규칙으로 참가하게 되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을 제고시켜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경식, 이은주, 2010). 이렇듯 노년기 여가활동은 노후의 삶의 만족이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실제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TV 시청으로 대표되며, 간단한 산책하기 등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다(보건복지부, 2017).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은 소비적이고 비활동적 단순 오락으로써의 특성을 보인다(김예성, 하응용, 2015).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되는 시점에서 노인의 적극적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즉 노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가시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여가시설과 관련된 정책 또는 인프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일부 노인복지관의 여가시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이혁, 2012; 하춘광, 김효순, 2013, 김세진, 강은나, 2017),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다른 국가와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과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는 여가시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활발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와 노인클럽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가시설 인프라 측면의 지원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노인대상 여가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현 상황에 맞는 여가시설 개선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에 노년기 과여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여가활동의 중심 장소인 노인여가복지시설들에 대해 분석하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과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심층면담, 현장관찰 등의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노인 여가시설의 분석과 환경의 질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채택하였으며, 동시에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국내 노인여가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기록물과 다양한 문헌들이 활용되었다. 그중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2017년 노인실태조사,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2012),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 여가 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201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2015),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2016),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2017) 등을 심층 분석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특히 노인실태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

표 1. 피면담자 구성 및 면담내용

성명	직책	면담일자	면담내용
강○○	송파구소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018년 6월 1일	복지관 시설, 운영 프로그램소개
장○○	강동구소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018년 6월 1일	복지관 시설, 운영 프로그램소개
성○○	강동구소재 종합복지관 관장	2018년 3월 14일, 6월 27일	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 개선 질의 토의
郵便一政	일본 가나자와현 복지관 직원	2018년 1월 11일	복지관 시설, 운영 프로그램소개
大久保英哲	일본 金沢星稜大学 特任教授	2018년 1월 12일	일본 노인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토의

법으로 진행된 조사였기에 국내 노인의 실태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2), 2016 노인복지시설현황, 2017 노인복지사업안내, 201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 등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여가시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전국민의 여가활동을 이해하고 노인여가활동에 대해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들 국가기관 보고서 이외에도 본 연구에 필요한 다수의 국내 및 일본 문헌들이 활용되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노인문제를 당면하여 이를 해결해가고 있는 일본의 노인복지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성공적인 복합노인복지관의 모델로 타사시적을 삼고자, 일본의 노인복지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일본 도심에서 노인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고 성공적 프로그램을 지닌 노인복지관 중 가나자와에 소재하고 있는 産三きらく (気楽) 園 노인복지센터를 사례로 삼았다. 이 복합노인복지관은 가나자와 시내에 위치하였고, 그 운영에 있어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며 주민들의 호응도와 이용도가 높은 곳이다.

국내와 일본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시 음성녹음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심층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피면담자들에게 본 연구와 면담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표는 본 연구를 위해 심층면담에 참여한 피면담자와 면담일자 및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Ⅲ. 연구결과

#### 1.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의 용어정리

국내 노인여가시설의 분석에 앞서 우선 ‘여가활동’, ‘여가시설’ 등의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한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6)는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윤소영 등(2016)은 고령자 대상 문화 활동의 범위로 문화예술 활동(관람 및 참여), 관광 활동, 체육 활동(관람 및 참여), 사회봉사 기타 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 교육교양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가의 활동 목적에 따라 레저, 스포츠, 취미, 교양활동, 오락 활동과 더불어 자원봉사, 학습활동 등을 포함시킨다(이석훈, 송강영, 김재운, 2008). 이러한 다양한 여가활동의 범위 내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 여가활동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2017년 3월에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여가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으로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2017)”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가 시설에는 집, 공원, 체육시설, 공터, 놀이터, 체육관, 교육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

표 2 여가 공간(개별, 복수응답) 상위 10개

연령 \ 공간	식당	집주변	생활권 공원	커피숍	대형마트	영화관	목욕탕	산	재래시장	쇼핑몰
전체	33.2	21.6	20.2	19.1	18.5	12.9	12.8	11.5	10.9	10.7
60대	29.1	31.4	25.8	5.3	19.7	1.9	17.8	19.0	23.0	4.5
70대 ↑	22.7	39.3	28.4	1.5	12.1	0.6	17.9	10.3	30.0	2.1
60~70 ↑	25.90	35.35	27.10	3.40	15.90	1.25	17.85	14.65	26.50	3.30



가활동조사에 의하면 60대 및 70대 이상 노인의 주된 여가시설은 60대의 경우 근린공원(34.4%), 아파트내 공터(28.8%), 재래시장(27.6%), 식당(26.5%) 등의 순이었으며,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아파트내 공터(34.4%), 근린공원(33.9%), 재래시장(32.6%) 등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본 연구에서는 모든 광범위한 여가공간의 범위가 아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의 여가시설에 국한시켰다.

## 2. 국내 노인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 시설 현황

노인의 과(過)여가와 무료의 문제는 여러 형태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내 노인층의 여가시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비하며 고독과 소외, 만성적 무료함,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의 21.1%는 우울 증상이 있고, 6.7%가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13.2%였다(보건복지부, 2017).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가 노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가시설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노인이 여가시간을 보낼 공간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에는 자택, 공원, 체육시설, 공터, 놀이터, 체육관 등이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격년마다 수행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해 노인의 여가시설, 공간의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문체부의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노인의 여가공간은 집주변(31.4%), 식당(29.1%), 생활권공원(28.4%), 재래시장(23.0%)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집주변(39.4%), 생활권공원(28.4%), 재래시장(30.0%), 식당(22.7%)등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등 노인의 여가활동 내용은 다양하지 못하고,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나 개인적 만족이나 성취감을 얻기에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복수응답) 1순위는 TV 시청이 60대 82.8%, 70세 이상 90.7%로 절대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책 및 걷기가 각각 51.58%와 66.66%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 유형별에 가장 많은 여가활동은 단순한 휴식으로 60대에서는 94.1%, 70대 이상에서 97.5%로 나타났고, 그 외 취미, 오락 활동은 60대에서는 78.3%, 70대 이상에서 65.8%로 나타났으며, 사회 및 기타활동, 스포츠참여활동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대비 문화예술참여활동이나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 취미오락을 하는 경우는 증가하였고, 문화예술 관람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은 감소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집주변과 공원, 또는 식당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과 걷기로 대체로 단순히 시간보내기 형태로 여가를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여가 선용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공공이나 민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로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지방문화원 등과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휘트니스센터와 문화센터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여가시설은 연령이나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지만, 여가 취약계층인 노인 세대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노인복지법 제3차 개

표 3. 노인여가복지시설 구분 및 역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 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자료출처: 법제처(2018). 노인복지법 제31조, 재구성

정 당시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6조 2항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3와 같다. 이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시설 및 공간의 총체로 생활의 구속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선용, 취미활동, 친목도모, 사회참여 활동, 휴식과 건강증진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법제처, 2018).

2016년 12월 기준, 전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6,787개소이며, 이 중 경로당이 65,044개소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1,393개소, 노인복지관은 3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b). 2012년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연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 연도	2016	2015	2014	2013	2012
노인복지관	350	347	344	319	300
경로당	65,044	64,568	63,960	63,251	62,442
노인교실	1,393	1,377	1,361	1,413	1,335
소 계	66,787	66,292	65,665	64,983	64,077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재구성

2016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699만 5,652명이며, 노인여가시설의 전체수는 총 66,787개이고 이 중 노인복지관이 350곳, 경로당이 65,044곳 노인교실이 1,393곳이다. 서울특별시 노인인구는 129만 5,899명으로 전체노인 중 약 18.5%가 서울에 주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 노인여가시설은 3,808곳으로 17.5%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전국 350개소 중에서 약 22%인 76개소가 서울에 있다. 경로당인 경우에는 전국에 65,044개소 중 약 5%인 3,369개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전국 1,393곳 중에서 서울에 363곳이 위치하고 있어 약 26%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이를 인구비

율로 분석하면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의 수는 다소 많은 편이나 경로당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체육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인 송파구와 근접지역인 강동구를 살펴보면, 먼저 송파구의 노인인구는 70,918명이며, 지역의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이 3곳, 경로당이 163곳, 노인교실이 15곳이었다. 강동구의 노인인구는 53,121명이며 노인복지관은 2곳, 경로당은 118곳, 노인교실은 15곳으로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2017b).

표 5.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도	65세이상 노인인구	합 계	노 인 복 지 관		경로당	노인 교실
			시설수	종사자수		
합계	6,995,652	66,787	350	6,097	65,044	1,393
서울	1,295,899	3,808	76	1,440	3,369	363
송파구	70,918	181	3	93	163	15
강동구	53,121	135	2	32	118	15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17b). 노인복지시설 현황, 재구성

### 1)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의 휴식, 오락, 친목을 위한 지역적 거점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전체 노인인구에 비해 그 수가 상당히 미비하며,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욕구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은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나, 경로당은 중소도시 이하의 농어촌지역의 대표적인 여가활동 공간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접근이 용이한 한국만의 독특한 지역사회 노인 문화 및 여가 시설임에 틀림없다.

경로당(敬老堂)은 과거에는 노인정(老人亭)이라고 하였으나 1989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명칭을 통일하고, 1990년대 경로당의 시설기준과 운영관리 현대화, 운영비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1991년에는 아파트 건축시 경로당 건립 의무화가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신도시개발과 1997년 개정된 주택개발과

관련된 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중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경로당을 갖출 것을 규정하면서 그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정부는 경로당에 대한 시설 인프라를 확보하는 동시에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명시하고 법적 기반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추어 경로당의 연료비 및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일정 비율(서울 10%, 기타 지역 25%)로 국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연계 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사도별로 1개소씩 설치하고 대한노인회 연합회에 운영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b).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3.0%의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8%로 향후 노인들이 계속해서 경로당을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의 주당 평균 이용일수는 3.9일이며, 경로당 이용 만족도는 81.0%가 만족한다고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a). 점차적으로 경로당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시설협소, 설비부족,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노인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경로당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로당 운영개선책은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경로당 시설의 노후함과 협소함, 노인전문 프로그램의 미비 등으로 개선책이 쉽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자원, 인력 등도 부족하여 경로당은 노인이 단순히 시간의 소비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로당은 여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 허브시설 인프라이지만 시설의 협소, 시설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재, 정부 재정지원의 빈약 등으로 노인의 다양해진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흡하다.

## 2)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경로당 다음으로 많은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07년 8월 노인복지법 개정 전까지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아직도 노인복지관 혹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불리는 곳은 있으나, 법규상에는 노인복지관으로 명명되어있다. 국내 최초의 노인복지관은 1971년 인천시 농민복지회관이지만 당시 정부로부터 예산을 정식으로 지원받지 못했다. 1981년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고, 노인복지관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 양로시설과 함께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되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이 정부예산 지원으로 실제 설치된 것은 1989년으로, 서울 남부노인복지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 시 노인복지관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sup>1)</sup>와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노인복지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가 분권 교부세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노인복지관은 종합적인 노인복지의 허브로 노인교육,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는 물론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기타 노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시설이다. 노인복지관은 노인교실이나 경로당과는 차별화 된 종합적 서비스와 지역 사회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복지향상의 구심적 기능을 담당한다(조미자, 2007). 노인복지관의 설치기준을 보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해 연면적 500㎡이상으로 개정되었고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피시설 각각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시설내 회관운영법인 사무 공간, 종교 활동을 위한 숙소 및 사무 공간, 노인단체 및 정부기관 사무 공간, 외부에 임대 시설 공간은 기준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다(법제처, 2019).

1) 노인휴양소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포함되었지만 시설 수가 극소수이며 이용자 수가 적어 2011년 일부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표 6. 노인복지관 기능별 소요시설

분류	사무실	식당및조리실	상담실	집회/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대비시설	거실/휴게실
노인복지관	1	1	1	1	1	1	1	1	1
노인복지관 분관	1		1	1	1	1			1

자료출처: 법제처(2019). 노인복지법, 제구성

노인복지관의 공간구성을 보면 시설 내 운영프로그램들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상담지도, 재가복지, 의료재활, 사회교육, 복귀후생, 지역복지사업, 고령자 취업알선, 조사 연구·홍보 등 상당히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교육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은 미비한 상태이다.

노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실상 웨이트트레이닝 같은 건강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사용료 또는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노인대상 스포츠교실은 인근 한국체육대학교가 제공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장○○사회복지사 인터뷰, 2018년 6월 1일).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노인의 9.3%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5%가 지속적으로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1주간 평균 이용일수는 2.5일이며, 이용만족도는 88.4%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렇듯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시설 중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경영방식을 갖추고 있지만, 서비스수준으로 볼 때, 규모에 비해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많고, 재정 및 인력의 부족 등으로 다양한 노인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는 역부족이며, 시설의 낙후 및 공간부족의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였다(성○○관장 인터뷰, 2018년 6월 27일; 장○○사회복지사 인터뷰, 2018년 6월 1일).

노인분들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련 운동프로그램 인데요. 물론 피트니스, 요가, 건강체조 등은 기존에 있구요. 요즘 들어 필라테스, 스포츠댄스 등의 새로운 운동종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요구사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설 부족, 강사 채용 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인근 학교와의 시설과 프로그램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와 같은 학교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교류는 참으로 좋을 것으로 봅니다(장○○사회복지사 인터뷰, 2018년 6월 1일).

### 3) 노인교실

서울평생교육원이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학교를 설립한 이후 대한노인회 산하의 노인학교가 성행하였다. 노인교실의 설립목적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다. 노인교실은 주로 노인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노인교실은 노인교육전담기관, 대학, 사회 및 종교단체, 개인 등이 설립, 운영하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노인교육시설로 2016년 현재 지자체에 1,394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전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2017). 노인교실은 체계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과는 달리 전체적인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교실은 노인을 위한 유일한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인교실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미비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교실에서는 노인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기보다 단순한 레크리에이션 분야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있다(이현아, 2003). 또한 노인교실은 운영자의 비전문성, 시

설의 낙후 및 영세성, 전문 강사 확보의 어려움, 운영재원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자 전문교육, 충분한 재정지원, 전문성을 지닌 강사진의 확보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이용현황을 종합하면, 노인은 여가시설보다는 집 주변의 공원이나 공터를 중심으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6만여 개 이상 운영 중에 있는 경로당이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경로당은 우수한 접근성으로 노인의 만남과 친목의 장소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환경, 프로그램의 미비 등으로 노인들의 여가 생활의 환경적, 내용적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의 경우 인구대비 그 수가 너무도 적고, 거리상의 문제로 노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 3. 일본의 노인복지, 여가정책과 시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에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7%), 1994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이상 14%)에 진입하였고, 2015년부터는 초고령사회(Post Aged Society: 65세이상 25%)를 넘어 국민 4사람 중 한 사람이 노인인 상황이다. 이러한 초고령사회 일본은 노인복지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수행중이며 이에 합당한 각종 여가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일본정부 후생노동성의 노인보건복지국은 노인복지법을 시행하고 담당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입안하며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도(都), 도(道), 부(府), 현(縣)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시(市), 정(町), 촌(村)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김진희, 2007; 김정순, 2004). 도(都)도에는 복지국, 도(道), 부, 현에는 민생부, 민생노동부, 생활복지부 등의 부서에서 노인복지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지사 밑에는 사회복지의 전문행정기관으로 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복지사무소는 시 및 특별구에 의무적으로, 정, 촌에는 임

의로 설치하게 되어있다(김진희, 2007).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민간단체, 민간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중앙 정부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 시, 정, 촌과 도, 도, 부, 현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조우홍, 2010).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처럼 일본에서도 노인복지법은 포괄적인 노인복지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1963년에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 전까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와 양로원에서의 수용보호 중심이었기에 심신이 불편한 노인을 관리하는 수준이었으며, 노인의 여가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이 상당히 미비하였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정이후 노인의 건강과 여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제1조에 “노인복지에 관한 원리를 명확히 함과 함께, 노인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노인복지법 제10조, 13조에는 행정조치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체제의 정비, 개회보험법의 적용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재택개호의 실시와 노인의 교양강좌, 레크리에이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실시, 국가에 의한 개호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일본 노인복지법, 1994)

일본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홈서비스센터, 노인단기입소시설,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호스센터, 경비노인홈, 노인복지센터, 노인개회지원센터 등 모두 7종류이며 이외에 관련된 시설로서 유료노인홈, 노인휴양홈, 노인휴식집 등이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 여가와 관련된 주요 이용시설은 노인 day-service센터, 생활지원house(고령자생활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노인휴식집, 노인휴양홈 등이 있다. 일본 체육학자 오우쿠보에 의하면 이러한 시설 중에서도 노인복지센터가 노인체육, 여가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며, 노인클럽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大久保英哲 인터뷰, 2018년 1월 12일). 일본 노인여가시설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김정순, 2004).

표 7. 일본 노인여가시설 종류 및 주요기능

노인 day-service 센터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장애가 있는 자를 통근시켜 목욕, 식사, 세탁, 기 능훈련, 개호방법의 지도 기타 편의를 공여
생활지원 house	노인대상의 개회지원기능, 거주기능 및 지역에 있어서의 교류기능을 관리하는 소규모의 복합시설
노인 복지센터	지역의 노인과 상담, 건강증진, 교육의 향상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편의를 제공
노인 휴식집	지역의 고령자에게 무료나 저렴한 요금으로 교육의 향상, 레크리에이션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노인의 심심건강을 도모한다. 노인클럽의 거점이 되는 곳으로 노인복지센터보다는 소규모
노인 휴양홈	관광지, 온천지 등의 휴양지에 노인의 휴식과 휴양의 장소로 설치된 숙박시설, 저렴한 숙박요금으로 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가볍게 이용할 수 있음

자료출처: 김정순(2004).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제구성

### 1) 노인복지센터

일본의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지역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각종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운동스포츠지도, 교양강좌, 노인클럽활동, 생업취업지도 등 각종 편의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厚生省, 1996; 厚生省, 2004). 노인복지센터는 1960년대부터 건립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2,214개소가 운영되는 상황으로 각 지역마다 노인복지센터, 고령자노인센터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노인복지센터는 규모와 기능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노인복지센터 특A형의 기준면적은 800㎡ 이상으로 건강관련서비스 기능을 강조하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센터는 국내 복지관의 체계와 다르게 작업소와 주간보호센터가 병설시설이며, 작업소는 공예품의 제작, 수예 등의 작업공간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된다. 주간보호센터는 15인 이상의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무실, 상담실, 욕실, 식당, 주방, 작업 및 일상생활 훈련실, 개

회자교육실, 휴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센터의 상담실, 식당, 주방, 작업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과 욕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한다(소준영, 2001).

기존의 노인복지센터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합노인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지 확보와 관리 운영의 합리화라는 물리적, 재정적 측면과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시설 이용기회의 제공을 위해서이다(한승희, 김영희, 김문덕, 2008). 노인복합시설이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그 시설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시설을 동일 부지 내 또는 동일 건물 내 있어서 일체적 상호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일본의 노인시설 복합화 초기에는 요지난이나 경제성 등의 외부적 이유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들이 복합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고령노인들의 의료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의료시설과 요양시설을 병설하였다(이은령, 소준영, 이상호, 2007). 복합노인복지관은 일정한 시간동안 한 지역에 속한 다양한 상태의 노인을 위한 건강 및 사회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다른 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연숙, 이소영, 여옥현, 장미선, 2007).

### 2) 노인클럽

노인클럽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963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대체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후의 생활을 건전하고 풍요롭게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50년대 일본 각지에서 설립된 노인 클럽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국노인클럽연합회는 1962년 도, 도, 부, 현 연합회의 조직 후, 전국 사회복지 협의회의 지원 아래 발족하였다. 2010년도 초에는 클럽 수 12만, 회원 수 800만 명을 넘어 전국의 60세 이상 인구의 약 절반을 조직하는 큰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전국노인클럽연합회는 노인 복지 추진을 위한 정부, 여당에 대해 예산 대책 운동을 지휘하고 있다. 전국노인클럽연합회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일본내 노인이 그 지역에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포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

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각 지역 노인들의 활동과 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건강활동, 우애활동, 봉사활동 등 3대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활동은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자립을 돕고, 고령자 체력 측정, 중증예방을 돕고 있다. 우애활동은 재택 노인의 복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새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를 독려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은 각종 사회봉사 및 고령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 체제 구축하고 있다(全国老人クラブ連合会, 2018). 아래의 표 8은 연도별 일본 노인클럽수와 회원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8. 연도별 일본 노인클럽수, 회원수

연도	60세이상 인구	클럽수	회원수	회원률*	클럽당 회원 수
1995	25,736,000	133,921	8,802,717	34.2	65.7
2000	29,741,000	133,138	8,739,542	29.4	65.6
2005	34,217,000	126,245	8,035,078	23.5	63.6
2010	39,289,000	109,818	6,711,307	17.2	61.1
2015	42,418,000	103,321	5,906,292	13.9	56.9
2016	42,751,000	101,110	5,686,222	13.3	56.2

\* 회원률=회원수/60세이상 인구×100

자료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정책통과관(통계·정보정책담당 ‘복지행정정보고레’)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전국에 101,110개의 클럽이 있고, 전국적으로 5,686,222명의 회원이 있으며, 1개 클럽당 평균 56.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많은 클럽과 회원이 있다고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클럽수와 회원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그 이유는 회원이 고령화되고 젊은 노인이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노인이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늙었다는 사실이다. 노인클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일반클럽에 가입하여 젊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보다 좋다고 생각하기에 클럽회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노인 클럽 자체가 기본 시설이 없는 프로그램 중심이기에 비교적 젊은 회원들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大久保英哲 인터뷰, 2018년 1월 12일).

일본 노인클럽의 운동시설이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노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4. 일본 노인복합복지센터 답사

연구자는 2018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가나자와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합복지센터의 서비스프로그램과 시설 공간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노인복지센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설구성과 면적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인복지센터 중에서 국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합당한 도시형 소규모 노인종합복지시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노인복합복지센터를 찾아보았다. 이에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과 일본 학자의 권유로 일본 가나자와시의 도시형 소규모 노인복합복지센터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시설명은 産三きらく (気楽)園 노인복지센터로 가나자와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지상 2층의 규모의 시설이었다. 이곳은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단기요양소와 건강증진시설 갖추고 데이서비스센터와 생활지원하우스가 복합된 시설이 있었다.

복합형태의 이곳 노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에게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사회교육, 건강기능 회복, 주간·단기보호, 취업, 재가복지 등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었다. 시설의 정원은 특별입소 25명 단기입소보호 25명, 데이케어 25명, 주중 서비스프로그램 이용자 30여명 등 총 110여명이며 시설의 규모와 관련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노령노인의 단기입소와 데이케어, 단순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노인시설 등으로 복합된 기능을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의 단순 프로그램이나 데이케어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셔틀버스가 운행하면서 식사의 운반, 귀가 등을 도와주고 있었다.

복지관의 이용프로그램은 교양강좌, 오락, 건강상담, 기능회복실, 목욕실로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었다. 특히 이곳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노인을 위한

목욕과 물리치료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각 시설의 층별 공간구성은 1층의 사무실, 건강 및 생활상담, 목욕실, 기능회복실, 물리치료실, 데이케어 노인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휴게, 담화, 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로비에 근접 배치되었다. 2층은 단기입소보호시설로 2인실 9실, 3인실 1실, 4인실 1실이 있으며, 관련 휴게실, 교양실과 17명의 보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3층에도 2층과 흡사한 입소 요양시설이다.



그림1. 데이케어 이용자를 위한 1층 휴게실.  
2018년 1월 11일 촬영



그림 2. 목욕서비스 시설과 2인실 단기입소 간호병동 시설,  
시설 팸플렛 및 2018년 1월 11일 촬영

이곳 노인복합복지관은 80대 이상 고령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자 대부분이 신체운동을 많이 요구하는 운동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본 연구자는 담당직원에게 다양한 스포츠 또는 운동 프로그램의 유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담당자는 대부분의 도시형 노인복합복지관은 이곳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데이케어, 단기입소프로그램이나 목욕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아주 단순한 신체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게임이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각종 만들기, 주사위놀이, 카드게임과 같은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이나 퀴즈나 붓글씨교실 등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나마 신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지역의 교류센터나 노인여가센터에서 그들의 시간을 보냅니다(郵便一政 인터뷰, 2018년 1월 12일).

이곳 시설의 휴게실 게시판에는 이용 노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월별계획표나 일일계획표를 작성하여 두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만이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데이케어 이용자의 일과표를 보면, 이용자들은 셔틀버스나 개인 직접 오전 8시30분까지 시설에 입소를 하여 간단한 건강체조와 차를 마신다. 이후 10시부터 목욕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점심시간 전까지 수식과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즐긴다. 이후 센터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고, 자유시간과 휴식 차를 마시다가 3시10분부터 약 50분간의 오락시간을 가지며, 오후 4시부터 귀가가 시작된다. 데이케어 프로그램 관찰 중 인상적인 것은 목욕서비스와 점심제공 서비스였다. 복지관의 입욕시설은 상당히 청결하고 편리하게 구비되었으며 목욕서비스가 매일 제공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점심식대는 570엔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였고 이나마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였다. 제공되는 음식도 영양관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이 식사를 위해 매일 방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고령자에게 많은 신체활동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곳에 있는 노인들은 간단한 게임이나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오락프로그램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점심은 영양사들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은 거주민과 비거주민 그리고 보호대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점심식대는 570엔입니다(郵田一政 인터뷰, 2018년 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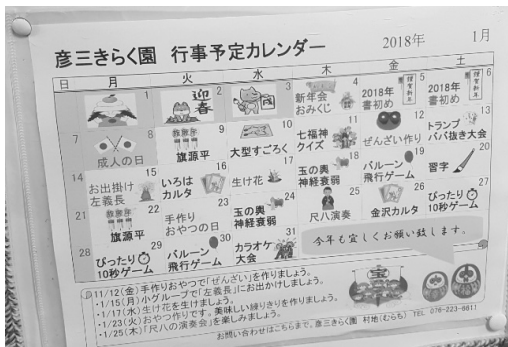


그림 3. 복지관 월간행사 계획표, 2018년 1월 11일 촬영

국내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데 비해 이곳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생각되어 그곳의 담당자에게 질의하였고, 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신체가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노인클럽이나 시민교류센터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다고 응답하였다(郵田一政 인터뷰, 2018년 1월 12일). 실상 일본의 건강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여가욕구의 충족을 위해 각 지역에 소재하는 시민교류센터를 이용한다. 이곳에는 노인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다. 센터마다 다르지만 주로 탁구대, 매트, 발레용 바 등이 구비되었으며, 운동이나 댄스 연습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 센터는 주로 근린시설로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 연령대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며, 작은 규모이지만 모든 연령층이 모여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떠한 체육시설이든 개방이 기본이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국민체육, 2017. 04).

#### IV. 논의 - 노인여가시설 개선

노인의 과여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형태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시설들은 양적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적 편중과 시설의 질적, 프로그램의 미비 역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이용현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노인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과 같은 노인여가시설보다는 집 주변의 공원이나 공터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단순히 보내는데 허비하고 있다.

둘째,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만여개 이상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의 대표적인 여가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당이 우수한 접근성으로 노인의 만남과 친목의 장소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환경, 프로그램의 미비 등으로 노인들의 여가생활의 환경적, 내용적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이용노인에게 노인복지관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경영을 유지하지만, 전체노인의 수에 비해 개체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또한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역시 예산, 프로그램, 인력의 부족 등으로 다양한 노인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에 역부족이다.

넷째, 현실적으로 볼 때, 체계적인 국고지원이 없는 노인교실은 노인여가시설로 분류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노인교실 역시도 운영자의 비전 문성, 시설의 낙후 및 영세성, 전문 강사 확보의 어려움, 운영재원의 부족 등으로 본래의 목적인 노인 능력개발이나 노인여가 선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여가시설의 현황을 볼 때, 노인에게 과부하된 여가시간을 선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강화하기 위해, 향후 노인 세대를 위한 여가시설 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의 의견역시도 무엇보다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확충이 필요하며 그 시설규모와 운영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여가시설의 문제는 너무 낙후되었거나, 프로그램, 지도자의 미비 등이 문제입니다. 경로당에서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듯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이용자인 노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없습니다. 송파구나 강동구의 경우에도 2, 3곳밖에 없습니다. 노인의 활동적인 여가시간을 활용과 접근성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소규모이지만 경로당보다는 넓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보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의 확보가 절실합니다(성○○ 관장 인터뷰, 2018년 3월 14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새로운 노인복지시설의 구상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의 여가와 관련된 주요 이용시설은 노인day-service센터, 생활지원house(고령자생활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노인휴식집, 노인휴양홈 등이 있다.

둘째, 노인복지센터는 노인여가시설 중에도 다양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국내 노인복지관과 비슷한 시설구조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합노인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요양서비스에 집중하여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요양사업이 발달하였으나 노인여가를 위한 뚜렷한 정책이나 시설은 취약한 실정이었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센터가 있으나 이용자들은 수동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이나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본의 노인복지센터는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시설의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방문서비스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변화되고 있다. 서비스의 복합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건립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의 노인여가시설을 비교한다면

일본은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클럽 활동으로서 소규모 비정형적 자율적 운영제도이며, 한국은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노인복지프로그램 지원제도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나라 노인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위 두 형태의 시설은 접근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경로당은 접근성이 매우 높은 반면,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친목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한 측면이 있다. 이와 반대로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 350개소로 지자체별 1~2개소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과 비교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의 환경적, 내용적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소한 노령화의 사회적 동향에 따라 노인여가시설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된 다양한 여가욕구에 따라 여가시설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노인여가시설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소규모 복합노인복지관과 특화된 경로당과 여가프로그램 확대와 지원 그리고 고령친화적인 여가시설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소규모 복합노인복지관은 지역밀착형으로 접근성이 높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내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이러한 형태의 시설이 2017년 기준 51개소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에 있다(서울특별시, 2017). 소규모 복합노인복지관은 대도시는 물론 노인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원활한 여가문화지원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노인복지시설 현실에 맞추어 특화된 경로당 모델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하여 2017년부터 특화된 경로당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로당이 단순한 휴게공간에서 벗어나 노인의 일자리,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공동체허브로서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경로당 특화모

델은 기존의 공동 휴게공간 외에 사무공간, 취미공간, 건강·체육공간, 텃밭 등을 추가해 노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부터 시범사업지 4곳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득활동,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7.05.01.).

현재 노인복지관보다 접근성이 있고 경로당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면에서 향상된 노인여가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설에 대해 범조항까지 고치려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특화된 경로당이나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들이 많이 연구되고 실행되었으면 합니다(성○○ 관장 인터뷰, 2018년 6월 25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내용은 노인이 공공여가시설을 통해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며,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비추어보면 고령친화적인 여가시설로의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다양한 여가시설이 확충은 기본이지만 이러한 여가시설 안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동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은 예산의 증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는 5,000원에서 3만원 운동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는 불러올 강사도 없으며, 재료비 운영비 등에 미치지 못합니다. 말이 이용자 실비 부담이지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부족하여 강사 수를 줄이거나 수업시간이나 수업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의 운영경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보다 현실적인 수준까지 부담지울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성○○ 관장 인터뷰, 2018년 6월 25일).

법령상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비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용자 노인의 반발로 이용료를 상향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노인인식개선 등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일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현황과 장단점을 관련 문헌, 관련자 면담과 현장탐방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노인여가시설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을 분석하면, 대부분의 노인이 관습적으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있으며 과부하된 여가를 단순한 시간보냄 또는 소비적 여가생활(주로 TV시청)으로 허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주장하듯이 노인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의 준비가 절실하다.

둘째, 국내여가복지시설의 개수와 이용률을 보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의 순이며 경로당은 비교적 이용만족도도 높은 편이지만 아직도 단순한 친목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그 개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경로당은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환경과 미흡한 프로그램 운영이 문제이며, 노인복지관은 여가선용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본 노인복지시설은 그 기능과 관련하여 상당히 세분화 되어있으나 대부분 노령 및 장애를 돌보는 요양시설이며, 노인복지센터가 노인여가와 관련된 주요 이용시설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노인여가와 관련된 전국적인 조직으로는 노인클럽이 있다.

넷째, 일본은 최근 노인복지관의 일반적인 규모와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합노인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의 노인여가시설을 비교하면, 일본은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복합노인시설과 노인클럽 활동으로서 소규모 비정형적 자율적 운영제도이며, 한국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프로그램 지원제도이다.

여섯째, 한일 양국의 노인여가시설 현황을 통해 국내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의 개선방안으로 소규모 복합 노인복지관과 특화된 경로당, 그리고 고령친화적인 여가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복지관은 여가 프로그램 제공이외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여야 하기에 노인여가시설로서의 환경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시설의 개선을 위한 기본 자원인 국내 및 일본의 노인여가시설을 검토하고 이용자의 여가욕구에 합당한 개선안과 노인 여가문화 인프라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참고문헌

- 강은나, 이민홍(2014).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7).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역할 모색**.
- 김경식, 이은주 (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4).
- 김명숙, 고종욱(2013). 여가활동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지지의 매개역할. **노인복지연구**, 60.
- 김세진, 강은나(2017).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7(3).
- 김양례(2006).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건강상태 및 고독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19(2).
- 김예성, 하웅용(2015). 독거노인의 생산적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5(4).
- 김정순(2004).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정, 강은나, 배혜원(2016). 은퇴전환기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화 연구. **보건사회연구**, 36(2).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박경순, 박영란, 염유식(2015). 어떤 농촌노인이 경로당에 가지 않는가?. **사회복지정책**, 42(2).
- 박명숙, 남영신(2010).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유라시아연구**, 7(1).
- 박용범(2010).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 박인수(2005).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법제처(2019). 노인복지법.
- 보건복지부(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 보건복지부(20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보건복지부(2016). 2016 노인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2017). 2017 노인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b). 201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서울특별시(2017). 2017년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지원 계획.
- 소준영(2001). 일본 노인복지센터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9.
- 유병선, 정규형(2015). 도농간 경로당 이용 결정요인 차이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2).
- 윤혜진(2015). 노인여가 연구의 학문적 동향 및 연구 제언. **관광레저연구**, 27(7).
- 윤혜진(2016). 한국 노인의 여가 및 에이징 웰(aging well)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28(7).
- 이민석, 강희엽, 이철원. (2017). 진지한 여가 참여노인의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6(21).
- 이윤경(2013).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8.

이은령, 소준영, 이상호 (2007). 일본 노인복합시설의 유형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6)

이은주(2014).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적지지, 우울감 및 죽음불안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4).

지은정, 금현섭, 하세윤(2012). **고령화사회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노인 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성재, 장인협. (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대학교출판문화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베이비 붐 세대실태 조사 및 정책현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a).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b).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c).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a).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 여가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b).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a).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b).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a).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b).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한승희, 김영희, 김문덕(2008). 일본 노인복합시설의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0(1).

한정란(2016). 고령사회 노인 여가문화교육과 사회적 역할. 고령사회와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정란(2016). **고령사회와 문화정책: 고령사회 노인 여가 문화교육과 사회적 역할**.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행정자치부(2017.05.01) 경로당의 재탄생...노인 일자리·문화·복지공간으로. 정책브리핑.

박용근(2012). 독일과 일본의 노인복지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35.

여성가족부(2016).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

全国老人クラブ連合会(2018). 平成30年度 事業計画書, 予算書. 公益財団法人 全国老人クラブ連.

全国老人クラブ連合会(2010). 老人クラブ活性化 3か年計画 (平成22~24年度). 公益財団法人 全国老人クラブ連.

日本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 노년기 여가스포츠 참여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 및 경기 지역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on social integration of elderly people

김예성\* 한국체육대학교

Kim, ye sung Korea National Sport Univ.

### 요약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배제를 막고 사회통합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여가스포츠의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노인복지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거된 306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유형과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유형을 구분하여 노인들의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 여가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사회통합감 수준 비교, 여가스포츠 참여정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혼자하는 여가스포츠’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경제적수준이 높을 경우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으로 여가스포츠는 사회통합감 증진에 기여하며, 그 중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막고 사회통합감을 높이기 위해 여가스포츠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함께하는 여가스포츠’를 통해 노인들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 여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leisure sports as a way to prevent social exclusion of the elderly and to enhance the sense of social integr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8 institutions of senior welf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area, and 307 questionnaires was collected and analyzed. After distinguishing between ‘leisure sports alone’ and ‘leisure sports together’, we analyzed participation level of leisure sport in elderly, comparison of social integration level according to types of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the effect of participation level of leisure sports on social integ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participated more in ‘leisure sport alone’. Second, when a elderly were women, with spouse, at high economic level, they were more involved in ‘leisure sports together’. Third, leisure sports contubute to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particularly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together’ was relatively larger. The results of thus study suggest that participationof leisure sports should be activated to prevent social exclusion of the elderly and to enhance sense of social ineg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ays to promote social exchanges among elderly people through ‘leisure sports together’. In addition,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actively support the policy in the welfare of the elderly.

Key words: social inegration, leisure sport alone, leisure sport together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자체학술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yskim98@knsu.ac.kr

## I. 서론

우리사회는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노인문제 해결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양성지, 2017). 노년기는 신체적 약화와 만성질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경제활동 제한이나 사회적 역할 상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외로움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특히 자신이 오랫동안 수행해왔던 직업 및 사회활동을 상실함으로써 사회적 박탈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문제가 오늘날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란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주거, 문화, 정치적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박탈과 격리가 이루어지고 사회통합과 연대감이 무너지는 현상을 의미한다(차명화, 2015; Berman & Phillips, 2000). 노인문제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경제적 직업적 안정, 가족관계의 유지, 의료서비스와 건강의 보장, 사회교류의 기회 상실, 문화와 오락의 결핍 등 매우 다면적인 특성을 지닌다(강현정, 김운정, 2010).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 빈곤, 건강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에이지즘(ageism)과 같은 차별적 인식이 작용하는데 노인들의 경우 젊은이들에 비해 변화의 역동성이 적어 차별과 배제의 양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배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큰 문제이다(최미영, 이승은, 박현식, 2015; 박현주, 정순돌, 2012). 사회적 배제는 노인의 생활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우울감을 느끼고 심리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양성지, 2017). 사회적 배제는 노인으로 하여금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한때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개인이 그 역할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우울을 높이고 나아가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정화, 오영은, 2016). 반면 노년기에 고립되지 않고 집단에 소속되는 경험을 지니는 것은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의미있는 타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가짐으로써 노년기 생산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강혜원, 조영태, 2007).

이같이 노년기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노년기 여가활동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노년기에는 주어진 역할 없이 막연하게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된다(박근수, 2011). 스포츠와 같이 활동적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신체를 단련시키는 한편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켜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켜 무위,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노년기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은 물론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자존감 고독감 등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김경식, 박보현, 2013; 김예성, 하용용, 2015; Ku, Fox & Chen, 2009). 나아가 여가스포츠 참여는 가족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자와의 유대감을 높여주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참여자들간의 공통된 문화를 형성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Berg, Trost, Schneider & Allison, 2001). 노년기 신체활동능력을 유지하는 경우 행동반경이 넓어져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사회활동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윤상영, 김학권, 2015). 신체활동은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확대시키고 상호간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상호간 격려와 지지를 통해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한다. 나아가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높이는 여가스포츠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는데,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간 접촉이 증가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사회응집성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조옥연, 2012).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스포츠라는 문화적 여가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정서적 충족, 대인관계 경험, 긍정적인 자아에 대한 역량강화, 공동체 활동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소외계층의 사회통합감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최상미, 전재현, 정무성, 2015).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스포츠활동 그 자체에 심취하고 자신감과 자기통제감을 자각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노년기 사회적 역할상실감을 극복하는 데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김석일, 박정은, 2016).

한편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노년기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둘 이상의 참여자가 함께 즐기면서, 팀을 구성하여 협동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여가활동에의 몰입도가 높고 사회관계가 증진되는 효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한혜원, 2005; 김홍설, 송강영, 1999), 이를 볼 때 혼자 운동하는 방식의 여가스포츠와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여가스포츠 참여가 노인들의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노년기 스포츠여가활동의 효과에 대해 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측면에 한정시켜 다루어온 것에서 나아가 노인들의 여가스포츠 참여가 사회배제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의 기제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년기 여가스포츠 참여 방식에 따라 사회통합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나아가 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 한 뒤에도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가 사회통합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년기 여가스포츠참여가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나아가 여가스포츠 참여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여가스포츠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18개 노인복지관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사원들이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양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대상 노인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각각의 문항을 읽어드리고 답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모두 319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개를 제외하고 306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

#### 1) 종속변수 : 주관적 사회통합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통합감을 측정하기 위해 Burchardt, Le Grand & Piachaud(2002)의 사회적 배제 척도를 최재성과 최상미(2014)가 수정하여 재편한 사회통합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측정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으며,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지와 같은 주관적 인지 정도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에 최재성과 최상미(2014)는 사회에의 소속감, 인정, 자부심, 만족감, 통합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관적 사회통합감'을 개념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느끼는 사회통합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와 같이 한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안에서 얼마나 의미있고 필요한 존재인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928로 높은 편이었다.

## 2) 독립변수 : 여가스포츠 참여

여가시간에 해당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질문하였다.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는 혼자하는 운동(조깅, 등산, 수영 등)에 대해 '전혀 참여하지 않음' 0점, '별로 참여하지 않음' 1점, '가끔 참여함' 2점, '자주 참여함' 3점, '매우 자주 참여함' 4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는 여럿이 함께 하는 운동(축구, 댄스, 배드민턴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0점, '별로 참여하지 않음' 1점, '가끔 참여함' 2점, '자주 참여함' 3점, '매우 자주 참여함' 4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통제변수

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배우자유무, 주관적 신체건강, 주관적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자' 0점, '여자' 1점, 연령은 만 연령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무학' 1점에서 '초등학교졸업' 2점, '중학교졸업' 3점, '고등학교졸업' 4점, '대학 이상' 5점으로, 경제수준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 1점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함' 7점까지 사이에서 어디쯤 해당하는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배우자존재 여부에 있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1점,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0점으로 측정하였다. 나아가 '주관적 신체적건강' 수준에 대해 어르신 의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질문하여 '매우 나쁘다' 1점에서 '매우 좋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질문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분석방법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t검증을 활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주된 여가

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라 '전체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전체 여가스포츠 중참여집단', '전체 여가스포츠 저참여집단', '여가스포츠 비참여집단' 여섯 가지 집단유형으로 구분한 뒤, 사회통합감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집단간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스포츠 유형에 따른 참여 정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학적특성을 통제한 뒤에도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통합감 정도,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는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80명(26.1%), 여성이 226명(73.9%)으로 여성의 수가 많으며, 평균연령은 74.9세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수준이 34.9%로 가장 많고, 대학 수준이 20.8%, 중학교 수준이 20.5%, 초등학교 이하는 23.4%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55.7%를 차지하였다.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57.0%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 7점 척도 중 평균값 3.99를 나타내어 대부분 '중간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신체건강의 평균은 5점 척도 중 평균값 3.22, 주관적 정신건강의 평균은 3.57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신체건강 보다 정신건강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감 점수의 평균값은 19.59점으로 중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를 통해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는 평균값 2.02점인데 반해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는 1.81점으로 노년기 여가스포츠 참여는 혼자하는 형태를 띄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사례수 (%)
성별	남	80 (26.1)
	녀	226 (73.9)
연령	69세 이하	43 (14.1)
	70~79세	200 (65.3)
	80~89세	59 (19.3)
	90세 이상	4 (1.3)
교육수준	무학	17 (5.5)
	초등학교	55 (17.9)
	중학교	63 (20.5)
	고등학교	107 (34.9)
	대학교 이상	64 (20.8)
배우자	있음	175 (57.3)
	없음	130 (42.7)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연령	60	91	74.99	5.582
주관적 경제수준	1	7	3.99	1.182
주관적 신체건강	1	5	3.22	0.793
주관적 정신건강	1	5	3.57	0.858
사회통합감	6	30	19.59	5.274

표 2. 연구대상자의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

구분		사례수 (%)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전혀 참여하지 않음	57 (18.6)		
	별로 참여하지 않음	46 (15.0)		
	가끔 참여함	86 (28.0)		
	자주 참여함	70 (22.8)		
	매우 자주 참여함	48 (15.6)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전혀 참여하지 않음	89 (29.0)		
	별로 참여하지 않음	40 (13.0)		
	가끔 참여함	63 (20.5)		
	자주 참여함	69 (22.5)		
	매우 자주 참여함	46 (15.0)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0	4	2.02	1.323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0	4	1.81	1.444

##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형별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의 차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증을 통해 성별, 배우자 동거여부에 따라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경제수준과 여가스포츠 참여정도에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표 3. 성별, 배우자유무에 따른 유형별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

구분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평균	<i>t</i>	평균	<i>t</i>
성별	남	2.20	1.45	-2.698**
	여	1.96	1.95	
배우자	유	2.06	2.01	2.587**
	무	1.97	1.58	

\**p* < .05, \*\**p* < .01, \*\*\**p* < .001

<표 3>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혼자하는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의 경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참여 정도가 높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배우자유무에 따른 여가스포츠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전반적인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수준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여가스포츠 참여 상관관계 분석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056	.083	.063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021	-.085	.197**

\**p* < .05, \*\**p* < .01, \*\*\**p* < .001

표 5. 여가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집단간 사회통합감 비교

	(N)	평균값	표준편차	F (p)	Duncan*
전체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16)	24.37	4.773	8.085 (.000)	(1), (2), (3), (4), (5, 6)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32)	20.41	5.633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30)	22.33	4.978		
전체여가스포츠 중참여집단	(140)	19.58	4.859		
전체여가스포츠 저참여집단	(55)	17.82	4.792		
여가스포츠 비참여집단	(33)	17.00	5.333		

\* 1: 전체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2: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3: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4: 전체여가스포츠 중참여집단, 5: 전체여가스포츠 저참여집단, 6: 여가스포츠 비참여집단

나아가 유형별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와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경제수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혼자하는 여가스포츠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의 경우 주관적 경제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3. 노년기 여가스포츠 유형별 참여 정도에 따른 사회통합감의 차이 비교

여가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사회통합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와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에 따라 집단을 고참여, 중참여, 저참여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sup>1)</sup>.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와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가 모두 높은 집단을 '전체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가 높는데 비해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는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집단을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가 높는데 비해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는 중간정도이거나 낮은 집단은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두 가지 여가스포츠 유형에의 참여정도가 모두 중간정도인 집단은 '전체여가스포츠 중참여집단',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가 중간이면서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가 없거나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가 중간이면서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는 없는 집단은 '전체여가스포츠 저참여집단', 유형에 관계없이 여가스포츠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집단은 '전체여가스포츠 비참여집단'으로 총 6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간평균비교(ANOVA)를 통해 6개 집단에 대해 사회통합감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통합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혼자하는 여가스포츠와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가 모두 높은 '전체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이 24.37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 집단'으로 사회통합감의 평균값은 22.33이었다. 세 번째는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으로 20.41, 다음은 '전체여가스포츠 중참여집단'(19.58), '전체여가스포츠 저참여집단'(17.82), '여가스포츠 비참여집단'(17.00) 순이었다.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가스포츠 비참여집단과 전체여가스포츠 저참여집단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간 평균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여가스포츠 참여수준에 의한 단계구분은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활용하였다. 평균값에서 +1표준편차 이상은 고집단으로 -1표준편차 이하는 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의 경우 3.343 이상에 해당하는 4점은 고집단, 0.697이하에 해당하는 0점은 저집단, 1~3점 사이는 중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의 경우 3.254 이상에 해당하는 4점은 고집단, 0.366이하에 해당하는 0점은 저집단, 1~3점 사이는 중집단으로 구분되었다.

#### 4. 노년기 여가스포츠 참여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가 이들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신체건강, 주관적 정신건강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와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 모두 사회통합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사회통합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자하는 여가스포츠의 경우 .01 수준에서,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의 경우 .001 수준에서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와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통합감			
	B	$\beta$	B	$\beta$
성별	1.092	.091	.477	.040
연령	-.051	-.054	-.069	-.073
교육수준	-.872	-.193**	-.723	-.160**
배우자유무	-.130	-.012	-.661	-.063
주관적 경제수준	1.169	.262***	1.025	.230***
주관적 신체건강	.263	.040	.344	.052
주관적 정신건강	1.240	.202***	1.176	.191**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578	.145**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908	.248***
상수	13.237**		14.421**	
F	10.662***		12.960***	
R	.223		.259	

\* $p < .05$ , \*\* $p < .01$ , \*\*\* $p < .001$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정신건강이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제언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 빈곤, 건강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등 사회적배제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배제를 막고 사회통합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여가스포츠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노인복지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수집된 설문지 307개를 분석하였다.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유형과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유형을 구분하여 노인들의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 여가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사회통합감 수준 비교, 여가스포츠 참여정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노인들은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가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수준 평균은 2.02이고 81.4%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의 경우 참여수준의 평균은 1.81이고 71.0%가 참여하고 있었다<sup>2)</sup>. 이는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의 경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인이 있어야 하고, 시간을 맞추어 일정 장소에 모여야 한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생길 수 있는데 비해, ‘혼자하는 여가스포츠’는 본인이 원하는 데에 따라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 2013년 전국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에서는 여가활동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32.4%에 불과했는데(국민연금연구원, 2017), 이에 비하면 본 연구 대상 노인들은 여가스포츠 참여수준이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서울 및 경기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동을 포함한 교양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정도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수준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의 경우에는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함께하는 여가스포츠를 선호하고,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는 배우자를 지닌 노인들의 경우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스포츠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정경자, 박정근, 김성문, 2014).

셋째, 여가스포츠 참여수준에 따라 집단을 6가지로 구분하고 집단간 사회통합감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혼자하는 여가스포츠와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가 모두 높은 '전체여가스포츠 고참여 집단'의 사회통합감이 가장 높고,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에 주로 참여하는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의 사회통합감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혼자하는 여가스포츠에 주로 참여하는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고참여집단'의 사회통합감이 세 번째로 높았다. 네번째는 중간수준 여가스포츠 참여 집단, 다섯 번째는 낮은수준 여가스포츠 참여 집단, 여섯 번째는 여가스포츠 비참여집단 순이었으며,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체적으로 여가스포츠에 많이 참여하는 집단의 사회통합감이 높은 가운데,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에 많이 참여하는 집단이 '혼자하는 여가스포츠'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들보다 사회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신체건강, 주관적 정신건강의 영향을 통제한 뒤,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와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의 정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모두 사회통합감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의 영향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기 스포츠 참여가 사회통합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들(조옥연, 2012; 정경자 외, 2014)과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본 연

구에서는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유형이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유형에 비해 사회통합감을 높이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년기 여가스포츠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국가가 노인들의 여가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복지는 경제적 지원과 소득창출이라는 단선적 차원에 제한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이혜경, 2009), 이를 벗어나 여가스포츠와 같이 의미있는 관계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대상 및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바우처 사업 등 사회적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은 사회계층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취약계층을 통합시켜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위세아, 2017), 아직 그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이며 노인세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복지의 융합 방안이 보다 깊이있게 고민되어야 하며, 복지정책적 기반 위에 스포츠, 복지, 의료 세가지 차원의 전문성이 융합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이를 시스템화 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여가스포츠 중에서도 노인들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유형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혼자하는 여가스포츠보다 함께하는 여가스포츠에의 참여가 사회통합감을 높이는 데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참여 정도에 있어서는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 정도가 혼자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혼자하는 여가스포츠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하는 여가스포츠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공간적 사회관계적 제약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높

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김현나와 임영삼(2007)은 노인들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 건강에 관련한 활동,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노인프로그램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친목과 교류가 가능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여가스포츠, 세대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의미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조옥연(2012)은 사회통합을 위해 공통의 취미와 목적을 바탕으로 강한 소속감과 결속력을 제공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제안한 바 있으며,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내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함께하는 여가스포츠 참여를 증진시키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노인 개개인의 연령, 경제능력, 가구형태,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독려하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인관계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인스포츠 및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협력 시스템이 마련하는 한편 노인체육복지 시스템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정, 김윤정(2010). 사회적 배제 경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333-358.
- 강혜원, 조영태(2007). 서울시 남녀노인의 건강불평등 :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통합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4), 164-201.
- 국민연금연구원(2017).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국민연금연구원.
- 김경식, 박보현(2013). 한국노인의 여가스포츠활동과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4(3), 520-530.
- 김석일, 박정은(2016). 노인 여가스포츠참여자들의 여가 기능, 사회적 역할상실감 및 우울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3, 573-584.
- 김예성, 하용용(2015). 독거노인의 생산적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5(4), 344-374.
- 김현나, 임영삼(2007). 운동참가별 노인의 여가태도와 여가활동 선호도. **코칭능력개발지**, 4, 301-310.
- 김홍설, 송강영(1999). 대도시 주부의 체육활동 참가유형과 가정생활만족의 관계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3), 921-930.
- 박근수(2011).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활용한 노인여가유형별 특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53, 83-100.
- 박현주, 정순돌(201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 유형과 예측요인 : 영국고령화패널 분석. **한국노년학**, 32(4), 1063-1086.
- 양성지(2017).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배제 및 우울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6(5), 461-472.
- 윤상영, 김학권(2015). 대도시 노인들의 여가스포츠 참가가 자아실현 및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0, 597-608.
- 위세아(2017). 노숙인의 문화여가활동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논총**, 20(2), 55-76.
- 이정화, 오영은(2016).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우울 및 자살생각 : 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4), 831-850.
- 이혜경(2009). 노인의 사회적 배제정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6, 315-336.
- 정경자, 박정근, 김성문(2014). 효과적인 노인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을 위한 질적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3(6), 151-166.
- 조옥연(2012). 스포츠클럽 참여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3), 363-372.
- 차명화(2015).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

- 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 최미영, 이승은, 박현식(2015).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취업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9, 9-29.
- 최재성, 최상미(2014).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미발간.
- 최상미, 전재현, 정무성(2015).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서울도시연구**, 16(4), 177-194.
- 한혜원(2005). 노인의 여가 스포츠 참여유형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44(5), 713-725.
- Berg, E. C., Trost, M. Schneider, I. E. & Allison, M. T. (2001). Dyadic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of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time, and gender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Leisure Science*, 23, 35-46.
- Berman, Y., & Phillipps, D. (2000).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nd social exclusion at national and community lev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329-350.
- Burchardt, T., Le Grand, J., & Piachaud, D. (2002). "Degree of exclusion: developing a dynamic, multidimensional measure", in J. Hills, J. Le Grand & Piachaud(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University Press.
- Ku, P.W., Fox, K. R., & Chen L. J. (2009). Physical ac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Taiwanese older adults: a seven-year follow up study. *Preventive Medicine*, 48(3), 250-255.



## 장애인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스포츠 관련법 비교

### The policy proposal for the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 Legislation

윤석민\* 영남대학교

Yun, Seok-Min Yeungnam Univ.

#### 요약

현재 국내 장애인체육은 다양한 법과 제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엘리트선수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법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장애인생활체육의 내실화를 위한 우선 추진과제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추진과제로는 첫째, 장애인체육지도사의 활성화이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으로서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배치 비율과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자격시행이후 자격 취득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스포츠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장애인체육지도사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관련법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및 규모, 이용자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체육지도사들의 의무적 배치를 통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활성화가 시급하다.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에 앞서 환경적 제약의 개선을 통하여 접근성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중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scribe and compare the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 and to provide a policy proposal for the future policy-making. Based on the results, first,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that promotes highly qualified physical activity professionals to be placed in physical activity facilities. No policy related to the placement of highly qualified physical activity professionals were found while the professionals who are skilled in teaching physical activiti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as short. Second, the need of policy to eliminate environmental barriers or obstacles for the improvement of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 legislation mandates to make all physical activity facilities accessible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provide equal opportunities as individuals without disabilities do.

Key words: adapted physical activit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Korea legislation, the United State legislation

\* yunspe@yu.ac.kr

## I. 서론

우리나라는 1981년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이후 장애인의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세계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라는 국제적 요구사항과 맞물려 철저한 준비 없이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민간단체의 관심 부족은 물론 강력한 법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인 강제성이 결여된 권고사항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이러한 사항의 보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장애인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1988년 11월 1일 장애인 등록제도의 전국실시와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장애범주 확대<sup>1)</sup>를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의 분포를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표 1. 전국 장애인 추정수

연도	장애인(명)	증가수(명)	총인구대비 비율(%)
2017	2,668,411	-58,499	5.39
2014	2,726,910	43,433	5.59
2011	2,683,477	534,791	5.61
2005	2,148,686	-	4.59

현재 우리나라는 2001년과 2003년의 두 차례 장애인 범주 확대를 통하여 등록 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구의 노령화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1년에는 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수가 5%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민 100명당 5명 이상의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1990년도와 비교시 10배가 넘는 증

가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2018).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 및 자립을 목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문건필, 2012; 윤석민, 2017; 이현수, 박수경, 2011; Graham & Reid, 2000). 이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정부 및 각 지방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정책 중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이후 장애인의 복지 및 재활, 권익 보호 측면에서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창기의 장애인 체육 관련법은 그들의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재활의 의미보다는 신체활동의 의미로 추진되고 있고 법의 개정과 근거조항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을 통한 저변확대로 개선되어지고 있으며 최종목표로 자립생활을 추구하고 있다(조재훈, 이재환, 2015; Kinne, Patriick. & LochnerDoyle, 2004)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을 비롯하여 장애인스포츠 관련 예산 및 기반시설 확충과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업지원 등 장애인생활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고, 2006년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구성 및 2014년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부 및 38여개의 가맹단체로 구성된 국내 장애인체육의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활동과 여가 활동을 비롯한 스포츠에서도 불평등화가 지속되고 있고 장애인에게 생활체육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김권일, 박병도, 이재원, 2007; 김권일, 성문정, 김인에, 2017; 김병일, 박병도, 백승엽, 유홍율, 2014; 노형규, 황상현, 2014; 손석정, 2015).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 국가들은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 미국의 법과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김기용, 2008; 한민규, 1999; Fay & Wolff, 2009). 미국의 경우 1968년 지체장애인의 공공건물 사용에 대한 건축법(The Architectural Barriers Act; P.L. 90-480)을 통하여 직접적이 장애인 관련법령이 제정된 이후

1) 1990~1999: 장애유형으로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장애로 구분  
2001년 제1차 장애범주 확대: 장애유형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신장, 심장 장애로 구분  
2003년 제2차 장애범주 확대: 장애유형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장애로 구분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정과 1975년 전장애 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과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통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와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법령이 등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8년 아마추어 스포츠 법(Olympic Amateur Sports Act)과 2004년 장애인 교육 발전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가 활성화 되었고 현재는 장애인체육의 정의 및 정체성 수립을 통하여 통합된 체육정책과 제도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법령 변천과정을 통하여 미국은 모든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모든 체육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1949년 교육법(법률 제86호)을 통한 특수학교 설립을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장애와 관련된 최초의 법이 시행 되었으며,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법의 기초를 다졌으며,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과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장애인들의 교육, 시설, 재활, 그리고 체육과 관련되어 보완 및 발전 되어 가고 있다(이현수, 박수경, 2011; Yun, 2011). 따라서 본 조사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보장을 위한 관련법들이 정비되어 있는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법과 국내 장애인 체육 관련법들에 관하여 조사하고 향 후 장애인생활체육 관련법을 비롯하여 제도와 행정적으로 국내 장애인체육의 발전방안과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미국의 장애인스포츠 관련 법안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로 연방법을 제정하고 50개의 주정부에 의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장애인 관련 최초의 연방 법안은 1918년 1차 세계대전 후 부상당한 군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제정된 직업 재활법(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이후 1935년의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됨으로써 그 폭이

재활군인을 비롯하여 장애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까지 확대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이전의 법들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에 편중되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제정보조 등에 중점을 두었고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통합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초창기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 법안들은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이라는 활동을 보조하기보다는 재활을 위한 신체활동을 강조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창기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안에서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최승오, 1999, 2013, Bae, Lee, Cheon, & Choi, 2012). 미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sup>2)</sup>과 1990년 장애인법(America with Disabilities Act)<sup>3)</sup>은 연방법을 통하여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과 프로그램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던 장애인에 대해 평등하고 통합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 매우 혁신적인 법안 이었다.

표 2. 장애인체육관련 미국의 연방법

법률	시행	주요내용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1973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프로그램과 시설 운용
전장애아동교육법: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sup>3)</sup>	1975	3세부터 21세의 장애 아동에게 특수체육을 포함한 특수 교육 서비스 실시
Amateur Sports Act <sup>4)</sup>	1978	장애인 경기단체 창설
EAHCA 수정 <sup>5)</sup>	1986	생후 2세까지 장애유아 교육 확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1990	Rehabilitation Act의 확대: 평등권 보장, 장애인 단체의 확대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sup>6)</sup>	1990	장애인 교육법의 전면 수정
IDEA 수정 <sup>7)</sup>	1997	14 가지 장애 유형으로 확대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 <sup>8)</sup>	1998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의 미국 올림픽 위원회 편입

2) 93rd Congress, PL 93-112.

3) 101st Congress, PL 101-336.

3) 94rd Congress, PL 94-112.

이중 미국 재활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최초의 연방 시민법이었으며 그 당시 장애인법 발전에 매우 중요한 법률로 작용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재활법 504조에 나타난 자격을 갖춘 미합중국 내 장애인들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장애인만을 이유로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별방지와 사회참여의 걸림돌에서 제거하려고 시도 하였다.

또한 1975년 시행된 전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을 통하여 장애학생들이 어떠한 형태든 교육 및 지도자의 평가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교육 중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주요한 교육권으로 명시(PL 94-142) 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하여 연방 및 주정부의 주도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90년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과 1997년 수정된 장애인교육법이 제정 되었다. 이와 같이 보완 발전을 통해서 초기의 재활체육에서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체육 그리고 현재는 평생체육을 강조하는 장애인 생활체육(adapted physical activity)으로 변화 및 발전을 통하여 평생체육개념의 다양한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이 설계되고 발전 되어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유아시절부터 체육활동을 통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방법 중 1978년 미국 아마추어스포츠법(Amateur Sports Act)에서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명칭을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아마추어 장애인운동선수(amateur athletes with disabilities)로 변경 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 경기 및 선수들을 비장애인 경기 및 선수들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강조하는 법 조항들이 명시 되어졌다. 이러한 법적제도와 지원방안은 미국 장애인 스포츠 발전 및 저변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1998년 미국 올림픽 아마추어 스포츠법(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미국 스포츠의 중심축으로 강화 하였으며 미국청각스포츠연맹(USA Deaf Sports Federation), 미국장애인스포츠(Disabled Sports USA), 미국 왜소증 운동선수협회(Dwarf Athletic Association of America), 스페셜올림픽(Special Olympics), 미국시각장애운동선수협회(US Association of Blind Athletes), 미국휠체어스포츠(Wheelchair Sports USA)등 7개의 장애인 운동단체가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 소속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상이군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처음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 법안들은 대상자의 확대를 통하여 장애아동들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학교체육을 지속적으로 강조 하고 있고 성인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통한 복지서비스와 평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 법안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유아기와 학령기의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운동선수들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중 1978년 제정된 미국 아마추어스포츠법의 실시를 통한 장애인스포츠의 저변 확대의 시작과 이후 1998년 미국 올림픽 아마추어 스포츠법을 통한 미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미국올림픽위원회로의 편입은 우리나라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III. 한국의 장애인스포츠 관련 법안

우리나라는 2007년 4월에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은 미국의 시민권 법률인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영향을 받았다(김재원, 2011). 이와 같이 미국법의 제도와 형태를 참조한 우리나라의 장애인법은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법 조항에서도 미국 법과 유사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창기 장애인과 관련된 법 조항으로 1981년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및 비장애

4) 95th Congress, PL 95-606.

5) 86th Congress, PL 99-457.

6) 101st Congress, PL 101-336.

7) 105th Congress, PL 105-117.

8) 105th Congress, PL 105-227.

인과의 차별 방지를 위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sup>9)</sup>이 제정되었고 현행 장애인복지법<sup>10)</sup>을 시행하고 있다. 28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의 정의를 “심신장애자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가 보다 구체화 되었으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 및 삶의 만족을 위한 법령들이 제정되고 편의 시설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현실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계적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급급하였으며 법 제정 이후 제반 시설을 비롯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법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Yun, 2011).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200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국내·외적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모든 필요한 대책 및 사항들을 강구하는 제도로써 대한민국 체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은 2005년 이전까지 21번의 제정·일부개정·타법개정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3년간 장애인을 위한 체육정책은 전무 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마침내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신체활동만을 보건복지부 담당으로 하고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주관해오던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행정조직을 이관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재활개념이 아닌 운동경기 및 야외활동 등의 신체활동을 통한 심신단련이라는 체육의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졌으며, 장애인 체육이 비

장애인체육과 동등한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다(김권일, 성문정, 김인애, 2017; 김지태, 김영준, 2012; 정연성, 2012).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 관련법은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이후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sup>11)</sup>을 실시하였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제4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년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직접개최하거나,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와 제46조의 “장애인 체육의 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한다.” 라는 취지하에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sup>12)</sup>가 1989년 4월 28일 설립되어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한 법적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후 2000년 3월 14일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sup>13)</sup>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체육진흥 활동뿐만 아니라 복지연구·복지진흥으로 영역이 확대 되었다. 이후 2005년 10월 31일 장애인체육관련 정책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sup>14)</sup>로 이관한 후 현재 장애인의 체육을 통한 복지 및 정책지원 기능이 강화 되었다.

이와 같이 2005년 7월 29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7630호)에서 개정된 23조의 2항<sup>15)</sup>은 국내에서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에 중점을 두어 시행해온 장애인 체육을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근간을 두고 있는 체육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제도 및 사업이 시행된 첫 단계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조창욱, 오아라, 장지훈, 2012).

11) 법률 제4179호, (1989. 12. 30, 전부개정 및 시행).

12)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제5장, 46조).

13)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제2항 (1999.02.08, 전부개정, 2000.01.01, 시행).

14) 제23조의 2, 법률 제7630호, 2005.07.29, 일부개정, (2005.10.30, 시행).

15) 제23조의2(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다.

1.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장애인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5. 장애인선수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계 유공자의 복지향상
6. 그밖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법률 제3452호, 1981.06.01, 제정 및 시행.

10) 법률 제11521호, 2012.10.22, 일부개정, 2013.04.23, 시행.

표 3. 장애인체육관련 국내법

법률	시행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장애인복지법 개정	2000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범위확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005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의 차별 배제

2005년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조의2(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담당하므로써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된 2005년 이후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울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와 38여개의 장애인체육 가맹단체를 포함하여 총 60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후 장애인체육 예산은 2006년 97억 원에서 2015년 600여억 원으로 대폭 증가 하여 장애인을 위한 종합체육시설 확충, 체계적인 장애인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 국제 장애인 체육교류,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 등 양과 질적으로 향상된 다양한 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김권일, 박병도, 이재원, 2007; 김지태, 김영준, 2012).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정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체육이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정책을 비롯하여 중·장기계획이 수립을 통한 장애인 체육이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진 결과이다(정연성, 2012; 조재훈, 이재환, 2015; 최승권, 2007; Bae, Lee, Cheon, & Choi, 2012). 하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회구성원들의 편견과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인원 부족, 그리고 시설의 부족 등 제반여건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 또한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관련법을 살펴보면 1978년 아마추어스포

츠법을 통한 장애인스포츠단체들의 설립된지 20년 후인 1998년 장애인체육단체들이 올림픽위원회에 편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6년 엘리트체육을 담당하였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였던 국민생활체육회가 25년 만에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 하였다. 2005년에 창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 등으로 인하여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미래의 정당한 통합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보다 명확한 기반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법조항들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과거 부실했던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관심과 평등이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장애인체육은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법 또한 1978년 장애인체육단체들이 설립 20여년이후인 1998년에 장애인체육단체들과 비장애인체육단체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국내 장애인체육은 현재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미래의 장애인체육의 첫째 과제가 될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IV. 한국 장애인생활스포츠 발전방안

현재 국내 장애인체육은 다양한 법과 제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한 장애인엘리트선수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장애인체육의 근간이 되어야 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체육의 지속적인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집중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장애인엘리트선수 및 종목 지원과 더불어 2015년 실시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활용을 통한 평생체육으로서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법에 대한 조사 및 비교를 통하여 국내 장애인체육의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 중 국내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해 새로

이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운영방안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중점을 두고 논의 하고자 한다.

## 1.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운영방안 확립

2012년 2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령을 통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사<sup>16)</sup>가 기존의 경기지도사나 생활체육지도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자격제도로 전문화 되었고 2015년 01월 01일 부로 시행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검정에 866명이 지원하여 533명(61%)이 최종 합격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가공인 자격으로서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배치 비율과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자격시행이후 자격 취득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스포츠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장애인 체육 지도사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관련법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첫해부터 장애인체육지도사의 활용도가 낮고 향후 장애인체육지도사의 자격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및 규모, 이용자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체육 지도사들의 의무적 배치를 통한 장애인체육지도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일선 장애인 스포츠팀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실시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취득을 의무화 하고 앞으로 장애인체육지도사자격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단체 및 기관을 조사하여 장애인 체육 지도사들의 원활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통하여 체계적인 운영방안 또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항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2. 장애인 체육의 생활체육분야 활성화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활성화가 시급하다. 2014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sup>17)</sup>에 따르면 주2회 이상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43.5%로서 2008년의 34.2%에 비해 약 10%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고 2017년도에는 48.1%로서 지속적인 증가(문화체육관광부, 2017)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2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는 20.1%로 2006년 4.4%와 2008년 6.3%, 2012년 10.6%등 연도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국민 생활체육참여율과 비교하여 약 30%정도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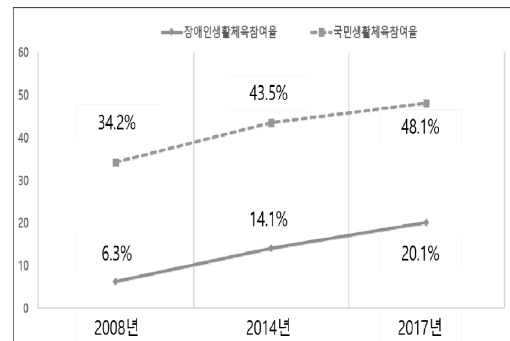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생활체육참여율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선, 시간의 부족과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 등 개인적인 요인이 주를 이루었으며(김권일, 박병도, 이재원, 2007; 조창욱, 오아라, 장지훈, 2012), 시설의 접근성과 이동수단 및 프로그램의 결여 등 환경적인 요인(김권일, 성문정, 김인애, 2017)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초창기 체육정책이 엘리트선수중심이었으며, 장애인 스포츠 역시 엘리트 선수 중심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에 앞서 환경적 제약의 개선을 통하여 접근성

17)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2014.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6조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와 2항의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전국 실내 공공체육시설(체육과 및 수영장 포함)의 편의 시설 조사에 따르면, 약 45%의 체육시설이 미흡하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원인 중 대부분 체육시설은 주차장은 설치 기준에 93% 이상이 충족하지 못하며, 절반이상의 시설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 미설치(62.8%)와 리프트 미설치(95.5%)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따라서 생활체육시설의 편의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제9조<sup>18)</sup>에서 제시된 사항의 실천을 통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후 생활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유지 및 보수)를 통하여 계속적인 생활 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천 장애인체육 종합훈련원과 사·도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외에도 생활체육시설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현재 국내 장애인체육은 다양한 법과 제도의 지원에

도 불구하고 장애인엘리트선수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법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장애인생활체육의 내실화를 위한 우선 추진과제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추진과제로는 첫째, 장애인체육지도사의 활성화이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으로서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배치 비율과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자격시행이후 자격취득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스포츠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장애인체육지도사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관련법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및 규모, 이용자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체육지도사들의 의무적 배치를 통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활성화가 시급하다.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에 앞서 환경적 제약의 개선을 통하여 접근성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중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권일, 박병도, 이재원(2007). 장애인체육진흥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5(2), 138-142.
- 김권일, 성문정, 김인애(2017). 국내·외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모색: 한국, 영국, 미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5(4), 143-159.
- 김기용(2008). 서양 장애인 체육 제도화의 배경.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6(2), 71-81.
- 김병일, 박병도, 백승엽, 유홍율(2014). 지역사회 장애인 체육 현황 및 발전 방안: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2(2), 1-12.
- 김재원(2011). 미국 장애인법의 성과와 한계. **성균관대학**

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교 법학연구소, 23(3) 1019-1023.
- 김지태, 김영준(2012).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체계에 대한 육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51(3), 417-426.
- 노형규, 황상현(2014). 한국, 미국, 일본의 장애인체육 관련 법률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2(1), 25-38.
- 문건필(2012).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스포츠와 법** 15(4), 142-156.
- 문화체육관광부(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 공공체육 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8). 2017 장애인실태조사.
- 손석정(2015).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비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3), 33-49.
- 안인준, 윤양진(2007).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8(2), 319-328.
- 윤석민(2017). 성인 지체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가 심리적 행복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0, 517-526.
- 이현수, 박수경(2011). 지역사회 장애인 체육과 스포츠 거버넌스 발전방안: 학교체육, 생활체육 중심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9(1), 29-42.
- 정연성(2012).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와 자아 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1), 665-674.
- 조재훈, 이재환(2015). 문화체육관광부 체제의 장애인 생활체육 현실과 정책 우선순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3(4), 127-140.
- 조창욱/오아라/장지훈, “법에 투영된 장애인체육 현황 및 변천과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15(4), 2012.
- 한민규(1999).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7(2), 117-124.
- 최승오(1999). 적응체육의 용어 및 철학적 배경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8(2), 3-10.
- 최승오(2013). 특수체육의 역할과 미래 방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1(3), 1-15.
- 최승권, “장애인체육의 향후 정책 방향”. **스포츠과학**, 7(2), 2007.
- Bae, J. J., Lee, J. C., Cheon, M. W., & Choi, S. O. (2012). The development of an internet-bas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for adapted physical education service delivery. *Lecture Notes in Electrical Engineering*, 203, 399-407.
- Fay, T. & Wolff, E., Disability in sport in the twenty-first century: Creating a new sport opportunity spectrum.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27, 2009.
- Graham, A., & Reid, G. (2000). Physical fitness of adult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A 13-year follow-up study.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1, 152-161.
- Kinne, S., Patriack, D., & LochnerDoyle, D. (2004). Prevalence of Secondary Condition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 443-445.
- Yun, S. M. (2011). Republic of Korean middle school general physical educator's level of empowerment in a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Denton, USA.



# 생활스포츠로서 복싱의 가치 탐색에 따른 활성화 전략

## The Activation Strategies based on Value of boxing as Sport for Life

허기주\* 대한복싱협회

Hur Ki-Joo Korea Boxing Association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복싱의 생활스포츠로서의 가치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복싱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여 구체적 전략 설계의 방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고찰과 전문가 집단 협의를 병행하여 자료를 분석 및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하여 결과를 기술하면 복싱이 현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 혜택을 크게 신체적 혜택,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 등 세 가지이다. 복싱은 여가, 레저스포츠, 취미 활동으로서 개인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하여 결과를 정리하면 복싱의 경기적 완성도는 높으나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복싱협회의 정체성과 경영 비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가?, 둘째, 일반인의 복싱 접근성 문제는 해소 가능한 현실적인 것인가?, 셋째, 복싱이 다른 투기 종목 또는 유사 스포츠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다. 이 세 가지의 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싱인들의 의지와 실천력, 복싱의 학문적 연구, 복싱의 문화적 독창성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ucture and explore the debate about the value and the activation plan of boxing as a sport for everyday lif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and processed in parallel wit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group consultation. Describing the results of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n this study, there are three general benefits that boxing can offer to modern people: physical benefits, psychological benefits, and social benefits. Boxing has a functional aspect to solve individual needs as leisure, leisure sports, and hobbies. The results of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suggest that boxing is highly competitive but requires a practical approach to improving public accessibility. The results of the third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 it necessary to redefine the identity and management vision of the boxing association? Second, is it possible to solve the boxing accessibility problems of the general public? Third, Is it different from other sports? to be. In order to solve these three issues, what is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nd disseminate contents on the willingness and practice of boxers, academic study of boxing, and cultural originality of boxing.

Key words: boxing, leisure, sport, popularity, activation

\* hur1296@naver.com

## I. 서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4전5기의 신화와 일컬어지며 한국 복싱의 역사에 길이 남는 명장면을 연출해낸 홍수환 선수의 어머니를 향한 외침은 1970년대를 지나 온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한 유행어로 남아있다(박태훈, 2018).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경제의 발전,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온 국민이 피, 땀 흘려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던 그 시기에 홍수환 선수의 챔피언 등극은 온 국민의 자랑이고 당시 한국 사회의 희망과 같은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에 등극한 1973년, 1970년대를 전 후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스포츠란 근로와 생활에 지친 심신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방구였다. 특히 복싱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의 선수를 대적하는 우리나라 선수와 국민이 동일시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경계하고 싸우는 모양새를 만들어내며 복싱의 대중적 인기가 매우 드높았다(김진표, 2005). 특히 많은 한국선수들이 세계챔피언이 되어 생활고를 이겨내고 유명인사가 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복싱은 신분상을 할 수 있는 스포츠로 대접 받기도 하였다(김원기, 전만중, 박상호, 2003).

복싱이 국내에 소개된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특히 1986년 서울에서 펼쳐진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12개 체급 모두를 한국의 금발로 만든 바 있다. 복싱은 이어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우리나라의 ‘효자종목’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김원기, 전만중, 박상호, 2003). 한국 복싱이 지닌 경기적인 역량과 선수들 및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은 매우 드높았다. 그러나 프로 복싱에서의 선수 부상 등의 악재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대중의 복싱에 대한 관심 저하가 한국 복싱의 자연스러운 퇴조를 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백진우, 2007).

한국의 복싱은 전문스포츠로서 성장을 먼저 시작하였다. 김덕구, 홍수환, 장정구, 유명우 등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를 주름잡던 복싱선수들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한국 복싱의 역사는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하여 한국전쟁의 아픔을 이겨내려던 시기의 문화와 맞닿아 있다. 복싱 선수들이 전 세계의 유명 챔피

언들을 차례로 이겨내며 승전보를 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한도 찢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인기스포츠가 되었던 복싱은 경제와 생활수준이 발전한 지금의 시기에 우리 대중들에게는 감흥을 주지 못하는 스포츠로서 조금씩 영향력을 잃어 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이라며 한국 복싱의 역사를 돌이키며 다시금 복싱을 부활을 위한 노력은 복싱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적인 미디어에서 복싱경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게 되었지만 복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복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 환경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복싱의 퇴조를 막고 대중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복싱을 중심으로 한 융합형 생활스포츠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기도 한다. 태권도와 복싱을 융합한 ‘태보’가 그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복싱과 에어로빅을 결합한 ‘복싱에어로빅’이다. 두 융합형 뉴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모두 복싱의 높은 운동량과 신체 활동량을 장점으로 살려 성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은혜, 오덕자, 2017; 함정혜, 2003)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대중화, 스포츠의 활성화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즉 복싱이 대중성을 회복하고 활성화되려면 과거 복싱이 우리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시대적 아이콘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분명히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문화 수준을 확인 할 수 있는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의 재미를 추구하던 대중사이에서 특정 종목에 재능이 발견되거나 발현되면 이들이 다시금 전문스포츠(엘리트 스포츠)의 영역을 유입되어 국가 간 경쟁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여하여 해당 스포츠 종목의 부흥을 꾀한다.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고 취미로 즐기는 생활스포츠영역을 구분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생활스포츠영역에서 시작하여 전문성을 지니게 되는 수준에 올라서면 전문스포츠인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활동을 이어가는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비용, 시간, 시설 등의 제한

적 환경 요건에 의해 모든 종목이 생활스포츠에서 전문 스포츠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00년대에 들어서며 중요하게 고려하는 국내의 스포츠 정책은 생활스포츠기반 완성형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풀뿌리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성장한 생활스포츠 환경에서 우수한 스포츠 인재를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조규정, 2016). 즉 정부주도로 성장하던 시기의 국가 스포츠 정책과 달리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합 성장이 가능한 스포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복싱도 이러한 스포츠 정책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복싱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싱을 누구나 언제나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이루어서 대중화된 환경 안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해 내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먼저 복싱이 국내에서 생활스포츠로서의 기반을 각축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복싱의 생활스포츠로서의 가치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복싱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여 구체적 전략 설계의 방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의 설정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싱이 현대적 스포츠 활동으로서 지니는 가치는 무엇인가?

둘째, 복싱이 현대적 스포츠 활동으로서 대중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복싱의 활성화 방안이 지니는 쟁점은 무엇인가?

넷째, 복싱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싱의 생활스포츠로서의 가치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복싱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여 구체적 전략 설계의 방향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방법, 전문가 집단 회의, 자료 처리, 타당성 및 신뢰성, 연구자의 진실성에 대하여 차례대로 기술하였다.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문헌 고찰의 전 단계로 전자 문헌 검색을 예비적으로 활용하였다. 문헌검색은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이때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RISS)를 이용하였다. 효과적인 문헌 검색을 위하여 예상되는 문헌고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연구 문제를 확인하였다. 둘째, 복싱, 권투, 생활스포츠 등의 기준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 2. 조사도구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도구로 문헌 고찰과 수집된 문헌의 분석단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집단회의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1) 문헌고찰

복싱의 사회문화적 가치 탐색을 통한 활성화 전략의 방향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의 개념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실시된 자료 수집 및 정리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을 기초로 하는 전문가 회의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검증된 자료가 주관적 관점에서 머물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지니도록 하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관련분야의 다양한 콘텐츠에서 생산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문헌고찰을 위와 같이 전문가 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하면 연구 방법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 문헌고찰이 이루어지도록 문제제기-자료검색-문헌선정-자료분석 및 정리-해석단계 등 총 5단계의 진행절차를 거쳐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이 명료하게 이루어지도록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범위를 2000년

부터 2018년 까지 학위논문, 연구논문, 보고서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 2) 전문가 집단회의

본 연구의 전문가 집단 회의는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개월 동안 수시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기초적 분석 내용을 제공한 후 분석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함께 살펴보는 목적을 지니고 전문가 집단 회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 집단 회의는 3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스포츠경영 및 행정 전공 교수 1명, 복싱 전공 교수 1명, 복싱 국가대표 지도자 1명 및 스포츠 코칭론 박사 학위 소지자 1명 등 총 4명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전문가 집단은 1단계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서 추출된 각 정보를 내용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해당 정보의 의미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추출된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 3. 자료분석

문헌고찰과 전문가 집단회의를 병행하는 연구절차 설계에서는 질적 타당도 분석이 곧 자료 분석 방법이 된다. 자료처리 과정에서 실행되는 본 연구의 타당도 검증 방법은 모두 두 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외적 비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적 비평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특징적인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하고 자료의 진위를 구분하는 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내적 비평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수집되어 분류한 자료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즉, 내적 비평은 질적 연구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Thomas & Nelson, 2004). 질적 연구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자료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노력하였다.

## 4. 자료처리

문헌 고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내용과 의미에 따라 기준을 설정

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귀납적 범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구 문제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기본으로 하위 내용들을 도출하였다(Tashakkori & Teddlie, 1998, 2002).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분석을 통하여 원자료의 조직화·체계화·범주화를 실시하였다. 각 조직화·체계화·범주화 과정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기술하고 이를 분석하여 해석하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연구자와 전문가 집단 간 능동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논의

## 1. 복싱의 현대 스포츠적 가치

수집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인들에게 인식되는 복싱의 기능적 의미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싱은 현대 스포츠의 하나로서 스포츠가 지닌 가치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싱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 활동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인들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복싱의 가치를 재검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현수(2014)의 연구에 따르면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복싱을 수련하면서 지니게 되는 복싱에 대한 경험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일반인의 복싱 수련 경험 인식

복싱 수련 경험에 의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었던 무형식 시청각 학습이 실제 수련으로 실행</li> <li>잠재되어 있던 격투본능의 활성화</li> <li>사회생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한 해소 수단</li> <li>수련 중 형성되는 커뮤니티는 사회적 소통의 기회로 작용</li> </ul>

출처: 윤현수(2014)

또한 여성의 복싱 체험에 대하여 탐색한 김민수(2004)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투기 종목은 어렵고 힘든 것으로 치부되고 땀 냄새 나고 불편한 운동이 배척되는 현상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는 자생적으로 지닌 정체성과 매력에 의해 선택되고 대중적인 활동으로 성장 할 수 있다는 의미 일 것이다. 그리고 김상우, 김우성(2018)의 연구에서는 복싱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복싱이 경기력 성과 이외의 영향력 뚜렷한 분야가 있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근거로서 매우 중요하게 보인다.

표 2 여성의 복싱 체험 인식

여성의 복싱 체험	
신체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감</li> <li>• 신체만족</li> <li>• 긴장해소</li> <li>• 힘겨움</li> </ul>
정서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심</li> <li>• 경쟁심</li> <li>• 희열감</li> <li>• 성취감</li> <li>• 두려움 극복</li> </ul>
사회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대</li> <li>• 갈등</li> </ul>
인지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li> <li>• 열정</li> <li>• 희망</li> </ul>

출처: 김민수(2004)

표 3.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복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체적 효능감 향상</li> <li>• 스트레스 해소</li> <li>• 정서 순화</li> <li>• 대인관계 능력 개선</li> <li>• 자아존중감 증진</li> </ul>

출처: 김상우, 김우성(2018)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복싱이 현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 혜택을 크게 신체적 혜택,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복싱을 하게되면 인간이 삶속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 충족을 기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복싱만의 특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스포츠 활동이 지닌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싱의 기능적 혜택이 복싱을 지속하게 만드는 동기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4. 복싱 활동의 기능적 혜택

내용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력 향상</li> <li>• 신체 조정력 향상</li> </ul>
심리, 정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 해소</li> <li>• 정서 순화 조절</li> <li>• 자아존중감</li> <li>• 성취감 및 자신감 회복</li> </ul>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관계</li> <li>• 공감능력 향상</li> </ul>

7출처: 김상우, 김우성(2018)

과거 한국의 스포츠 발전상에 의해 복싱과 같은 투기 종목은 일반적인 대중이 경험 할 수 없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최근 복싱과 에어로빅을 융합한 ‘복싱에어로빅’이라는 생활스포츠로 변모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 복싱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더욱 발전시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찬교, 김규호, 박승현, 2011; 함정혜, 2003).

복싱클럽의 일반 회원 참여동기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에 대한 동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진표, 200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하면 복싱이 대중 생활스포츠로 지속되기 위해서 낮은 연령의 잠재적 참여자를 복싱활동에 유입시킨 후, 저연령의 참여자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지속적

인 복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2. 복싱 활성화 방안의 특징

복싱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선행 연구에서 규명한 국내 복싱의 현황을 재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안병오, 박상현, 조춘환(2016)이 대한복싱협회의 환경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환경 분석의 내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회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스포츠로서 복싱이 미래적 비전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대한복싱협회 환경분석

내용	
<b>강점</b>	<b>약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단체</li> <li>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li> <li>복싱의 진흥을 위한 수익 사업</li> <li>유일한 복싱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부족(재정자립 미약)</li> <li>조직관리 부진</li> <li>중장기 발전전략 수립부재</li> <li>전문성 결여(심판지도자 임직원)</li> </ul>
<b>기회</b>	<b>위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BA의 IOC 위상강화</li> <li>AIBA APB, WSB의 기대감</li> <li>국내외 복싱의 환경적인 변화</li> <li>엘리트 및 생활스포츠단체의 통합</li> <li>세계 최초 복싱 품단증제도 시행</li> <li>생활스포츠 복싱의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복싱의 환경적인 변화</li> <li>새로운 종합격투기(K1, UFC 등)의 등장</li> <li>국가자격증스포츠지도사의 개편으로 비엘리트 출신들의 사설스포츠관 난립</li> <li>복싱관련 유사기관 설립</li> </ul>

출처: 안병오, 박상현, 조춘환(2016)

특히 안병오, 박상현, 조춘환(2016)의 연구에서는 대한복싱협회가 생활스포츠복싱의 활성화를 통한 복싱의 저변확대와 국민체력 향상과 엘리트 복싱의 지원 및 육

성을 통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가치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발전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매우 급격히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따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환경 분석의 위협 요인에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표 5>의 강점에 나타나 있는 강점용인이 기회요인과 융합하여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복싱 협회가 경기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생활스포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한 것이다.

복싱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비인기 종목으로서 경기의 인지도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연구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 연구를 진행한 한상진, 최현미, 양도엽(2017)의 연구에서는 관중배려, 교통편리성, 경기장시설, 경기홍보, 진행요원의 친절이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미 만족도가 높으면서 계속 현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인으로는 선수경기력, 경기장위치, 복싱관계자노력, 스타선수육성, 심판경기진행, 적극적경기내용, 지속적인경기 개최 등을 보고하였다(한상진 외 2인, 2017). 해당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복싱이 관람 스포츠로서 가져야 할 효율적 요소는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람자와의 접점이 발생하는 서비스적 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표 6. 복싱경기 관람자 관점의 주요 요인

내용	
<b>현상유지 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수경기력</li> <li>경기장위치</li> <li>복싱관계자노력</li> <li>스타선수육성</li> <li>심판경기진행</li> <li>적극적경기내용</li> <li>지속적인경기 개최</li> </ul>
<b>집중개선 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중배려</li> <li>교통편리성,</li> <li>경기장시설,</li> <li>경기홍보,</li> <li>진행요원의 친절</li> </ul>

출처: 한상진, 최현미, 양도엽(2017)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복싱의 스포츠적 완성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표 6>의 현상유지 요인을 확인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결국 복싱이 풀뿌리 중심, 일반의 동호 활동 기반의 스포츠 보급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스포츠 정책기조에서 생활스포츠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영, 천길영, 김진표, 조선령(2007)의 연구에서는 생활스포츠로서 복싱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음 <표 7>과 같은 분석 자료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복싱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정보를 가지고 있어 복싱 활동에 접근하더라도 활동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투기종목으로서 부상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복싱으로의 접근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는 복싱 종목만의 문제로 국한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비인기 종목이 대중의 흥미유발을 매우 크게 어려운 문제로 지적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중의 심리적,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의 확보가 우선임을 제기하고 있다.

표 7. 생활스포츠 복싱의 장애요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부족</li> <li>• 시설부족</li> <li>• 부상의 위험</li> </ul>

출처: 김주영, 천길영, 김진표, 조선령(2014)

### 3. 복싱 활성화 방안의 쟁점에 대한 논의

복싱의 활성화 방안의 조건과 환경 그리고 기초적인 전략을 살펴 본 내용을 분석하여 복싱을 대중적인 인지도를 지닌 현대의 생활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문제를 제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복싱협회의 정체성과 경영 비전에 대한 재검립이 필요한가? 안병오, 박상현, 조춘환(2016)의 연구에서 대한복싱협회의 환경 분석과 함께 생활스포츠로의

복싱 변모를 위해 제시된 경영비전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논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 비전의 제시가 실천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원인이 생겨날 수 있다. 바로 조직 구성원의 변화가 없을 때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조직 구성원의 문제는 경기인 출신 조직구성원과 생활스포츠 지도자 출신 조직 구성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스포츠로의 변화를 이끌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복싱인이 대한 복싱협회에 존재하는가이다.

정부의 정책과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외형적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장 어려운 것은 복싱인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공존 및 상생 할 수 있는 복싱 조직 환경이 복싱을 생활스포츠로서 대중화 시키는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선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인의 복싱 접근성 문제는 해소 가능한 현실적인 것인가? 해당 문제는 첫 번째로 제기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 일 것이다. 생활스포츠로 확산시키고자하는 의지가 강한 조직 구성 내에서 자발적으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외부의 연구에 의한 변화 요구는 실천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환경 보성이 되거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다 내부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 내에서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즉 단기적 및 장기적인 과제와 전략을 구분하여 실천하는 것은 내부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셋째, 복싱이 다른 투기 종목 또는 유사 스포츠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다. 해답을 찾아가는데 어려운 과정이 동반될 수 있는 문제이다. 태권도, 이종격투기, 유도 등은 각 종목마다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태권도 보급의 기초기 관인 태권도장의 혁신(김두한, 2012), 이종격투기의 미디어 영향력(유홍식, 임성원, 2005). 유도 경기의 미디어 친화적 규칙 개정 등이 각 종목의 차별성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종목의 발전 방향성과 전략적 접근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태권도는 학교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격투기는 미디어 노출의 순취움으로 인하여 폭력성 발현의 문제를 제기 받고 있다. 또한 유도는 경기로서 발달하면서 생활스포츠로의 발전이 더디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타 종목의 선례를 살펴볼 때, 복싱이 대중을 향한 체계적인 인지도 상승과 대중성 확보, 결과적으로 생활스포츠로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이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복싱만의 특징을 발전시키는 기술적 문화적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복싱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제고

국민의 건강증과 여가생활의 확대를 위하여 하나의 콘텐츠로서 복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스포츠 정책의 방향을 고려하여 복싱의 활성화 전략을 제안 할 필요가 있다.

바근혜 정부 이후 한국의 스포츠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였다. 문화스포츠부와 교육부가 스포츠 활용의 목적에 따라 관리감독을 달리하는 가운데 전문스포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로 구분되어 성장하던 스포츠환경을 재정비해 선진국형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임희준, 이은영, 마빈 워싱턴, 이경준, 원도연, 전용관, 정재용, 2016). 그 첫 과정으로 대한스포츠회와 국민생활스포츠회가 통합되어 대한스포츠회로 재출범하였다. 대한스포츠회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스포츠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지원,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스포츠참여 조직화,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기반 마련, 학교스포츠 활성화 지원, 스포츠분야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등이다.

이를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스포츠활동으로서 역할 및 기능. 그리고 나뉘는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능적 특징을 지니거나 특정한 연령기에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할 때 지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럽제 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스포츠로서

도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규모의 성장을 누리는 종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 및 질적 성장을 이루고 난 후에는 규모가 확보된 동호인 수 및 경기인 안에서 역량 있는 스포츠 인재를 발굴하여 해당 종목의 인지도를 향상 시키고 국제대회에서의 입상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위상 강화 마련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 환경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선진국형 스포츠 환경을 구성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개별 스포츠 종목도 이러한 논리구조 내에서 발전 전략을 구성해야 국가의 스포츠정책 기조와 맞물려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싱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안 할 수 있다. 첫째, 복싱의 기능 체계를 재구성하는 연구를 통하여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스포츠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클럽 대항 이벤트를 개발하여 복싱의 생활스포츠적 이미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호인 및 경기인의 확산을 도모하여 학교스포츠 또는 방과후 스포츠 활동 및 지역 클럽제 스포츠활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복싱협회가 운영하는 거점 클럽을 상시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복싱 홍보 및 복싱 참여 확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복싱 동호 인구가 증가해야만 복싱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복싱의 생활스포츠로서의 가치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복싱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여 구체적 전략 설계의 방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고찰과 전문가 집단 협의를 병행하여 자료를 분석 및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하여 결과를 기술하면복싱이 현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 혜택을 크게 신체적 혜택,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 등 세

가지이다. 복싱은 여가, 레저스포츠, 취미 활동으로서 개인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하여 결과를 정리하면 복싱의 경기적 완성도는 높으나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복싱협회의 정체성과 경영 비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가?, 둘째, 일반인의 복싱 접근성 문제는 해소 가능한 현실적인 것인가?, 셋째, 복싱이 다른 투기 종목 또는 유사 스포츠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다. 이 세 가지의 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싱인들의 의지와 실천력, 복싱의 학문적 연구, 복싱의 문화적 독창성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대다수 스포츠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주도로 성장해 왔으며 그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풀뿌리 스포츠의 환경을 만들고 생활스포츠 여건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활스포츠로서 다양한 종목들이 보급되는 것은 국내의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에 엘리트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우수선수를 양성하던 시기의 스포츠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매우 절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를 제언 할 수 있다. 첫째, 복싱 지도 및 경기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복싱의 수련 만족으로 일으키는 요인을 재구성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민수(2004). **여성의 복싱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김상우, 김우성 (2018). 복싱운동을 통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한국사회스포츠학회지**,

71, 447-457.  
 김진표(2009). 복싱클럽참여동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도학회지**, 11(2), 163-176.  
 함정혜(2003). 생활스포츠로써 복싱에어로빅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유산운동과학회지**, 7(1), 1-10.  
 정찬교, 김규호, 박승환(2011). 성인여성들의 복싱에어로빅 참여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3), 79-90.  
 윤현수 (2014). 30대 전문직 남성의 생활스포츠 복싱 수련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코칭능력개발지**, 16(2), 13-23.  
 안병오, 박성현, 조춘환 (2016). SWOT분석을 통한 대한복싱협회 경영전략.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235-249.  
 한상진, 최현미, 양도엽 (2017). IPA기법을 통한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방안. **한국사회스포츠학회지**, 70, 241-252.  
 유홍식, 임성원 (2005). 이중 격투기 프로그램에 대한 반복 노출이 시청자의 감정, 프로그램의 폭력성 평가 및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3(2), 91-133.  
 조은혜, 오덕자 (2017). 태보운동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신체조성, 혈중지질 및 세로토닌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과학회지**, 26(4), 1391-1400.  
 김원기, 전만중, 박상호(2003). 한국 복싱의 퇴조에 관한 연구. **스포츠사회학회지**, 12, 90-98.  
 김진표 (2005). 해방이후 한국 아마추어복싱의 국제경기사에 관한 연구. **무도연구소지**, 16(1), 261-270.  
 백진우 (2007). 프로복싱 선수들의 직업적 가치관에 따른 직무만족. **한국스포츠리서치지**, 18(2), 501-508.  
 임희준, 이은영, 마빈 워싱턴, 이경준, 원도연, 전용관, 정재용 (2016). 엘리트선수 발달과정 및 기반구축방안의 제시. **한국스포츠학회지**, 55(6), 677-690.  
 조규정 (2016). 국내 스포츠 환경에서 생활스포츠 문화와 스포츠클럽정책. **한국스포츠과학회지**, 25(6), 301-314.  
 박태훈(2018). "영미야" - "빠페루" - "오노스럽다" - "엄마 챔피언 먹었어"...시대를 휩쓴 스포츠 유행어. 세계일보, 검색일. 2018. 6. 25., <http://>

[www.segye.com/newsView/20180222000529](http://www.segye.com/newsView/20180222000529)

Thomas, J. R., & Nelson, J. K. (2004). **스포츠연구법**(김병

식, 김상국, 남덕현, 윤승호 역.). 서울: 대한미디어 (원저 1985 출판).

---

# 스포츠 사이언스

(Sport Science)

투고 및 편집 규정



## ■ 일반규정

본 스포츠사이언스(Sport Science)에 게재할 논문은 스포츠 관련 분야(인문사회·자연과학) 논문을 투고 받아 전공별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게재함으로서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논문투고자는 논문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게재가 판정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2. 본 논문집은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의 논문으로 한다.
3.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4. 본 논문집은 년 2회(2월말, 8월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의 원고는 6월말, 12월말까지 체육과학연구소로 접수되어야 한다.
5. 논문의 게재 여부는 위촉된 각 전공 영역 및 교내외 심사위원이 판정하되 그 내용의 보충, 일부 수정, 가감요구를 받은 논문은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으며 3회까지 가능하고, 통과 되지 않으면 게재시기가 이월된다.
6. 본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투고규정

1. 논문의 작성은 다음 체제에 준 한다.

1) 논문 표제, 국문요약(요약), 영문요약(Abstract), key words,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 연구자 소속기관 표시

① 단독연구 : 홍길동(동해대학교)

② 공동연구 : 홍길동(동해대학교) · 임격정(서해대학교)

2) 논문의 부제는 순차적인 일련번호에 따라 표기한다.

[일련번호]

1 → 1) → (1) → ① ……

3) 이론적 배경(혹은 관련 연구)은 간결하게 분석 요약하여 서론 부분에 포함시킨다.

4) 결과는 결과(분석) 및 논의로 결론은 결론 및 제언 등으로 쓸 수 있다.

2. 원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 )을 이용하여 표기한다.

3. 원고 편집과 분량은 한국체육학회지 편집양식에 준하여 1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4. 투고원고는 한글 2002 버전 이상으로만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원고에는 국문 · 영문 요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문 · 영문 요약에서는 문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국문 · 영문 요약의 분량은 편집양식 기준으로 첫 페이지에 여백 없이 구성하며 국문요약은 9줄, 영문 요약은 10줄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6. 본문에서는 가급적 외래어 표기를 피하고, 원어를 사용 할 경우에는 우리말 의미를 덧붙이도록 한다.

7. key words는 소문자로 표기하되 고유 명칭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쓸 수 있다.

8. 교신저자 E-mail를 표기한다.

9. 논문투고자는 논문 심사 제출시 논문 심사료 100,000원을 함께 제출한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777537-04-002854 (예금주: 체육과학연구소)

## ■ 원고작성규정

### 1. 그림 및 표 작성

- 1) 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 2)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한글로 작성한다.
- 3) 표 및 그림 제목의 번호는 본문에서 설명을 할 경우 <표 1>, <그림 1>로 괄호를 사용해서 표기하고, 표와 그림에서는 표 4. 그림 1.과 같이 괄호 없이 표기한다.
- 4)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 선으로만 작성한다. 단,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선도 사용할 수 있다.
- 5)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 6) 표 및 그림이 인용된 자료일 경우 표, 그림의 하단 왼쪽에 참고문헌 형식을 제시한다.
- 7) 표 및 그림에 필요한 단위는 반드시 상단 오른쪽 끝에 원어로 표기한다.

### 2. 수학 및 통계기호

- 1) 논문 작성에 사용한 원자료(raw data)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자료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치 공식 등은 논문내용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 3) 통계 또는 수학적식이 새로운 것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에 제시한다.
- 4) 논문에서 추리 통계치를 제시할 때는 통계치 기호와 함께 자유도, 통계치 그리고 유의수준을 같이 제시한다(이때 유의수준의 소수점 앞에는 0을 쓰지 않는다( $p=.001$ )).
- 5) 통계기호의 약호와 기호는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 (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141-144) 참조.



약호, 기호	정의	비고(서체)
MANOVA 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다변량분석 Analysis of variance/변량분석(univariate)	정체
$df$ $f$ $F$ $H_0$ $H_1$ $M$ $Mdn$ $MS$ $n$ $N$ $ns$ $p$ $P$ $r$ $R^2$ $SD$ $SE$	Degree of freedom/자유도 Frequency/빈도 Fisher's ratio/Fisher's F비 Null hypothesis under test/영가설 Alternative hypothesis/대립가설 Mean/산술평균 Median/중앙치 Mean square/평균자승 Number of subsample/하위 집단 사례수 Total number in a sample/전체 표본 사례수 Nonsignificant/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Probability/확률 Percentage, percentile/백분위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상관계수 Multiple correlation squared/결정계수 Standard deviation/표준편차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표준오차	이탤릭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구조방정식 모형	정체
SS	Sum of square/자승합	이탤릭
$x$ $y$ $z$ $SS$	Abscissa (가로좌표, 그래프의 수직 축) Ordinate (세로좌표, 그래프의 수평 축) A standard score/표준점수 Sum of square/자승합	이탤릭
$\alpha$ $\beta$ $\chi^2$	Alpha/일종오류 확률, Cronbach's 내적일관성 지수 Beta/이종오류 확률, 표준화 다중회귀계수 Computed value of a chi-square test /카이자승 통계치	정체

6) 수식과 단위는 다음 표기에 따른다.

옳은표기	틀린표기	옳은표기	틀린표기
단위		pH6.0	PH6.0 pH6.0
12cm	12cm	15MPa(mega pascal)	15mPa 15Mpa
8m	8 M	15%	15%
10 $\mu$ m	10 $\mu$ m 10 $\mu$	28%(w/v)	28%(w/v)28%(W/V)
12g	22g	0.14mg%	0.14mg% 0.14mg%
51kg	51kg 51Kg 51kgs	20ppm	20ppm 20PPM
36ml	36mL 36ml.	1 $\times$ 10 <sup>-3</sup> M	1 $\times$ 10 <sup>-3</sup> M
20L	20l 20.0 l 20.0L	범위	
12.5hr	12.5hr 12.5hrs	0.5-0.8 g	0.5~0.8g
3.8min	3.8min 3.8mins		0.5 - 0.8g
10sec	10sec. 10s	수식	
30mm/min	30mm/min 30mm/min.	0.001	.001
25m/sec	25m/sec	(a+b)/(c+d)	a+b/c+d
25° °C	30 °C		

### 3. 서체 및 숫자

- 통계 부호, 또는 수학의 변수로 사용된 문자는 이탤릭체로 작성하며 통계 약호와 기호는 수학 통계기호의 표기 방법(5)에 따른다.
- 화학 용어, 삼각함수 용어, 그리스 문자, 약어로 쓰인 문자 등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본문 중의 10이하의 수는 글자로 표시한다. 1,000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10이하의 수는 글자로 표시한다. 1,000이상의 숫자에서는 세 자리씩 쉼표로 구분한다.

### 4. 문헌이용

- 본문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을 발행 연도와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 2) 다른 저자의 책에서 출간 된 연구물에서 인용된 자료, 검사 항목에서 따온 자료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언어적 지식 사항 등은 문자 그대로 표기한다.
- 3) 짧은 인용(40단어 이하)은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직접 인용 부호(" ")로 인용문을 표시한다. 40 단어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과 별도로 적고 인용부호는 생략한다. 별도로 인용문을 기술할 때는 문단을 바꾸고 왼쪽, 오른쪽을 각각 5자씩 들여 쓴다.
- 4) 인용을 할 때 본문에는 저자, 연도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 5) 저자가 단체일 경우 처음 인용 때는 단체명을 모두 쓰고 그 이후부터는 약어로 표기한다.
- 6) 인문, 사회 분야의 논문일 경우 필요에 따라 미주(Note 또는 Endnote)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참고 문헌 뒤에 게재한다. 본문 중의 각주(Footnote)는 사용하지 않는다.
- 7) 저자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 및 홍춘희(2001)는— Affonso & Lee(2001)는 —
- 8) 저자가 3인 이상, 5인 까지 경우 첫 인용에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인 경우 성(family name)을 전부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 외국인인 첫 저자의 성과 et al.을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 홍춘희 및 김길수(2001)는 비만의—— 첫 인용  
홍길동 등 (2001)은 비만의———— 반복인용  
Willams, Johnes, Smeith & Lee(2001)는 스포츠 경영에서 —— 첫 인용  
Willams et al. (2001)은 스포츠경영에서————반복인용
- 9) 같은 연도, 같은 성을 가진 다른 2명 이상의 저자 논문을 참고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첫 글자 (initial)를 쓰고, 한국인은 이름 전부를 쓴다.

[예시]

——사회적 스트레스(Volicer, K. A. 2001; Volicer, M. Y. 2001)——

10.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대순으로 하여 ", " 로 띄어 쓰고, 저자명은 각 논문마다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

국문일 경우: (이기동, 1991, 1998). 영문인 경우: (Price, 1988, 1999).

11.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두 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저자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

영문논문인 경우: (Price, 1980a , 1980b) 국문논문인 경우: (홍길동, 1980a , 1980b)

12. 본문 내용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동시에 인용될 때는 한국인 먼저 가나다순으로, 그 다음 외국인은 알파벳순으로 괄호내용에 ( ; )를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시]

——에 대한 연구들(김성태, 1978; 남해구, 1997; 최경수, 2001; Brown & Smith, 1975; Lee, 1954; Williams, 1998)——

13.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 외국인은 성과 등(et al.), 연도를 표기한다. 참고문헌에는 전체 저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예시]

최영광 등 (1998)은 성인병 발병에 관한 연구에서 —— 첫 인용, 반복인용 모두 Price et al. (1987)은 만성질환 추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 첫 인용, 반복인용

## 5. 참고문헌 작성

참고문헌 작성 원칙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2001)에 준한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먼저 동양어 표기 문헌을 가 나 다 순으로,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한다. 세부 주요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간행물(Periodicals)

- 저자(출판년도): 저자명은 모두 명기하되 영문일 경우 성은 전부 쓰고 나머지 부분은 머리글자만으로 표시. 성 다음은 쉼표(,)로 표시하고 저자가 2인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사용. 출판연도는 저자 다음에 붙여서 괄호 안에 표기.
- 논문제목: 영문인 경우 제목과 하위제목(" : " 다음에 이어지는 제목) 첫머리 글자에서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
- 학술지명: 국문인 경우 학술지명은 진하게 표기하고 영문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 영문 학술지명: 축약형(Abbreviation)이 아닌 원제 명칭으로 기재하고 명사, 대명사는 첫머리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
- 권 호 번호와 페이지: 각각 숫자로만 표시하되 국문에서는 권 번호를 진하게, 영문에서는 이탤릭으로 표기. 호(No)는 국문과 영문에서 진하게 또는 이탤릭으로 표기하지 않고 정체로 표기.
- 영문 참고문헌 표기: '양쪽정렬' 편집상 불가피한 단어 간 공간 여백 불균형은 분철로서 적절하게 조절.

[학술지 저자 1명인 경우]

홍길동(1993). 학생체력검사의 평가방법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32(2) 512-530. McPherson, B. D. (1994). Sport participation across the life cycl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Sport Sociology*, 1, 34- 32.

[학술지 저자 2명인 경우]

Klimoski, R., & Palmer, S. (1993). The ADA and the hiring process in organizations.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45(2), 10-36.

## [학술지 저자가 6명 이상인 경우]

Wolchik, S. A. West, S. G., Sandler, I. N., Tein, J., Coatsworth, D., Lengua, L., et al. (2000). An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ory-based mother and mother- child programs for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843-856.

## [심사완료 후 게재 예정 논문]

Zuckerman, M., & Kieffer, S. C. (in press). Race differences in faceism: Does facial prominence imply domi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잡지 기사]

Kandel, E. R., & Squire, L. R. (2000, November 10). Neuroscience: Breaking down scientific barriers to the study of brain and mind. *Science*, 290, 1113-1120.

## [신문기사]

홍길동(1998, 7월 20일). 운동선수의 상해 실태. **동해일보**, pp. A15, A16. New drug appears to sharply cut risk of death from heart failure (1933, July 13). *The Washington Post*, p. A12.

## [초록집]

Woolf, N. Y., Young, S. L., Fanselow, M. S., & Butcher, L. L. (1991). MAP-2 expression in cholinceptive pyramidal cells of rodent cortex and hippocampus is altered by Pavlovian conditioning [Abstract]. *Society for Neuroscience Abstracts*, 17, 480.

## [논문집의 특별 부록-supplement]

Regier, A., Narrow, W. E., & Rae, D. S. (1990). The epidemiology of anxiety disorders: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ECA) experien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24(Suppl. 2), 3-14.

## 2) 단행본(Books)

- 저자, 편집자: 편집된 책일 경우 국문은 저자명 뒤에 (편)으로 표시하고 영문일 경우 (Ed.) 혹은 (Eds.)라는 약어로 표시.
- 출판연도: 책이 발간된 연도 표시.
- 책 제목: 국문일 경우 진하게, 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책 제목은 명사, 대명사만 대문자로 표기. 책이 재판 이상으로 간행된 경우 책 제목 다음에 판수를 기재.
- 출판 도시: 출판도시와 출판사 사이는 콜론( : )으로 표시.

### [단행본]

홍길동(1995). **운동생리학**. 서울: 동양출판사.

Safrit, M. J. (1990). *Introduction to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3rd. ed.). St. Louis, Missouri: Times Mirror.

### [편저]

Gibbs, T. T., & Huang, L. N. (Eds.). (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Jossey-Bass.

### [저자, 편저자가 명기 안 된 단행본]

Merrian-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10th ed.). (1993). Springfield, MA: Merrian- Webster.

### [백과사전, 사전]

Sadie, S. (Ed.). (1980).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6th ed., vols. 1-20). London: Macmillan.

### [편·저서 내의 장(chapter) 또는 논문]

Bjork, R. A. (1989). Retrieval inhibition as an adaptive mechanism in human memory. In H. L. Roediger III & F. I. M. Craik (Eds.), *Varieties of memory & consciousness* (pp. 309-330). Hillsdale, NJ: Erlbaum.

### 3) 보고서(Technical and Research Reports)

[보고서]

김천식(1993).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문화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90). Clinical training in serious mental illness (DHHS Publication No. ADM 90-1679).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4)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Proceedings)

[출간된 자료집]

김경숙(2005).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 한국체육학회, 제24회 국민체육 진흥세미나,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전문체육인의 역할(pp. 29-56)**. 서울: 한국체육학회.

Deci, E. L., & Robert, R. M. (1997).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rgration in personality. In R. Dienstbier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7.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 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포스터 발표]

Ruby, J., & Fulton, C.(1993, June). *Beyond redlining: Editing software that work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Washington, DC.

### 5) 석·박사 학위논문(Doctoral Dissertation and Master's Thesis)

[학위논문]

홍길남(1994). **준거지향 검사의 기준설정방법 비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학위논문 초록집]

Bower, D. L. (1993). Employee assistant programs supervisory referrals: Characteristics of referring and nonreferring superviso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4*(01), 534B. (UMI No. 9315947)



## 6) 시청각 자료(Audiovisual Media)

[TV 프로그램]

Miller, R. (Producer). (1989). *The mind* [Television series]. New York: WNET.

## 7) 전자문서(Electronic Media)

[전자 저널]

Fredrikson, B. L. (2000, March 7).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 Treatment*, 3, Article 0001a. Retrieved November 20, 2000, from <http://journalsapa.org/prevention/volume3/pre0030001a.html>.

[웹사이트 자료]

Greater New Milford Area Healthy Community 2000, Task Force on Teen and Adolescent Issues. (n.d.) *Who has time for a family meal? You do!* Retrieved October 5, 2000, from <http://www.familymealtime.org>.

## 8) 참고문헌에서 허용되는 축약형 용어는 다음과 같다.

축약형	기본용어	축약형	기본용어
Chap.	chapter	p.(pp.)	page(pages)
ed.	edition	vol.	Volume
Rev. ed.	revised edition	vols.	volumes
2nd ed.	second edition	No.	Number
Ed.(Eds.)	Editor(Editors)	Pt.	Part
Trans.	Translator(s)	Suppl.	Supplement
n.d.	no date		

## ■ 심사 규정

### 1. 목적

이 규정은 본 논문집에 게재하기를 원하는 투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심사의 절차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심사는 해당 호의 논문집 발간일 2개월 전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주제에 따라 2명의 공동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재심사 논문은 제 3자에게 맡기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3)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 4)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수정이 필요한 경우 2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 3.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수정사항 지시 이행확인을 위한 “수정지시이행표” 양식을 학교 홈페이지 논문관련양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한다.

5. 논문심사 종합판정표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불가		제3 심사(심사위원C)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제3 심사(심사위원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재 투고)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재 투고 불가)	

심사위원 C(제3심사) 종합판정		재심 결과 종합 판정			
		1인 재심인 경우		2인 재심인 경우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기타 규정

1. 외국어(영어) 논문은 저자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같은 호에는 단독 2편 논문투고 불가하고, 단독 1편 공동연구자포함 2편은 가능하다.  
(단, 특집호는 예외).

## ■ 원고편집양식(한글 2007)

기본적으로 대표 글-휴먼명조, 한글-휴먼명조, 영문-휴먼명조

	서체(영문)	장평(%)	자간(%)	급수	행간	단수	내어쓰기	들여쓰기
본문	휴먼명조	90	-10	10p	150%	2		10pt
논문제목	휴먼명조	90	-10	18p	130%	1		왼쪽
부제목	휴먼명조	90	-10	12p	150%			왼쪽
이름	휴먼명조	90	-10	11p	130%			왼쪽
소속	휴먼명조	90	-10	10p	130%			왼쪽
영문논문제목	휴먼명조	95	-10	15p	110%			왼쪽
영문부제목	휴먼명조	90	-10	12p	150%			왼쪽
영문이름	휴먼명조	90	-10	10p	150%			왼쪽
영문소속	휴먼명조	90	-10	10p(이탤릭)	150%			왼쪽
요약	휴먼명조	90	-10	10p	150%			왼쪽
국문요약본문	휴먼명조	90	-10	10p	150%			
Abstract	휴먼명조	90	-10	10p	150%			왼쪽
영문요약본문	휴먼명조	90	-10	9p	150%			
Key words	휴먼명조	90	-10	8p	130%			
장 제목(서론)	휴먼고딕	90	-10	14p(진하게)	150%	2		가운데
1. 제목	휴먼고딕	90	-10	10p(진하게)	150%	2		10pt
1) 제목	휴먼명조	90	-10	10p(진하게)	150%	2		10pt
표제목	휴먼명조	90	-10	9p	105%	1 or 2		
표내용	휴먼명조	90	-10	9p	105%	1 or 2		
그림제목	휴먼명조	90	-10	9p	105%	1 or 2		
그림내용	휴먼명조	90	-10	9p	105%	1 or 2		
참고문헌	휴먼명조	90	-10	14p(진하게)	150%	2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휴먼명조	90	-10	10p	150%	2	35pt	

- 용지설정 : 사용자 정의 - 190×260, 여백주기 - 위쪽 : 20, 아래쪽 : 20, 오른쪽 : 20, 왼쪽 : 20
- 머리말 : 15.0 , 꼬리말 : 0
- 표 , 그림은 캡션편집

## ■ 연구논문(양적, 질적 연구)의 원고작성 체제의 범례

- 논 제(국문)
- 저자(소속)(국문)
- 논제(영문)
- 저자(영문)
- 국문요약(요약)본문
- 영문요약(ABSTRACT)본문
- Key words
- 교신저자 E-mail
  
- 서론
  - 1. 제목
    - 1) 제목
- 연구 방법
  - 1. 제목
    - 1) 제목
- 결과(결과 및 논의)
  - 1. 제목
    - 제목
- 논의
-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단, 문헌연구 형식의 논문일 경우 서론과 결론 및 제언 부분의 형식은 갖추고 나머지 부분의 체제는 논문주제와 방법의 특성에 적절하게 선택 할 수 있다.



---

# 스포츠 사이언스

(Sport Science)

연구윤리규정



## 『스포츠사이언스』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5-03-02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학술지 『스포츠사이언스』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연구윤리 지침

#### 제1조 연구자의 윤리 지침

-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 대상이 실험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며, 날조, 변조, 표절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fabrication)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falsification) :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plagiarism)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또는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참고>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가 원할 경우 현 소속으로 표시 할 수 있다.

- 5) 중복사용 :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또는 출판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참고>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중복게재(multiple publication) 및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논문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 책임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이중게재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임. 이차 게재와는 구분하여야 함.

<참고>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다음 요건을 갖추어 두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다.

-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함
-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함
- (3)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함
-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함

## 제2장 연구윤리 시행 규정

### 제1조 연구윤리 지침 규정

투고자의 연구윤리 지침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1) 『스포츠사이언스』지의 기존 회원은 윤리 지침의 발효 시 본 윤리 지침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스포츠사이언스』지의 논문투고 시에 "전반적인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전혀 없음" 이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연구윤리 확약서』를 받는다.

## 제2조 윤리 지침 위반 제보 및 접수

- 1) 논문심사위원을 비롯한 『스포츠사이언스』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지침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명백한 윤리 지침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3)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판위원회 내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임시 설치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출판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 4) 위원은 출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6)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7)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8)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4)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1) 윤리 지침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은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윤리 지침 위반이 된다.(5년 검증 시효 및 제보의 구체성 조사)

- 2)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3) 윤리 지침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윤리 지침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5)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 제6조 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

- 1) 윤리위원회는 윤리 지침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징계 결과는 출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3) 윤리 지침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은 윤리위원회 내규에 별도로 둔다.
  - (1) 본 지침은 2015년 편집위원회에서 인준되는 즉시 발효된다.

#### ※ 윤리 지침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

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스포츠사이언스』 윤리 지침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윤리 지침을 1회 위반한 경우
  - 1) 경고 공문 발송
  - 2) 『스포츠사이언스지』에 한시적인 투고 금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
2. 연구 윤리 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 『스포츠사이언스지』에 영구적인 투고 금지
  - 2) 관계기관 고발



# 스포츠 사이언스

## Sport Science

### 제36권 제1호

---

발 행 인 김성조 총장 / 편집위원장 윤석훈 소장

발 행 일 2018년 8월 31일

편집위원

김현태 / 한국체대	오연풍 / 군산대	김기영 / 오산대
조준용 / 한국체대	윤기운 / 전남대	김성덕 / 백석대
박상균 / 한국체대	신상근 / 부산대	이영심 / 제주국제대
김은국 / 한국체대	백진호 / 강원대	이정래 / 경북대
박재현 / 한국체대	강은범 / 대전대	김세형 / 충북대
장덕선 / 한국체대	정구인 / 한국교원대	임승길 / 동신대
심승구 / 한국체대		
김혜영 / 한국체대		

발 행 처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오류동)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304호

전화 02) 410-6691~3 팩스 02) 410-6945

인 쇄 처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전화 02) 2267-9731

---

ISSN 2093-3363

